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연구 보고서

경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촌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보고서

2006. 2. 24

바람부는연구소

#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촌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보고서」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06년

바람부는연구소

「경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촌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보고서」  
연구진

연구책임자 : 강원재(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공동연구자 : 이광준(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팀장)

장우찬(바람부는 연구소 소장)

민병직(바람부는 연구소 책임연구원)

최현주(바람부는 연구소 연구원)

## 목 차

제1장 서론	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2. 연구의 기대효과	3
3. 연구의 내용과 대상	3
4. 연구 조사 방법	4
5. 연구의 한계	5
제2장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개념과 종류	6
1. 창작촌의 개념	6
2. 창작촌의 유형과 종류	11
(1)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11
(2) 창작촌의 비전과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 분류	13
3. 유형별 연구 모델 선정과 기준	15
제3장 창작촌 담론의 생성배경과 전망	17
1. 창작촌 담론의 생성배경	17
(1) 예술제도적 관점	17
(2) 문화생태계적 관점	20
(3) 예술사회학적 관점	24
2. 창작촌 담론 생성배경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의 의의와 한계	27
제4장 경기도 지역의 창작촌 분포와 운영 현황	29
1. 창작촌의 분포	29
2. 운영현황	31
3. 창작촌 관련 제도와 지원정책	46
(1) 제도	46
(2) 지원사업	52
(3) 연구대상공간과 관련 지원정책의 연계 관계	57
제5장 창작촌 유형별 모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58
1. 예비작가 인턴쉽 공간 - 비닐하우스AA	58
(1) 모델분석	58
(2) 활성화방안	68
2.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공간 - 아름다움만들기	76
(1) 모델분석	76
(2) 활성화방안	88
3. 해외예술인 레지던시 공간 - 하계마을	94
(1) 모델분석	94
(2) 활성화방안	104

4. 스튜디오 밀집형 공간 - 일산오픈스튜디오	111
(1) 모델분석	111
(2) 활성화방안	125
제6장. 창작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	136
(1) 인식의 전환	136
(2) 법적 제도적 정비	136
참고문헌	139
부    록1. 창작촌 운영자 및 입주작가 인터뷰 항목	140
부    록2. 2005'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창작촌활성화 지원대상 사업 공간 탐방기	143
- 왕곡천 숲속 테마 예술제	144
- 2005 겨울 Workshop 재미있는 연극교실	148
- 창문 자연 예술제 : 자연·예술·그리고...삶	152
- 화악산 도자기 축제	156

##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의 범주와 유형 및 창작촌 명	4
표 2. <국가별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정의>	8
표 3.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분류	12
표 4. 창작촌의 역할 범주와 유형 및 사업내용	13
표 5. 창작촌의 비전과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 분류	14
표 6. 주거/허가/지역/소유 형태별 유형분류	15
표 7. 비전 및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분류	16
표 8. 경기도 지역 창작촌의 분포	29
표 9. 경기도 지역 권역별 창작촌 수	29
표 10. 경기도 지역의 창작촌과 소재지	30
표 11. 서중사람들 개요	34
표 12. 일산오픈스튜디오 개요	35
표 13. 하제마을 개요	36
표 14. 안성문화마을 개요	37
표 15. 왕곡천예술인마을 개요	37
표 16. 문화예술촌 쟁이골 개요	38
표 17. 양동미술연구소 개요	39
표 18. 아름다움만들기 개요	40
표 19. 창문아트센터 개요	40
표 20.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개요	41
표 21. 현대도예문화원 개요	42
표 22.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개요	42
표 23. 밀머리미술학교 개요	43
표 24. 국악한수 개요	44
표 25. 비닐하우스AA 개요	45
표 26. 농촌진흥법 제13조	46
표 27. 폐교재산활용을 위한 촉진법 제2, 5, 6, 9조	46
표 28. 폐교재산활용을 위한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47
표 2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9조	48
표 3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3조	49
표 3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6조, 제21조	50
표 32.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53
표 33. 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 개요	54
표 34. 문화관광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개요	55
표 35. 문화예술위원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요	56
표 36. 연구대상 창작공간별 지원제도 및 사업과의 상관관계표	58
표 37. 비닐하우스AA 연간 운영비 개요	63
표 38. 비닐하우스AA 2005-2분기 강의 일정(9,10,11,12월)	64
표 39. 비닐하우스AA 조직경영기법적 분석	68

표 40. 비닐하우스AA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적 분석	68
표 41. 비닐하우스AA 재원구분과 용처	72
표 42. 예비작가양성시스템 내 비닐하우스AA의 포지셔닝	76
표 43. 비닐하우스AA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역할 중 비닐하우스의 포지셔닝	76
표 44. 아름다움만들기 조직경영기법적 분석	90
표 45. ‘아름다움 만들기’의 포지셔닝 매트릭스	90
표 46. 예술제도/생태계/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본 ‘아름다움 만들기’의 분석	94
표 47. 하제마을 공간구분	97
표 48. 하제마을의 최근 3년간 주요 세미나 프로그램	100
표 49. 하제마을 레지던시 프로그램 구분	101
표 50. 하제마을 조직경영기법적 분석	104
표 51. 예술제도/생태계/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본 ‘하제마을’의 분석	105
표 52. 하제마을의 포지션 매트릭스	107
표 53. 하제마을의 발전방안	111
표 54. 일산 오픈스튜디오의 역사	116
표 55.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조직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	126
표 56.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대외적 환경 분석	127
표 57.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예술제도, 문화생태계, 예술사회학적 관점 분석	127
표 58.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문화주체별 수준과 관심 분석	128
표 59. 구산동 작가 마을의 포지션 매트릭스	129
표 60. 구산동 작가 마을의 포지션 매트릭스	130

## 그림 차례

그림 1. 200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창작촌활성화지원사업’ 공고문	8
그림 2. 대중문화-고급문화-민중문화의 관계 다이어그램	26
그림 3. 경기도 권역별 창작촌 위치도	30
그림 4. 비닐하우스AA의 전망과 성격	69
그림 5. 비닐하우스AA의 학습원리와 목표	70
그림 6. 비닐하우스AA 조직운영구조도	71
그림 7. 아름다움만들기 조직목표구조1	78
그림 8. 아름다움만들기 조직목표 구조2	80
그림 9 ‘아름다움 만들기’의 호감도/인지도 매트릭스	94
그림 10. 구산동 작가 스튜디오 위치, <a href="http://www.ilsanopenstudio.com">www.ilsanopenstudio.com</a>	113
그림 11. 문화주체별 관심 수준의 시각화, 예술계 종사자 : 큐레이터 사례	129
그림 12.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이미지 포지셔닝1.	131
그림 13.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이미지 포지셔닝2.	131
그림 14.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이미지 포지셔닝3.	132
그림 15.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재원 및 예술 제도와 연관한 따른 포지셔닝	133
그림 16. 일산오픈스튜디오 호감도와 인지도	134



## 사진 차례

사진1. 비닐하우스AA 전경	
사진2. 비닐하우스AA 워크숍 모습	
사진3. 비닐하우스AA 첫 번째 전시회 홍보물	64
사진4.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도된 다양한 작품으로서의 공간들	73
사진5. 영국 런던의 선창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트리트니 부두에 위치한 컨테이너시티Container City, <a href="http://www.containercity.com">http://www.containercity.com</a>	74
사진6. 이동용 학습장 예시 :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몇 동의 몽골텐트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이동용 작업장 또는 학습장이 될 수 있다.	74
사진7. 하제마을 전경1	95
사진8. 하제마을 전경2	97
사진9. 하제마을 프로그램 홍보 전경	99



##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그간 경기문화재단은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이어지는 개별행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해옴으로써 개별행사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의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한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수립과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고양시키는데 일조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행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지원체계의 수립과 집행은 한편으로는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방식이 개별행사에 대한 일회적인 지원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단체의 인적·재정적 자원 및 프로그램 등 총체적인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였음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1990년 초중반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내지는 문화예술창작촌이라는 자생적인 흐름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공립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순수예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활성화의 방안이라는 측면이 있다면,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경제와 문화향유, 문화예술인과 지역민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생적인 문화예술스튜디오나 창작촌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이 추구해오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자와 문화예술 향유자 모두에 대한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더해,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에 「문화예술촌 포럼」을 통해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외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의 의의와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경기문화재단의 향후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구체적인 노력들은 한편으로는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자의 선정과 지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단체 및 창작촌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성을 도출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9개 단체 중 창작스튜디오의 전형적 성격을 갖고 있는 4 곳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들 단체 및 창작촌들이 생존·진화·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타 창작촌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기대효과

- 1) 우선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이번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스튜디오 및 문화예술 창작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창작공간의 확보와 창작활동, 지역과의 밀접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또한 이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 및 창작촌과 더불어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모든 단체 및 창작촌에게도 비교체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체 및 창작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대상들에게 제시되는 컨설팅 내용들은 일반적 적용과 변용을 통해 다른 모든 단체나 창작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주체들이 서로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망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국의 문화예술창작촌 주체들과 문화행정, 문화기획, 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예술창작촌 활성화의 중요성과 의의 및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의 내용과 대상

### 1) 연구내용

#### 가. 창작촌의 개념과 유형 구분

- ▶ 국내외 문화예술창작공간 관련 개념 정리
- ▶ 국내 문화예술창작공간 유형 구분
  -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 창작촌의 비전과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 분류

#### 나. 창작촌 담론의 생성 배경과 전망의 조사 분석

- ▶ 창작촌 담론의 생성 배경
  - 예술제도적 관점
  - 예술생태계적 관점
  - 예술사회학적 관점
- ▶ 창작촌 전망의 정리

#### 다.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촌 분포와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 창작촌의 지역별 분포 조사
- ▶ 운영현황 분석

#### 라. 문화예술인 창작촌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 조사 분석

- ▶ 지원제도와 정책 조사
- ▶ 지원사업 조사
- ▶ 중점 연구대상별 지원제도와 정책, 사업의 연계 관계 파악

#### 마. 창작촌 유형별 모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 모델분석 : 비닐하우스AA, 아름다움만들기, 하제마을, 일산오픈스튜디오
  - 비전과 전망
  - 경영조직론 기법에 따른 현황분석(내재성, 외부성)
    - 내재성 분석 : 창작촌 전망, 공간 시설, 조직 및 인력, 재정,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 외부성 분석 : 중앙지방정부 문화정책, 지원시스템, 법제도, 사회문화환경, 지리적 환경 등
- ▶ 활성화방안
  - 창작촌 접근 관점에 따른 전망의 도출 및 재설정
  - 현황분석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 2) 연구대상

<200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창작촌 지원사업> 지원대상사업 중 창작촌 유형분석에 따라 구분된 창작촌 중 아래의 전형성을 띤 곳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비교분석 대상으로서 전국에 분포한 문화예술인 창작촌을 취사·선택하여 연구함.

범주	유형	창작촌명
문화예술 교육	예비작가 양성	비닐하우스AA, 국악한수
	문화예술 교양교육	현대도예문화원, 밀머리미술학교, 문화예술촌쟁이골, 웃는돌
작품창작	지역예술 창작	아름다움만들기, 창문아트센터, 우음도생태문화학교, 서종사람들
	사적작품의 질적 성장	안성문화마을, 왕곡천예술인마을, 양동미술연구소,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작업교류	국내외 예술인 교류	하제마을
	작업실 교류	일산오픈스튜디오

표 1. 연구대상의 범주와 유형 및 창작촌 명

## 4. 연구 조사 방법

### 1) 문헌연구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국내외 연구보고서, 정책자료집, 정책보고서, 문화예술 정기간행물과 비정기간행물, 인터넷 정보 등 다양한 문헌을 수집 분석함.

### 2) 전문가 간담회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에 대한 조사와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지원정책수립의 담론을 조성하고 있는 미술인회의의 <문화예술인 아틀리에 매핑 프로젝트>를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조정해 감.

### 3) 현장탐방조사 및 인터뷰

중점 연구대상별 현장을 방문하여 창작촌운영자, 입주작가, 초대작가, 지역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 조사를 위해서 이메일과 전화조사를 실시함. 인터뷰 조사는 아름다움만들기와 하제마을의 경우 1박2일간 현장참여관찰을 하면서 집중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비닐하우스AA와 일산오픈스튜디오는 현장을 방문하여 창작촌 운영자와 작가들과 함께 해당 창작촌의 전망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진행과정에서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창작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의 부재와 참조할만한 관련 연구의 부재, 그리고 컨설팅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불충분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미학과 예술학적 측면에서 창작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와 당위로부터 이를 개별 창작촌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직 운영 방식을 도출하였는데, 이 과정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 창작촌 운영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 조사와 현장답사를 토대로 연구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험적 교육적 연구 방식(R&E, Research & Education)을 취하였다. 연구의 어려움이 되었던 몇 가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록과 기술방법 : 현지조사기록은 연구자와 연구대상별로 다른데, 하계마을과 아름다움만 들기는 2일간 연속으로 거주하면서 술자리를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면서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고, 일산오픈스튜디오와 비닐하우스AA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참여 관찰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사는 대부분 부록으로 첨부한 설문조사지에 근거하기는 하였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조사의 내용과 기술방법이 창작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2) 창작촌 담론에 대한 관점 설정 : 창작촌 담론에 대해서는 크게 예술제도적, 예술사회학적, 예술생태계적 관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 보고서가 전체 창작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작업실로서의 창작스튜디오와는 조금 개념적 차이가 있는, 샬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는 창작촌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전 작업실 담론들을 망라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창작촌 담론에 대한 관점을 조야한 수준일지언정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무리한 시도를 했음을 밝혀둔다.

3) 재정연구분석 : 창작촌의 자생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있어 재정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창작공간들이 스스로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 연간 사업의 예산규모 정도를 추정 정리하는 정도에 그쳤다. 창작촌의 장기적 전망과 이에 따른 운영방식을 설계하려는 운영자들은 반드시 연간 예산에 대하여 사업에 따르는 시설 및 장비 운영비 외 인건비와 프로그램 진행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공간연구분석 :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공간운영자들이 자력으로 창작공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과제로 남겨진 것들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개조 및 조성에 대한 컨설팅은 공간 운영자들과의 인터뷰와 협의를 통해 전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고, 연구보고서는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 정리 기술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환경적 요소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로부터 비롯되는 '공간개조방안' 등의 세밀한 연구는 공간운영자들이 자발성에 의거하여 이후에 별도의 연구를 해나갈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컨설팅 결과물 :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 연구의뢰자, 그리고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스텝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여야 한다. 이번 연구의 마무리는 이러한 취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혀둔다.

## 제2장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개념과 종류

### 1. 창작촌의 개념

‘문화예술인 창작촌’이란 용어의 최초 사용은 2004년 8월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창작촌활성화지원사업>에서 시작된다. 1990년대<sup>1)</sup> 이후 공공기관에 의해 정책적으로 등장했던 유사한 개념으로는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1997년 <미술창작공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의 폐교를 임차 개조하여 우수한 젊은 미술가들에게 작품제작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대두된 ‘미술창작실’과 1998년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sup>2)</sup>을 수립하면서 등장한 ‘창작스튜디오’가 있다.<sup>3)</sup>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에 대한 민간의 개념은 보다 다양한데 주로 화가나 조각가의 일터로서의 ‘아틀리에atelier’와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더불어 취미 수준의 예술교육이 이루어져온 ‘공방’과 입시 예술교육이 이루어졌던 ‘화실(畫室)’ 등 개별 작업공간의 개념이 있었으며, 문학 출판인과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조성된 ‘헤이리아트벨리’나 미술작가들로 구성된 ‘하계마을’이 ‘예술인마을’로 불리며 1995년부터 파주에 자리 잡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인마을’에 대한 이보다 조금 더 이른 개념의 등장은 80년대 소위 ‘운동권’으로 불렸던 일련의 작가들이 1990년 초부터 안성을 터전으로 밀집된 주거공간을 형성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비교적 짙 작업실을 찾아 서울에서 가까운 근교인 양평의 서종면이나 일산의 구산동과 성석동을 중심으로 작가들이 모여들면서 창작과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해 언론이나 예술계에서는 ‘집단창작촌’이라고 지칭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계기와 운영방식,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작가들의 창작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혼재해오며 따라 창작공간에 대한 정책 역시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한 예술계 내에서도 정리된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4월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약칭, 새예술정책)’이 발표되면서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적 개념규정을 통해 민간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하는 다양한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 역시 대부분 ‘창작’ 그 자체보다는 예술인들의 ‘교류’에 중심을 두는 예술인 거주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PROGRAM’에 한정된 개념이었다.<sup>4)</sup>

1) 1990년대를 획기로 잡은 이유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문화운동으로 주체들의 전망의 이동과 이에 대한 사회의 암묵적 합의가 있는 이후, 비로소 본고에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현재의 문화예술인창작촌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또한 발현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오래된 사례로서 근대 이전 ‘재인청’, ‘공방’ 등 예술가집성촌에 대한 많은 자생적 사례와 공공지원정책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며, 본 연구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차후 과제로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2) 1999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이 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사용된 ‘창작스튜디오’는 문화관광부의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적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2002년 창동 2003년 고양에 이어 2004년 청주와 영천에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건립사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그 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마을’이나 ‘예술마을’, ‘문화촌’ 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는 ‘창작’보다는 지역관광이나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4) 창작공간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개념은 여전히 부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새예술정책’ 수립 이후인 2005년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제1조와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시설로서의 ‘창작공간’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ARTIST IN RESIDENC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씬스튜디오나 영은미술관

사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창작촌’의 개념 또한 예술인 거주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PROGRAM’을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문화관광부나 사설 민간 시설들에서 사용하는 ‘단기체류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공간’이라기 보다는 ‘창작과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주거공간 RESIDENCY’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는 창작촌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숙식을 하는 작가는 오고가며 주민들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인사라도 하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시선과 그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창작공간을 가꾸는 일과 자신의 생활공간을 만드는 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과 생활이 결합하게 되고, 예술적 취향과 표현력을 갖춘 작가로서 문화와 예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후기근대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적 맥락에서 예술인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마을이 어느 광역단체보다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경기도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문화예술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치경제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중심에 섰던 일련의 작가그룹을 중심으로 ‘지역운동’과 ‘문화운동’의 가치를 세우며 형성되었거나, 도시의 비싼 땅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정된 작업공간을 찾아 밀려난 작가들이 모였거나, 아니면 예술의 순수성과 지향성 사이에서 자신의 예술작업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였던 -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근거한 - 예술창작방식으로부터 자신과 스스로의 작업을 치유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선택한 작가들이 밀집하였던 간에 한때 산업화로 공동화현상이 빚어진 경기도의 농촌 마을들로 다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문화적 쾌적성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해방 이후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면서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농촌 폐교에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되면서 공동화되었던 마을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밀양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폐교 위에 세워진 ‘밀양연극촌’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여타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의 지역연계모델이 되었고, 특히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연계 문화예술활동을 벌이는 공간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 집계만으로도 12곳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화성시 수화동의 ‘창문아트센터’와 가평군 개곡리의 ‘아름다움만들기’는 지역연계 생활밀접형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의 문화적 발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창작촌’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흐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문화예술인창작촌활성화지원사업>의 목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로서 창작스튜디오가 아니라 미술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 폐공장, 창고, 농장, 농가, 콘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하여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촌을 발굴하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성된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조성되어가는 문화예술인 창작촌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과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림 1. 200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창작촌활성화지원사업’ 공고문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창작촌’ 개념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작업공간 확보’와 더불어 이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을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 창작촌은 ‘창작활성화와 지역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문화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밀집하여 주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별 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관련용어	정의
미국 <sup>5)</sup>	Artist Community Art Colony Art in Residency	일정한 기간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AAC기준)
독일	Res Artis	특별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 뿐 아니라 독립적인 단위체로서의 경영
대만	예술촌(藝術村)	각 나라의 문화적 교류와 대만문화의 체험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TAV기준)
한국	창작마을 미술스튜디오 예술인촌 아뜰리에 집단창작촌	·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작업 및 발표기회의 확대를 통해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과 주민의 예술체험 및 작품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 · 주변의 문화공간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킴(문화관광부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목적) ·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창작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함(문예진흥원 ‘미술창작실’ 조성목적) <sup>6)</sup>

표 2. <국가별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정의>

- \* AAC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
- \* Res Artis - 국제 창작실 프로그램 협회
- \* TAV - Taipei Artist Village

5) 영어에서는 규모나 유형에 따라 'Artist Community' , 'Art Colony', 'Art-in-Residence'라는 3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AAC(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가 정의하는 아트스튜디오는 '일정한 기간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 독일의 RES ARTISTS(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 and Networks, 국제창작실프로그램협회)의 아트 스튜디오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과 더불어 독립적인 단위체로서의 경영"도 의미한다.

6)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3쪽.

위 표에서 제시한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본 원고의 ‘문화예술인창작촌’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해외에서 사용하는 'ART'는 미술뿐 아니라 예술 전 영역에 걸쳐진 일반적 개념이고, 국내에서는 문화관광부나 문예진흥원에서 ‘미술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정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보고서 24쪽에서 다시 언급하듯이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각 지역의 지역성과 운영프로그램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미술창작스튜디오라는 명칭 외에 문화예술마을, 예술촌, 예술관, 창작실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각 미술창작스튜디오가 미술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 연극, 전통문화와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다른 것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더불어 해외 창작촌의 역사적 기록<sup>7)</sup>과 현재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르네상스시기 이탈리아에서는 보테가(도제들이 스승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공방)라는 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공방 역시 제도적인 창작공간이었다는 면에서 창작 스튜디오라 볼 수 있으며, 1666년 프랑스에서 루이 14세에 의해 문화예술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로마 대상(Prix de Rome)을 수상한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이탈리아 유학과 함께 5년간의 체류비를 수여한 것은 오늘날의 해외예술인거주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 Program)과 가장 유사한 국가 주도 예술인창작공간지원정책의 시초로 확인된다. 그리고 1880년 파리에 최초로 생긴 ‘집단 작업장’으로서 현재까지 30여 명의 작가가 작업하고 있는 13구의 작업실 ‘시떼 플뢰리(Cite Fleurie)’와 1902년 140여 개의 대형작업실로 출발한 작업실 ‘라 루쉬(La Ruche)는 근대적 개념의 창작 스튜디오의 본격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창작공간지원정책의 전통으로부터 1960년대 초 프랑스 정부에 의해 지원된 작업실은 다른 기업의 작업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으며 프랑스 정부는 매년 파리와 파리 근교, 각 지방별로 작업실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작가들을 위한 작업실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국립 작가촌’을 조성한다거나 작가전용의 대형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주거용 아파트 단지 내에 소수의 작가용 작업실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작가들은 정부로부터 임대작업실을 받거나 작업실 건축보조비를 받기도 하며 자생적으로 조성된 작업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이러한 작가 지원과 보호 정책은 여러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오늘날 창작 스튜디오 지원의 역사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다.

#### 비슷하게 미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 외국의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안정적인 창작여건의 제공보다는 문화교류와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창작의욕의 고취와 이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초빙된 외국의 작가들과 국내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발전적이라 볼 수 있다. 최근의 경향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교류에 방향을 두고 있다. 미국 창작실 연합(The Alliance of Artist' Communities)나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레스 아르

7) 씨족 중심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던 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자연발생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나라의 예인집성촌의 경우에는 조사의 어려움과 연구범위의 한계로 본고에서는 언급치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티스(RES ARTIST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 and Networks)가 대표적이다.

아시아의 사례들로서는 일본의 'AIR(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과 대만의 '타이페이 예술창작촌'이 있는데, 'AIR 프로그램'의 경우 1997년 일본 정부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 전 지역 중 10여 곳을 선정하여 3-5년간의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예술가 주도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문화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출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IR에서의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예술적 환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체류기간 동안 오픈 스튜디오나 작가토론 혹은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접촉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교류행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적 사고를 알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창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AIR프로그램은 미술관과 같은 일방적 교류가 아니라 쌍방향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AIR가 지역의 기본적인 콘텐츠 센터이며 지역의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AIR 프로그램은 자주 "예술촌"으로 규정되는데,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재활성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만의 타이페이 예술창작촌(Taipei Artists Village)은 1953년에 설립된 타이페이 시청을 개보수하여 1999년 겨울 1650만 평방미터건평에 개관된 4층 규모의 건물로서 타이페이 시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타이페이 예술창작촌은 미술, 문학, 음악, 영화, 비디오 사진, 공연예술과 복합장르 예술에 이르는 전 분야에 종사하는 전 세계의 첨단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예술가 주도의 공간 제공하고 있다. 타이페이 예술창작촌에 입주한 작가들은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재원은 타이페이 시 문화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은 두개의 정원이 있는 4층 건물에 10개의 스튜디오, 2 곳의 공동 휴게실, 세미나 공간이 있다. 아울러 기초적인 시설장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 2. 창작촌의 유형과 종류

### (1)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논문에서는 창작스튜디오의 종류에 대해 ‘기능별’, ‘설립 및 운영주체별’로 분류하면서, 기능별로는 ‘작업실’,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설’, ‘지역문화센터’,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설립 및 운영주체별로는 ‘국립’, ‘공립’, 그리고 ‘사립’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창작활성화와 지역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문화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밀집하여 주거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화예술인창작촌’을 분류함에 있어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국립 고양미술스튜디오나 사립 영은미술관 등의 설립운영주체에 있어 독특성을 가지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사례가 극히 적고, 위의 개념에 내포된 ‘자생력’이나 ‘지역기반’의 측면에 있어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창작촌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창작공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오히려 작가주거형/비주거형, 지역연계형/비연계형/생활밀접형, 무허가건축물형/허가건축물형, 그리고 임대활용형/위탁경영형/복합형으로 분류하는 게 자생적 문화예술인창작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할 뿐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먼저 작가 주거형과 비주거형을 분류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가들이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숙식을 포함한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는 창작촌의 성격과 기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일상적으로 결합하는 삶의 모델을 발견하는 데도 유용하다.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작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인사라도 하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시선과 그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일과 자신의 생활공간을 만드는 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과 생활이 통합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예술적 취향과 표현력을 갖춘 작가로서 문화와 예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삶을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 연계형과 비연계형, 그리고 생활밀접형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인구의 밀도를 통한 지역적 특성 구분이 되지 않고 주거의 근접성이 인간관계와 무관한 대도시라면 굳이 지역 연계형이나 비연계형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근접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문화가 형성되는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주로 마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육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교나 폐축사, 빈 창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땅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지역을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야기되는 근대사회가 황폐화시킨 지역의 기능을 문화와 예술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해 준다.

다음으로 건축물을 허가형/무허가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시설을 임대형/위탁형/소유형/복합형으로 구분해보는 것은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장기적 전망을 바라보는 일과 관련한다. 폐축사나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언제 철거될지 모르고, 시설물의 소유형태에 따라 임대나 소유 또는 위탁형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에 작가들의 예술적 활동이 철저히 종속되는 현실적 상황에서 창작공간의 장기적 전망을 갖는 데에 대한 작가들의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2004년과 2005년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한 경기도 각 지역 문화 예술창작공간과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촌포럼'과 <기전문화예술>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을 통해 조사된 문화예술창작공간에 관한 위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이다.<sup>8)</sup>

순번	지역	스튜디오명	소재	유형				비고
				주거	지역	허가여부	소유형태	
1	경기	왕곡천예술인마을	의왕시	주거	연계	무허가	임대	축사개조
2		문화예술촌 쟁이골	화성시	주거	비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3		안성문화마을	안성시	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스튜디오신축
4		비닐하우스 AA	고양시	비주거	비연계	무허가	무상임대	비닐하우스
5		양동미술연구소	양평군	비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6		국악한수	양평군	주거	연계	허가	임대	창고개조
7		아름다움만들기	가평군	주거	생활밀접	허가	임대	폐교활용
8		여주결은도지문화체험학교	여주군	주거	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9		현대도예문화원	가평군	주거	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10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화성시	주거	생활밀접	허가	임대	폐교활용
11		창문아트센터	화성시	주거	생활밀접	허가	임대	폐교활용
12		서종마을	양평군	주거	연계	허가	복합	개별창작실 밀집형
13		일산오픈스튜디오	고양시	주거	비연계	허가	복합	개별창작실 밀집형
14		하재마을	파주시	주거	비연계	허가	무상임대	스튜디오신축
15		웃는돌	안성시	주거	비연계	허가	위탁	스튜디오신축
16		밀머리미술학교	여주군	비주거	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17		목리창작촌	화성시	주거	연계	무허가	무상임대	컨테이너활용
18	경남	밀양연극촌	밀양시	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19		가인예술촌	밀양시	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20	부산	아트인오리	기장군	주거	비연계	허가	복합	개별창작실 밀집형
21	경북	지례예술촌	안동시	주거	비연계	허가	사유	古家활용
22		해오름예술촌	남해시	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23	전남	월선리예술촌	무안군	주거	생활밀접	허가	복합	개별창작실 밀집형
24		달오름미술관	영암군	주거	생활밀접	허가	임대	폐교활용
25	전북	오궁리미술촌	임실군	주거	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26		하늘내 들꽃마을	장수군	주거	생활밀접	허가	법인소유	폐교활용
27	강원	모두골	원주시	비주거	생활밀접	허가	위탁	창고활용
28		제비리미술인촌	강릉시	주거	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29		무이예술관	평창군	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30		감자꽃스튜디오	평창군	비주거	연계	허가	위탁	폐교활용
31	충북	자계예술창작촌	영동군	주거	연계	허가	임대	폐교활용
32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북제주	주거	연계	허가	복합	개별창작실 밀집형

표 3.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분류

8) 이 표에 포함된 창작촌 중 연구자의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고 문헌정보에 의존하여 분석된 일부 창작촌의 경우에는 다소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만 전국 각지에 위치한 창작촌의 현황이 이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분석될 수 있음을 시도해봄으로써 이 분류체계가 경기도 지역 창작촌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두려 한다.

(2) 창작촌의 비전과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 분류

창작촌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위에서 분석한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가 예술창작행위를 둘러싼 외부적 관계에 근거하는 창작촌의 물리적 존재방식에 대한 구분만으로는 다양한 창작촌의 활성화 방향이나 창작주체들의 작가로서의 성장을 지지하는 공적지원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창작촌의 물리적 존재방식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성과주의적 정책지원의 근거로서는 적절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운동하며 추상의 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실을 확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감성적 영역의 생산활동으로서의 예술가의 작품활동을,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건강한 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작촌의 지향을 알려주는 내재성, 즉 ‘작가들이 가진 꿈’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읽음으로써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는 정량적 분류의 한계를 넘어 예술이라는 감성의 생산활동에 대한 정성적 분류를 시도해보는 것 또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이번 연구로서는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런데 공간의 내재성에 대한 분류에 있어 ‘작가들의 꿈’과 ‘프로그램의 성격’은 엄밀히 구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작가들의 바람은 곧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성격이 곧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작가들이 가진 꿈’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괴리되고 있는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괴리가 클수록 작가들은 창작촌에서의 자기 성장을 피하기 어렵고, 이러한 공간을 찾은 방문객 또한 감성적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소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무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작가들의 꿈’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밝힌 후 상호간의 관계를 ‘불일치/절충/일치’로 창작공간의 정성적 유형구분을 해보고자 한다.

창작촌에 입주 또는 창작촌을 운영하는 ‘작가들의 꿈’과 ‘프로그램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들의 공통적 전제는 창작촌의 물리적 존재조건과 마찬가지로 작가들이 주거하는 공간임을 기본 요소로 한다.

범주	유형	내용
문화예술 교육	a.예비작가 양성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 지망생을 위한 전문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발표회 개최
	b.문화예술 교양교육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또는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체험 또는 향수프로그램 운영
작품창작	c.지역예술 창작	‘지역’이라는 ‘장소’를 창작활동의 캔버스 또는 무대로 삼아 전통적 시공간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창작으로서의 지역예술 활동 <sup>9)</sup>
	d.사적작품의 질적 성장	작가로서의 작품수준의 향상과 간섭 없는 자극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내밀한 사적공간으로 활용
작업교류	e.국내외 예술인 교류	국내외 문화예술인이 창작촌을 기반으로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작업이나 워크숍 등을 통한 예술교류활동 전개
	f.작업실 교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작업실이 프로그램, 인력, 시설 면에서 연계하여 개최하는 강좌, 워크숍, 축제,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해 상호 상승 관계를 도모하는 문화예술활동

표 4. 창작촌의 역할 범주와 유형 및 사업내용

9) ‘지역예술’은 현재 대부분 예술적 소재와 주체의 주거지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예술은 주제,

이러한 분석들에 근거하여 창작촌들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조건에 대한 유형구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헌정보에 의해 분석된 몇몇 창작촌의 경우 정치한 분석이 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순번	지역	스튜디오명	유형			비고
			A.작가들의 꿈	B.프로그램 성격	A/B의 상관성	
1	경기	왕곡천예술인마을	d	b	불일치	
2		문화예술촌 쟁이골	b	b	일치	
3		안성문화마을	d	b	불일치	
4		비닐하우스 AA	a	a	일치	
5		양동미술연구소	d	b	불일치	
6		국악한수	a	a	일치	
7		아름다움만들기	c	b, c	절충	
8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d	b	불일치	
9		현대도예문화원	b	b	일치	
10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c	b	불일치	
11		창문아트센터	c,d	b,c,d	절충	
12		서종사람들	c,d,e,f	c,d,e,f	일치	
13		일산오픈스튜디오	d,f	b,d,f	절충	
14		하재마을	d,e	d,e	일치	
15		웃는돌	e	b	불일치	
16		밀머리미술학교	b	b	일치	
17		목리창작촌	d	d	일치	
18	경남	밀양연극촌	a,b,d	a,b,d	일치	
19		가인예술촌	d,e	b	불일치	
20	부산	아트인오리	c,d,e,f	b,d,e,f	절충	
21	경북	지례예술촌	e	b,d,e	절충	
22		해오름예술촌	b	b	일치	
23	전남	월선리예술촌	b,c,d,e,f	b,c,d,e,f	일치	
24		달오름미술관	b,c,d,e	b,c,d,e	일치	
25	전북	오궁리미술촌	b,c,d,e	b,c,d,e	일치	
26		하늘내 들꽃마을	b,c	b,c	일치	
27	강원	모두골	b,c,e,f	b,c,f	절충	
28		제비리미술인촌	b,d	b,d	일치	10)
29		무이예술관	b,d	b,d	일치	
30		감자꽃스튜디오	b	b	일치	
31	충북	자계예술창작촌	d	b	불일치	
32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d	b,d	절충	

표 5. 창작촌의 비전과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 분류

소재를 비롯한 창작방식과 창작범위를 비롯한 표현양식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새로움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대지예술작가 크리스토의 캔버스는 ‘자연’이었고, 미디어예술가 백남준의 캔버스는 ‘텔레비전’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작업방식은 기존의 창작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정된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 민들을 창작의 주제로 성장시키고, 몇 년에 걸친 장시간에 걸쳐 장소로서의 지역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예술로서의 ‘지역예술’을 상정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작품활동의 연출가로서의 작가의 위치가 새롭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

10) 작가들의 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작가들이 주요하게 생각하

### 3. 유형별 연구 모델 선정과 기준

본 연구서는 앞서 표(3)과 (4)에서 창작촌의 유형분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때 유형분류의 기준은 크게 2가지로서 첫 번째 기준은 작가주거/지역연계/허가여부/소유형태에 따른 유형분류였고, 두 번째 기준은 비전(목표)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아래의 표 (6)과 같이 재구성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창작촌의 분류는 총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표 (4)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아래의 표 (7)과 같이 6개의 형태로 분류된다. 이번 연구서에서 모델선정의 기준은 후자에 해당하는 비전에 따른 유형분류를 반영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의 분류인 주거/허가/지역/소유 형태별 유형분류는 앞서 밝혔듯이 성과적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성적 영역에 있는 문화예술의 유형기준으로서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으며 창작공간의 자생성과 지속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의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제기하려는 이번 연구의 목적에 비취했을 때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여부	허가여부	지역관계	소유형태	창작촌명	분류
주거	허가	연계	임대	국악한수, <b>현대도예문화원</b> ,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1
			위탁	안성문화마을, 웃는돌	2
			소유	<b>고양일산스튜디오(복합)</b> , 서종사람들(복합)	3
		비연계	임대	<b>문화예술촌쟁이골</b> , 하제마을	4
			위탁		
			소유		
	생활밀접	임대	<b>아름다움만들기</b> , 우음도생태문화학교, <b>창문아트센터</b>	5	
		위탁			
		소유			
	무허가	연계	임대	목리창작촌	6
			위탁		
			소유		
		비연계	임대	<b>왕곡천예술인마을</b>	7
			위탁		
			소유		
생활밀접	임대				
	위탁				
	소유				
비주거	허가	연계	임대	밀머리미술학교	8
			위탁	양동미술연구소	9
			소유		
		비연계	임대		
			위탁		
			소유		
	생활밀접	임대			
		위탁			
		소유			
	무허가	연계	임대		
			위탁		
			소유		
		비연계	임대	<b>비닐하우스AA</b>	10
			위탁		
			소유		
생활밀접	임대				
	위탁				
	소유				

표 6. 주거/허가/지역/소유 형태별 유형분류

는 프로그램의 목표로부터 하나의 유형을 정하여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범주	유형	창작촌명
문화예술 교육	예비작가 양성	비닐하우스AA, 국악한수
	문화예술 교양교육	현대도예문화원, 밀머리미술학교, 문화예술촌쟁이골, 웃는돌
작품창작	지역예술 창작	아름다움만들기, 창문아트센터, 우음도생태문화학교, 서종사람들
	사적작품의 질적 성장	안성문화마을, 왕곡천예술인마을, 양동미술연구소,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작업교류	국내외 예술인 교류	하제마을
	작업실 교류	일산오픈스튜디오

표 7. 비전 및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분류

다시 말해 창작촌에 참여하는 작가의 꿈과 이 꿈이 반영된 프로그램에 따른 유형분류가 이번 연구의 목적에 더욱 근접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술인들의 자발적 실천을 동기화 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전에 따른 6개 유형 분류 중 이번 연구의 모델이 되는 4개 창작촌의 선정은 6개의 유형 중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적 지원공간으로서의 창작시설에 해당되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과 ‘사적작품의 질적 성장’을 공간의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우선 배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유형 중 각각의 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공간, 즉 전형성(Typical Type)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본 연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분류가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창작촌을 명쾌하게 분류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1)</sup> 사실 존재하는 모든 창작촌을 세밀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세밀한 기준에 의한 분류는 그 분류형태를 너무 많이 산출함으로써 현실을 간결하게 파악하기 위한 분류목적에 배치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 모델로 선정하려는 4개의 창작촌은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인 상(像)으로서의 아이디얼 타입(Ideal Type)이 아니라 분류형태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형적인 성격(Typical Type)을 드러내는 창작촌을 선정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를 밝히는 이유는 유형분류에 따른 선정과정에서 제시된 4개의 창작촌이 이상적인 모델로서 모든 창작촌이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야 함을 본 연구서가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2005년 경기문화재단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총 9개의 지원단체 중 연구모델이 되는 4개의 창작촌을 제외한 5개의 창작촌은 간단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기술하여 부록에 명시하였다.

11) 예를 들어 표 (6)에서 제시한 분류에서 밀머리미술학교와 양동미술연구소, 비닐하우스AA같은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본 연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작촌 개념의 레지던스라는 개념에 위배되며, 또한 양동미술연구소, 문화예술촌쟁이골,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표 (7)에서 제시한 창작촌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장 창작촌 담론의 생성 배경과 전망

#### 1. 창작촌 담론의 생성배경

##### (1) 예술제도적 관점.

###### 1) 왜 예술제도적 관점인가

창작촌 개념을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 곧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공간이나 건축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자리한다. 물론 느슨한 의미에서의 창작촌은 창작 여건이 비슷한 작가들이 함께 모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작가 공동체나 그 공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지시적인 의미에서만 창작촌 개념이 논의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담론으로서의 창작촌 개념은 특정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창작촌 개념이 제기되고 요청되는 맥락에 대한 검토와 창작촌 개념의 구체적인 기능과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한 관점이 현실적인 접근이나 전망의 도출에 있어 유용한 측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제도론은 이러한 접근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른바 창작촌을 예술제도의 한 형태로 사유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내에서의 창작촌에 대한 본격적인 정의는 쉽게 발견되지 않지만 유사용어로 사용되는 예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창작 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의미한다. 공간상의 접근이긴 하지만 이러한 창작스튜디오가 개별 작가들의 공간이 아닌 집단적으로 조직된 공간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실 창작스튜디오나 창작촌 개념 공히 개별 예술가들의 존립의 한계라는 맥락에서 제시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개념에 따라붙는 사회적인 측면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보다는 공동작업실 개념이 도입되면서 작가들의 상호의견 교환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원체계라는 면에서 정책개념과 연관되고 이는 제도로서의 예술을 접근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가 창작촌을 예술제도론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살펴보고자 하자.

제도(Institution) 개념이 다소 포괄적인 것도 사실이다. 넓게 본다면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 혹은 집단행동의 조직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 내용이나 조직적 패턴은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습속(習俗)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제도·경제제도·교육제도·가족제도·종교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도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들과 무관하지 않다. 여하튼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긴 하지만, 방향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안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제도가 요청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를 위반하거나 제도에서 벗어난 행동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制裁)나 비난·중상이 가해진다. 결국 제도는 사

회질서의 유지를 그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측면 역시 자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저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보수성의 빛깔을 띠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제도 개념은 특정한 대상을 진흥하기 위한 조직이나 기관, 공공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을 가진 혹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건축물과도 같은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제도라는 단어가 협회, 회사, 협동조합, 자문기관, 재단, 기관, 단체, 조합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간적이며 동시에 조직적인 단체나 기관, 협회 등을 지칭하는 개념인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활동과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의 활동을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한다. 곧 지원을 하기도 하고 간섭이나 규제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제도는 두 개의 카테고리, 공적이고 보수적인 제도들과 대안적이고 급진적인 제도들을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이유로 통상 제도에 대한 논의는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판적 대상이 되어 왔거나 개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틀로 요청되어 왔다.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제도가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제기된다. 지배적인 제도는 그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그룹들로 하여금 대안적인 제도를 만들게 한다. 그 일부는 안티 제도로 불린다. 제도라는 단어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실 과격한 제도나 파괴적인 제도라는 말에 제도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모순되어 보인다. 안티 제도도 역설적인데 그 안티 제도 역시 여전히 제도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제도를 행동의 유형이나 질서를 지지하고 유지시켜주는 일상적 재생산 절차를 통해 제도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일종의 안정된 재생산 과정이라는 것이다. 제도화는 하나의 질서라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상태, 즉 사회적 엔트로피와는 구분된다. 제도화에 따라붙는 보수적인 뉘앙스의 실체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정한 가치평가를 떠나 말한다면, 제도는 주로 사회적 재생산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유형이 제도화된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재생산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 설계에 의해서 규정된 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관습(습관)으로부터의 이탈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미술에 있어 제도 개념도 예술을 비예술과 구분케 하는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뒤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은 제도로서의 예술에 대한 가장 유명한 문제제기이다. 예술을 둘러싼 제반 현실적인 여러 기관들, 공간들이 예술을 비예술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개념이 현실에서의 예술 개념에 대한 보수적인 의미생산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새롭고 급진적인 예술 개념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 국가, 조직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제도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이 대안적인 의미의 제도 개념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문화 예술생산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후원을 하는 제도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예술과 비예술을 가르는 권력행사 이상으로 문화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과 자원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생산적이다. 물론 언제나 생산적이지만

은 않다.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만큼의 간섭과 통제 역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지원과 정책의 관점에서 예술제도론이 또 다른 위상을 가져나가게 됐다. 마이클 필립슨에 따르면 “예술은 제도적 기구의 요구에 따라 관리되고 조정된다. 제도적 기구는 그것의 지식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가공하고 변형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실천들을 안정하게 준비할 수 있다.” 결국 예술제도는 현실의 예술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실체이자 관계라 할 수 있고, 실제 예술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실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자생적인 발전의 동력을 스스로 갖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예술제도론의 관점이 유용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스스로 자립적인 활동을 영위케 하도록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틀로서 예술 제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재생산의 심급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 가치비판의 측면을 떠나 제도가 갖는 현실적인 함의들, 사회의 제반 구조를 재생산하고 작동케 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 하다. 사회의 제반활동을 유지존속 시키는 재생산의 장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 2) 예술제도론으로 창작촌을 사고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

창작촌 개념을 예술제도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 창작촌을 예술제도의 일부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제도는 예술에 영향을 주고, 권력 관계를 행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적, 조직적 장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창작촌 개념 역시 예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적, 조직적 장치라는 면에서 예술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술 제도는 넓게 보자면 매우 다양하다. 이른바 예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교육 제도, 전시 공간, 각종 기금, 협회, 단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들 공간이나 영역을 예술제도로 사고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과 국면 속에서 이들 제도들이 각각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술(활동)의 전개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창작촌의 경우에 있어서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창작촌을 예술제도의 하나로서 보는 것 못지않게 예술제도적 관점에서 창작촌을 봤을 때 어떠한 현실적인 함의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창작촌을 예술제도로 규정한다는 것은 좀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창작촌이 현실의 예술진흥과 창작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제도로서의 창작촌은 예술의 사회적 재생산의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별 예술의 발전을 추동시킬 수 있는 개념적 토대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예술제도는 ‘문화공간’의 개념이 ‘수용자 중심’이어서 ‘전시’, ‘공연’ 등 수용자를 직접 만나는 향유의 공간만을 제도 내에서 수용함으로써, 실제 그러한 공간을 작동시키는 콘텐츠인 작품이 생산되고 있는 ‘작업장’이 갖는 의의를 상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제도론으로 창작촌을 사고한다는 것은 제도의 생산적인 측면, 예술 정책과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창작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창작촌을 예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이자 그 자체로 예술문화의 진흥이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제도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예술제도와와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통해 현실의 예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창작촌이라는 제도 자체도 개별 예술가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화는 개인행위자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제도화의 논리는 개별적인 예술행위자의 생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예술창작의 논리와 상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재생산의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결국 창작촌은 예술의 발전을 위해 개별 예술가의 자발적인 활동과 다른 맥락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진흥하고 도움을 주려는 일련의 체제, 곧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촌 개념에 따라붙는 창의적 예술활동의 진흥과 지원이라는 단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라는 설정을 강화시키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창작촌 개념이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창작여건의 제공 이상으로 문화교류와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창작의욕의 고취와 이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든가 문화산업과의 연계, 전문 예술 영역으로 특화된 방향설정, 교육기관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창작촌 역할의 확대 역시 제도로서의 창작촌의 성격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창작촌을 하나의 예술제도로 본다는 것은 예술을 사회적 생산으로 보려는 시각과 얼마간 관계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창작촌은 예술가로 하여금 경제적 경비를 절감하게 하고 작업실을 확보하게 하며, 작가의 교류와 유대를 통한 상호 협조를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업 활동을 진작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특히 창작환경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창작활동의 기본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작촌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이 되는 부분이며 창작촌 개념의 태동과 활성화에 기여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창작촌을 예술제도로 본다는 것은 예술 개념을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보려한 논리이기도 하고, 예술의 실제적인 효과나 현실적인 여러 장치, 그 메커니즘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예술에 대한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제도론의 논의가 갖는 보수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술의 진흥이나 발전에 대한 다분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 (2) 문화생태계적 관점

### 1) 문화생태계적 방법

생태학이 정립한 방법들, 원리들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문화를 볼 수 있을까? 물리학, 화학 환원주의나 기계론처럼 복잡한 세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여러 차원의 연구가 있었고, 움베르토 마투라나를 비롯한 구성주의 흐름에서 또는 인지과학의 여러 흐름에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여 왔다. 생태학과 시스템적 사고가 우리에게주는 하나의 사실은 그것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가 생명, 삶, 살림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고 그것은 정치, 교육, 문화 체계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세계와 생명과 마음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무모한 상상력과 기획은 생태계의 파괴를 낳고, 문화의 황폐화를 낳는다. 현재의 문화, 예술의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이다. 문화생태계적 방법을 서술하는 데 있어, 폭넓은 생태학의 역사 중에서 시스템 이론의 근간이 되는 생태학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려고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생태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에 더더욱 과학과 문화,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소양을 가진다는 말은 생태적 공동체의 조직원리를 이해하고, 유지가능한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들을-교육공동체, 기업공동체, 정치공동체 등-을 소생시켜서 생태학의 원리가 교육, 경영, 정치의 기본원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2)</sup> 이러한 생태적 원리를 통해서 보면 문화를 들여다 보는 방법이 문화생태계적 방법이다. 그러기에 문화생태계적 방법은 생태학의 기본 원리와 문화의 특성을 결합시킨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학의 기본 원리인 공진화, 상호의존성, 재생, 협력, 유연성, 다양성<sup>13)</sup> 등을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의 여러 패턴을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이고 주체 양식을 분석하는 일이다.

생태계내의 시스템 및 개체는 상호의존적이다. 생태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거대하고 복잡한 관계들의 연결망, 즉, 생명의 그물 속에 상호연결되어 있다.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특성, 실제로는 그 본질 자체를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획득한다. 상호의존성은-생명 과정들 상호간의 의존성-모든 생태적 관계의 본질이다. 생태계에 포함되는 모든 생물 구성원들의 행동은 수많은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에 의존한다. 전체 공동체의 성공은 그 개별 구성원들의 성공에 의존하며, 개별 구성원들의 성공은 공동체 전체의 성공에 의존한다.

생태계는 스스로 재생된다. 생태계의 되먹임 순환은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경로이다. 열린 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속의 모든 생물은 폐기물을 생산한다. 한 종에게 폐기물인 것은 다른 종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명백한데, 기업은 자원을 채굴하여 상품과 폐기물로 전환시키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들을 만들어 낸다. 생산과 소비의 유지가능한 패턴은 자연의 과정을 모방하는 순환적 패턴을 요구한다. 이러한 순환적인 패턴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과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인간 문화에 적용하자면 학습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창조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행위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무형식 학습(학습 조직, 경험 학습, 방법지에 대한 학습)을 일으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의 작업 과정이 열리면 그 과정에서 무형식 학습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은 기존의 도제 교육 시스템을 없애고, 새로운 열린 예술 교육 시스템을 만들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에서 성장한 학생, 그러한 암묵적 지식을 습득한 지역 주민은 긍정적 행위를 하게 하고 창작품을 구입하거나 지역에서 창조적 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의 작업조건 또한 상승하게 된다.

유지가능한 공동체의 특성에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협력(partnership)이다. 20억 년 전 최초의 진핵 세포가 탄생한 이래 지구상의 생물은 끊임없이 복잡한 협동과 공진화의 배열을 진행시켜 왔음을 살펴보았다. 협력이야말로-서로 내부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연결을 이루고 협동하려는 경향-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보증인 것이다. 문화적인 공동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예술가 커뮤니티의 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은 이러한 협력의 덕목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예술이 독창성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창적인 과정은 다양한 협력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생명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이다. 그 커뮤니티가 유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일들을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협력이다. 협력에는 상호간의 규칙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신뢰를 여기는 행위는 협력의

12) 생명의 그물, 프리츠프 카프라, 김용정 김동광 옮김, 범양사, 1998, p.389

13) 생명의 그물, 프리츠프 카프라, 김용정 김동광 옮김, 범양사, 1998, p.390~398

물을 깨뜨리게 된다. 극단적인 생존의 상황이 아님에도 인간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수에 의한 지배를 만들려는 것이고, 그러한 황량한 생태계에서는 커뮤니티는 파괴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생태계의 유연성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복수의 피드백 루프들로 가능해진다. 이상기온으로 더운 여름은 호수의 조류의 증가를 불러오고, 이들 조류를 먹이로 삼는 일부 어류가 번성하게 만든다. 그 결과 늘어난 물고기들이 조류를 고갈시킨다. 주 먹이원이 줄어들면, 조류를 먹고사는 물고기도 죽게 된다. 그 물고기의 개체군이 줄어들면 조류는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늘기 시작한다.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교란이 피드백 루프를 통해 다른 교란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결국 물고기/조류의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문제해결 과정과 비슷한다. 예술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예술가들은 다양한 전략과 선택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사진과 영화가 나왔을 때 미술이 선택해던 다양한 길을 돌아보면 이해가능하다.

생태계의 다양성은 그 시스템의 연결망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양한 생태계는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가 중첩되는 생태적 기능을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서로를 대체하는 수많은 종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생물종이 심각한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그래서 그 연결망의 한 사이클이 끊어졌을 때에도 다양성을 가진 생태계는 살아남아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다...인간 공동체의 경우, 윤리적 문화적 차이도 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성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관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수많은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는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이다. 하나의 예술 커뮤니티 또는 창작촌에 단수의 경향의 예술가만이 존재한다면 그 시스템은 풍족해질 수 없다. 다양성 개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어떤 보편적이고 특수한 예술의 실천에서 다양한 것들이 생성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예술가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하지 않은 예술이기에 무가치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성급한 행위가 다양성을 막고, 커뮤니티에서 협력이 생성될 수 없게 한다.

## 2) 문화생태계의 수준 - 자생성과 건강성

문화생태계적 틀로 창작촌과 그 주변 환경을 보는 방법의 장점은 발생, 성장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생명체, 어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내재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재적인 자원, 지원, 협력이 내재적인 특성과 잘 결합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는 “시스템적 사고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특징은 우리의 주의를 시스템 수준들 앞뒤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 시스템 전체에서 우리는 다른 시스템들 속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 수준들에 동일한 개념들을 적용시킴으로써-예를들어 스트레스라는 동일한 개념을 생물, 도시 또는 생태계 등에 적용시킴으로써-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수준들이 서로 다른 복잡성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수준에서 관찰된 현상들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성들을 나타낸다. 특정 수준의 시스템적 특성들은 창발적 특성이라고 불리는데, 그 까닭은 그 특성들이 그 특정한 수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4)</sup> 여기서 말하는 창발성을 창작촌의 자생성과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14) 생명의 그물, 프리초프 카프라, 김용정 김동광 옮김, 범양사, 1998, p.59

와 범위를 갖고 있는 창작촌이 갖고 있는 창발적 특성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창발적 특성을 가진 생태계(또는 문화생태계)의 시스템 또는 커뮤니티 중에서 생태학적 요소를 만족시키면서 자기 방향성을 갖는 예술 커뮤니티나 문화생태계는 자생성과 건강성을 갖는다. 자생성은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전략을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건강성은 그러한 자생성 덕분에 주변의 문화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성의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생태계에 적용된다면 너무도 주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생태계의 건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급 자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생태계의 건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시스템 생태계, 하나의 문화 공동체, 하나의 창작 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약을 잘못쓰면 독이 되듯, 자칫 설부른 지원은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지원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협화음, 의견불일치, 상호이익에 대한 불일치 등이 더 큰 반목과 깊은 골을 낼 수 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주체가 생성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3) 문화생태계적 방법의 효과

생태학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 평형과 안정으로 생태학을 구축하는 길도 있고 경쟁과 교란에 초점을 두고 생태학을 구축하는 길도 있다. 후자는 도널드 워스터가 “역사주의의 원리들로 무장한 우리는 회의론과 자립의 의미로 교란을 극화하는 최근의 생태 모델을 다룰 수 있다. 이들이 세계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지구를 재배열하는 힘과 아주 조화를 이룬다. 경쟁과 교란에 중점을 두는 최신 생태학은 프레데릭 제임슨의 후기 자본주의의 논리와 일치<sup>15)</sup>”한다고 한 그런 최신 생태학이다. 앞에서 제시한 생태학은 전자의 원리, 협력과 공진화의 원리에 기반을 둔 생태학에 기반하여 문화생태계를 보는 방법이고, “현대의 역사적 사상 앞에 나타난 민중의 세계관에 다시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 현대주의의 통렬한 비판자인 에드워드 골드스미스”의 주장을 좀더 따르는 생태학이 것이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생태계를 보는 관점이 문화에 접목되었을 때 아주 다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문화생태계적 관점이 정책에 적용되었을 때, 환경보전주의가 보수적인 경향으로 작용하면 무조건적인 보존과 금지를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현재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변화와 변동의 흐름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화시켜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성이란 개념도 특정한 가치 지향성을 강화시켜주지 않는 무모한 평등은 예술계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쩌면 정책과 현장의 관계도, 창작촌과 창작 환경의 관계, 교육에서는 학습자와 환경자체가 변화하는 변증법적 관계<sup>16)</sup>처럼 공진화를 통해서 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에 정책기관, 지원기관은 하나의 창작촌과의 관계에서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체 문화생태계 시스템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화생태계가 황량하고, 자생성이 없고, 자기 존재의 정당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책 기관의 철학과 실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15) 생태학-그 닫힘과 열림의 역사, 도널드 워스터, 문순홍 강헌 옮김, 아카넷, 2002, p.529

16)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한승희, 학지사, 2001, p.29~30



#### 4) 창작촌에 문화생태계 방법의 적용

경기도 지역의 창작촌의 좋은 사례를 스스로 성장하고, 주변과 관계하면서 진화하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창작촌이 발전하면서 파생하는 모든 조건들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로 자생성의 관점을 두고 공진화, 상호의존성, 재생, 협력, 유연성, 다양성의 원리로 창작촌의 환경을 이루는 공간, 지역, 지자체, 교통, 주민, 재정, 정책, 인적자원 등을 바라본다. 두 번째로 건강성의 관점을 두고, 하버마스의 이야기대로 근대성이 이루어질 수록 생활세계 식민지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예술가들의 존재 방식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는 창작촌이 건강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전제조건을 가져야 되는 가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문화예술생태계를 세가지 차원으로 바라본다. 첫번째로 예술가, 관련 기관, 예술제도 들의 관계를 보는 전제에는 예술대상을 놓고 창작자-향유자, 창작촌-미술관의 구분이 아니라 예술과 연관된 다양한 관계를 보는 접근을 갖는다. 그래서 작품, 전시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pattern'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로 예술의 창작 원천 조직으로서 창작, 비평, 유통, 감상이 하나의 사이클로 통합되는 예술문화망(art culture web)을 예술생태계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서 연구를 한다. 세 번째로 지역예술공동체로서 창작촌과 주변 세계, 창작촌과 지역 주민을 공진화 개념 및 협력 개념을 통해서 창작촌과 주변의 관계가 서로 발전하는 관계를 바라본다. 즉 창작촌은 아프리에가 가지는 경제적으로 개인에 기초한 경제 구조의 설계와 다른, 창작 과정은 폐쇄적 과정이 아니라 창작 과정은 한 예술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생태계(예술사,문화사,역사..), 국가, 지역 등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 (3) 예술사회학적 관점

창작촌을 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창작촌의 발생과 맥락, 사회적 기능, 영향 등과 관련된 제반의 현상들을 '사회적 사실'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사회학은 '예술'을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적 현상으로서 분석하는데, 이는 예술가, 예술작품, 창작행위 등을 예술가 개인에게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작촌을 사고하는데 있어서 예술사회학적 관점을 도입한다는 것은 창작촌의 의미를 사회와의 관계 하에서 살펴봄을 의미한다.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중 창작촌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예술사회학은 근대의 낭만적, 초월적 예술가관이 초역사적,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 속에서 생겨난 역사적인, 따라서 우연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낭만주의시대 이래 자본주의적 시장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과정 내에서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대해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꼈으며, 후원자의 변화라는 사회변화가 예술가를 사회의 주변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고독한 창조자의 이미지가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촌과 관련해서는 작금에 이르러 왜 예술가들이 창작촌, 창작마을, 창작스튜디오 등 그 명칭이 어떠한 집단화 경향을 나타내는지, 작업공간의 지역(주변)화 경향에 대한 객관적 현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낭만주의 시대적 예술가관보다는 예술사회학적 관점이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미학적 관점으로는 창작촌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들 중, 창작행

위와 비창작행위를 위계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창작촌 운영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창작 외적인 행위를 부수적인 행위, 또는 부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게 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창작행위와 더불어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가집단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활동을 사회와의 관계 하에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위의 서술과 관련하여 작가와 수용자의 접점이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작가와 수용자는 더 이상 작품으로만 관계를 맺지 않고 기존 예술계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접점들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술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예술계와 그 예술계에 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와 더불어 작가와 수용자가 만나는 접점들을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창작촌을 운영하고 있는 대개의 단체들은 한편으로 기존의 예술계와의 접점뿐만 아니라, 지역민과의 관계(예술적/비예술적 관계)를 확대/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왔으며, 입주작가들의 창작행위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소통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들은 기존의 미학관이나 예술관에서 보이는 작가관, 창작관을 넘어서는 형태로서 예술사회학적 관점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학적 관점에서 창작촌을 바라보면, 창작과 전시(또는 공연)공간, 창작과 주거공간의 분리라는 현대 예술의 지배적인 형태에서의 변화들을 읽어볼 수 있다. 근대 예술이 주거와 창작공간의 명백한 분리 및 창작공간과 전시(공연)공간의 명확한 분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면, 현재 창작촌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대개의 공간들은 이러한 명확한 분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창작/주거/전시(공연) 공간의 명확한 분리가 예술적 권위와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창작과 일상의 분리, 창작과 전시의 분리, 예술가와 대중의 분리를 통해 결국은 예술을 대중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매개, 소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창작촌을 사고하게끔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창작촌들은 일상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지역민들과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창작촌을 사고한다. 주로 지역의 폐교나 빈가옥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한 공간 안에 주거공간과 창작공간, 전시공간, 교육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이나 이들을 찾아오는 일반 대중들이 예술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을 특정인들만 창작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만들어보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난다.

넷째, 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창작촌을 살펴본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창작촌이 출현하는 맥락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문화영역과의 관계, 위치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창작촌이 가지는 문화예술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정한 문화의 출현은 기존의 사회구조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역사적 흐름을 맥락으로 하여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창작촌 역시 한국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출현하였기에 창작촌이 출현하게 되는 맥락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개 창작촌들이 생존·진화·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적 행위들이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게 되고 나름의 공간을 확보해 특정한 단어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게 되는 과정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이미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행위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특성이 분명해지고 일정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고 할 때, 창작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영역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창작촌의 외적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대중문화와 민중문화, 고급문화와의 관계를 통해 창작촌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파악은 창작촌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지만, 개개 창작촌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모델이 인접한 다른 문화영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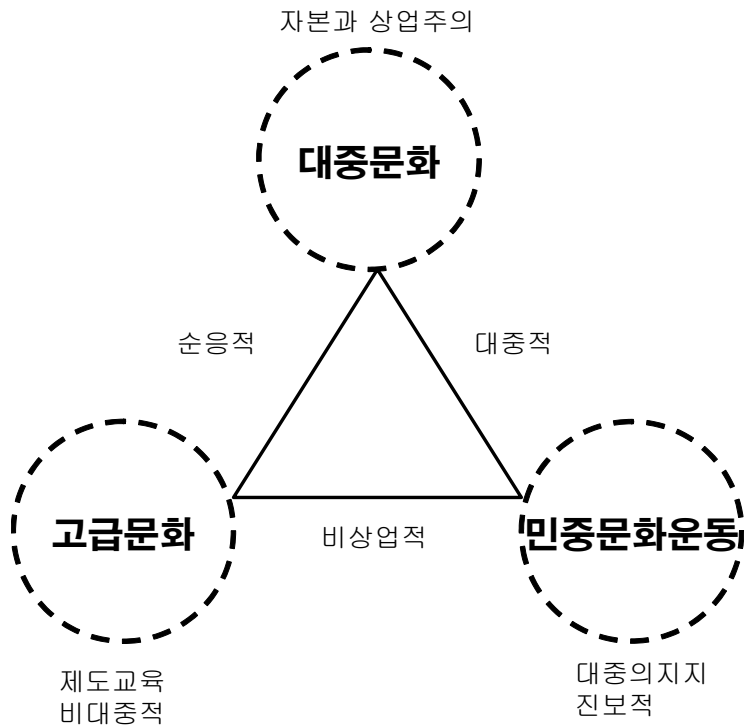


그림 2. 대중문화-고급문화-민중문화의 관계 다이어그램

## 2. 창작촌 담론 생성배경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의 의의와 한계

창작촌을 사전적인 의미에서만 살펴본다면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기도 한다. 곧 ‘작가들이 창작을 위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 정도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창작촌 개념이 갖는 의미는 이런 지시적인 의미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적이며, 다양한 현실효과를 갖고 있다. 작가들이 왜 창작을 위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야 하는가,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것이 창작에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창작촌과 같은 개념이 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예술의 생산 및 소통에 있어 창작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창작촌을 지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가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창작촌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면에서 다른 모든 개념이 그렇듯이 창작촌 개념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미리 주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부단히 생성 변화하는 개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효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 그 개념적인 정확성이나 엄밀함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그 구체적인 현실효과나 작동방식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작촌을 둘러싼 다양한 접근들 중에서 예술제도적 접근, 예술사회학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접근들은 공히 창작촌의 현실적인 효과를 서로 조금은 상이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선 예술제도적 접근은 창작촌을 예술의 사회적 재생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별 예술의 발전을 도모케 하는 사회적 관계나 물질적인 장치로 바라보게 한다. 예술의 현실적인 재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창작촌을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정책과 지원의 대상으로 창작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창작촌의 경우 예술의 생산이나 소통, 개별적인 예술진흥에 있어 중요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발전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의 대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현실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다. 예술제도적 접근은 이렇듯 창작촌을 예술의 재생산에 있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고 아울러 예술의 재생산이나 발전을 위해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사유케 한다는 면에서 발전적이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예술이 갖고 있는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창작촌을 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창작촌의 발생과 맥락, 사회적 기능, 영향 등과 관련된 제반의 현상들을 ‘사회적 사실’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사실로서의 창작촌을 바라본다는 것은 창작촌을 좁은 의미의 예술생산의 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작촌 운영이나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 창작촌과 지역사회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연관 지워 생각하게 한다. 창작촌이 창작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 이외에 지역사회나 지역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생산을 작가들만의 개별적인 활동으로만 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창작촌들은 개별적인 창작의 단위가 되면서 지역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창작촌은 예술창작을 위한 창작공간인 동시에 작가들의 주거 공간,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육 공간, 전시 공간등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 하는 예술 개념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예술을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이 전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과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개념으로 확대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예술사회적 접근은 창작촌을 둘러싼 제반 현실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예술생산이 갖는 특수한 측면들을

다소 간과하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약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창작촌 자체가 현실적인 사회적 사실임에 앞서 개별예술들의 발전을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이고,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별 작가들의 작업 활동이 더 중요한 전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창작촌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창작촌이 갖고 있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면모들을 강조하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창작촌을 스스로 성장하고, 주변과 관계하면서 진화하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창작촌이 발전하면서 파생하는 모든 조건들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몇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 자생성의 측면에서 공진화, 상호의존성, 재생, 협력, 유연성, 다양성의 원리로 창작촌의 환경을 이루는 공간, 지역, 지자체, 교통, 주민, 재정, 정책, 인적자원 등을 바라보게 한다. 두 번째로 건강성의 관점을 두고 창작촌이 건강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전제조건을 가져야 되는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게 한다. 세 번째로 지역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창작촌과 주변 세계, 창작촌과 지역 주민을 공진화 개념 및 협력 개념을 통해 창작촌과 주변의 관계가 서로 발전하는 관계로 보게 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접근은 창작촌을 예술 생태계내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자율적인 활동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창작촌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측면을 창작촌 고유의 발전 논리로 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태학적 접근은 창작촌이 갖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심급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다소 이상적일 수 있는 접근이라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예술제도적 접근이나 예술사회학적 접근, 생태적 접근 모두 현실의 창작촌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보려는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현실의 창작촌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효과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관점이 갖고 있는 유효한 측면들을 종합해볼 때, 창작촌은 예술의 발전에 영향력을 주는 현실적인 제도로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자율적인 동력을 가지고 진화해가는 단위로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여 창작촌을 다시 정의한다고 하면, 창작촌을 ‘창작활성화와 지역 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밀집하여 거주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창작활성화의 경우 개별 거주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창작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창작촌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창작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창작촌이 무엇보다도 예술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지역 쾌적성 향상 역시도 창작촌의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창작촌을 둘러싼 지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창작촌이 현실에서 지역의 문화발전에 있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결국 창작활성화나 지역쾌적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화두는 현실의 창작촌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계기라 할 수 있겠다.

창작촌은 예술의 발전과 전개과정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의 작업실 개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결국은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현실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얼마간은 창작촌의 형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능성을 주목한다면 창작촌이 현실의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예술의 발전이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기능을 담지하는 공간으로 재전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창작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창작촌을 정책적인 지원과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창작촌이 갖고 있는 이런 생산적인 가능성 때문이다.

## 제4장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촌 분포와 운영 현황

### 1. 창작촌의 분포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의 실현을 위한 권역 구분은 크게 북부/동부/서부/남부로 이뤄져 있다.<sup>17)</sup> 이는 「경기2020」 과 「경기비전2006」 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정되었는데, 문화예술시설로서의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적 전망 속에서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이 보고서의 권역구분의 잣대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에서 제시한 각 권역별 특징은 지역주체들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 모델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4개의 권역의 각각의 특징은 배제하고, 지역적 구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분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는데, 4개의 지역적 권역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위치	기초자치단체
북부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고양
동부	남양주, 가평, 양평, 하남, 구리
서부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부천, 광명
남부	수원, 이천, 여주, 광주, 용인, 안성, 오산, 안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sup>18)</sup>

표 8. 경기도 지역 창작촌의 분포

현재 경기문화재단의 창작촌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창작촌으로 간주할 수 있는 17개의 공간들은 위의 권역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

북부	3곳 / 비닐하우스AA 외 2곳
동부	5곳 / 서종사람들 외 4곳
서부	4곳 / 문화예술촌 쟁이골 외 3곳
남부	5곳 / 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외 4곳

표 9. 경기도 지역 권역별 창작촌 수

17)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경기도, 2004, 151-167쪽

18) 같은 책, 163쪽 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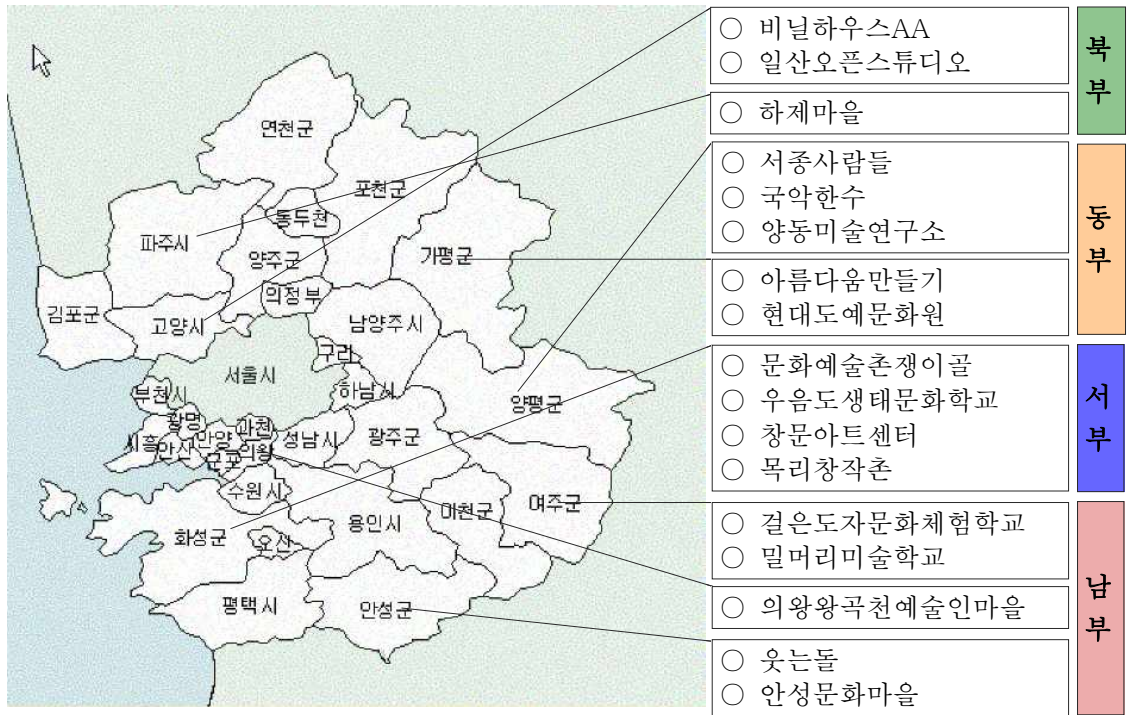


그림 3. 경기도 권역별 창작촌 위치도

순번	권역	스튜디오명	소재
1	북부	비닐하우스 AA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12
2		하계마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62 일대
3		일산오픈스튜디오	고양시 구산동 성석동 일대
4	동부	양동미술연구소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630-7
5		국악한수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19
6		서종사람들	양평군 서종면 일대
7		아름다움만들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2리 562-2
8	현대도예문화원	가평군 북면 화악1리 545	
9	서부	문화예술촌쟁이골	화성시 서신면 장외2리
10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화성시 송산면 고정3리 1290-4
11		창문아트센터	화성시 수화동 236
12		목리창작촌	화성시 동탄면 목리 일대
13	남부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625-1
14		밀머리미술학교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262-1
15		왕곡천예술인마을	의왕시 왕곡동 128
16		옷는돌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775
17		안성문화마을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53-3

표 10. 경기도 지역의 창작촌과 소재지

19) 이러한 분포는 표면적으로는 고른 수치를 보이지만, 경기도가 31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8개 도시에 문화예술인 창작촌이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분포이다. 원인으로는 일찌감치 도시화가 진행되어 건물임대료나 땅값이 높은 광명, 안양, 구리, 과천 등의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어 개발된 도시들과 연천, 평택, 오산, 포천, 의정부 등 군사문화가 도시의 특징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정서적 기피 현상을 들 수 있다.

## 2. 운영현황(철학, 재정, 인력, 프로그램, 공간)<sup>20)</sup>

경기도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연간 이용객이 몇 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당일로 진행되는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 몇 개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고, 더불어 참여 작가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문화예술역량이 질적 성취를 이룰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2차적 효과들은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이 보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창작촌의 유형과 종류’의 분석 근거에 따라 각 창작촌이 공간으로서 말하는 바와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삶의 가치와 태도에 호소하는 바, 그리고 운영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이 꿈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감성적 당위로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 (1) 공간이 말하는 법

산업화되고 임대료가 비싼 도시에서 저렴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며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는 작가들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된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경우 대부분 울창한 숲과 산 또는 시골마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부분이 마을이라고 해봐야 고작 30~50여 가구가 모여 있는 농촌 또는 자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로부터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은, 작가든 관람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이건 관계없이, 자기 감각의 달라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칸트의 이야기처럼 조물주의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가 현현한 작품으로서의 자연은 예술작품을 통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온전히 체험할 때 일어나는 미적성취처럼 이 세계를 창조한 신과 합일하는 감각을 그 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기 감각을 해방시킨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예술을 만나게 하는 힘이야말로 농촌과 자연권에 위치한 창작촌들이 공간으로서 갖는 매력 중 가장 큰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가평의 현대도예문화원과 아름다움만들기, 여주에 위치한 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와 밀머리미술학교, 화성의 창문아트센터, 그리고 우음도생태문화학교 등은 그곳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감각을 서서히 개방시켜 그들이 도착할 때 쫓으면 공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창작촌이 위치한 공간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개연성이 더 높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바를 읽지 못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선의로 도시에서 흔한 대형 강의실이나 편리함만을 목적으로 한 숙박시설, 식당 등을 만들어둔 몇몇 공간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

‘아름다움만들기’에는 나무판을 얹어 대충 세워둔 재래식 목조 화장실에서 불 일을 보기위해 앉으면 눈앞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또한 불타고 남은 재를 활용해서 불 일을 보고 그 위로 한 번 뿌려주는 장치는 재래식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이용객들의 기존 관념을 간단히 뒤집는다. 간단한 공간의 설계이지만 생태문화예술공동체를 지향하는 ‘아름다움만들기’가 이용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20) 이 절의 경기도지역의 문화예술창작촌 현황은 경기문화재단에서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했던 ‘문화예술촌 포럼’의 첫 번째 발제문인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과 과제>(강원재)에서 발췌한 글에 이번 연구를 통해 추가 조사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기억한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고민과 배려가 있으려면, 그 곳을 자기가 살아갈 공간으로 여기면서 애정을 쏟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 도예문화원처럼 1년 단위로 공간사용에 관한 계약을 해야 한다거나, 대부분의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들이 그렇듯이 시설개보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설립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AA나 왕곡천예술인마을처럼 존재자체가 늘 위협받고 있다든가, 창문아트센터처럼 운동장이 통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바뀔 지도 모른다거나, 안성문화마을처럼 공간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되거나 밀머리학교처럼 문화부에서 지자체 매칭펀드를 확보해놓아도 지자체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는지하는 상황 속에서 애정이 담긴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 (2)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삶의 가치와 태도에 호소하는 바

문화예술창작촌에 가장 걸 맞는 프로그램은 아마도 ARTIST IN RESIDENCY 프로그램일 것이다. 창작을 위한 작업장이니만큼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창작열을 불태워 불후의 명작들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만큼 가치 있는 쓰임새도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창작촌에 입주한 작가들의 갈등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이야말로 작가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하다가도 당장 지역의 열악한 문화적 상황과 피해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다보면 불끈 피가 솟구쳐 뭉가 할 일을 찾게 된다.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공공재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작가의 창작행위는 공공재 생산의 행위라고 설명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회 전반의 시장구조로의 산업적 재편과 그동안 소위 잘나가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된 예술작품의 재생산 구조는 예술작품활동을 공공적 영역에서 작가의 사적 행위로 끄집어 내려놓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공공재로서의 예술작품활동과 더불어 공공적 활동으로서의 예술활동이 분리된 채 지역문화활동, 문화예술교육활동, 공공문화생산활동 등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반응은 엄밀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대응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모델이다. 시장 모델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활동을 더욱 내밀하고 신비스러운 개성의 영역으로 만들어 거기에 시장이 가치를 부여하도록 기다리는 신비주의 전략이며, 공동체 모델은 개별화된 경쟁을 추동하는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부정적 징후들에 대응할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을 발견하고 이를 근대 이후 예술의 영역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 생활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스며들기 전략이다.

창문아트센터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화동 주민들이 유기농을 시도해 본다든지, 아름다움만들기가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두부공장을 만든다거나 장애우를 위한 생태공간을 기획한다든지, 한수문화원이 지역의 초중등생들을 전통문화장학생으로 길러낸다든지, 우음도생태문화학교가 공룡축제, 보리축제, 그리고 장승축제를 하면서 시화호와 함께 버려진 우음도로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작업은 모두 지역과 함께 고민하며 작업을 성취하는 작가의식과 결합되어 있다. 조건없는 자발성에 근거한 이 작업들이 가진 에너지는 능히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가치와 삶의 태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놓는다. 행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해본 이들은 국악한수를 통해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그들이 은혜(?)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 후배들을 길러내는 모습처럼 순환하며 확장되어 간다.

작가의 갈등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작품활동만 하고 있기에는 임대료를

포함한 공간 운영비가 만만찮다. 참여 작가들끼리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도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만만찮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널찍한 빈 공간들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변인들의 요구, 그리고 공간에 대한 작가적 상상력 또한 발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말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학교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시·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널찍한 공간을 이용해서 캠프장을 조성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도한 사업들이 성공하는 경우란 드물다.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란 게 원래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데다, 워낙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캠프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원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면 다른 수련시설의 캠프와 비교해볼 때 차별성도 별로 생기지 않고, 그러다보면 캠프에 참여하는 일선 학교들은 교통이나 숙박이 편리하고, 동행하는 선생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콕 짜여진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공간운영자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란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창작촌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온 작가들은 이중으로 힘들다. 창문아트센터 박석윤 선생과 여주걸은도자문화학교 이성덕 선생은 아파트 한 채 값을 쏟아 부으면서 전념하고, 국악한수의 박건영 선생 또한 만만찮은 운영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도예문화원의 박근수 이사장이나 밀머리학교의 박찬국 선생은 여기저기 공간의 전망을 분주히 설명하러 다닌다. 대부분의 창작공간의 작가들은 시군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단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받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보다는 함께 온 ‘선생들이 얼마나 선호하는가’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이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에 감동이 깃들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뭔가 진하게 호소하는 바가 없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그 나물에 그 밥이라도 도시의 식당밥보단 절밥이 맛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를 바라고 먼 곳까지 찾아오는 이들이 드문 것은 당연지사다.

(3) 꿈

80년대 말 서종면에 자리를 잡고 10여년이 지난 99년부터 ‘서종 사람들’이라는 문화 모임을 만드는 등 양평의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온 민정기 작가는 예술인들이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런 현상 아니냐고 반문한다. 예술인들이 도시에서 자연권으로 모여든 것은 멋을 부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도를 닦기 위해서도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품 활동과 예술적 영감을 위해, 짙은 땅값과 깨끗한 환경을 찾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나마 모여 자신의 작업 공간 한 평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서종사람들이 꾸는 꿈은 소박하지만 위대하다.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음악과 예술이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정착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종사람들-서종문화의집-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우리동네음악회>를 거쳐 간 공연팀들은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유진 현악 4중주단, 도깨비 스톱, 일본 와라비좌(座) 극단 등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팀들이다. 앞으로 서종사람들은 <우리동네음악회>를 좀 더 발전시켜 주민들이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북한강 여름음악 축제’와 같이 수도권외의 대표적인 예술 행사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작촌 명	서종사람들	
위 치	양평군 서종면 일대	
설립년도	2000년 ‘서종사람들’ 공식 발족,	
특 성	서종면에 작업실을 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연대 모임	
주요시설	작가들의 개별 작업실, 갤러리 서종, 북한강 갤러리 등 전시시설, 기타 주민센터 등	
설립계기	1990년대 초반부터 짙은 땅값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아 자발적으로 모여든 작가들 중심으로 형성	
프로그램	- 소식지 ‘서종사람들’ 발행 - 우리동네음악회 / - ‘명달리전’ 등 각종 전시회	
참여작가	민정기(화가), 이근명(화가), 김인순(화가), 황명걸(시인), 이철순(기획자), 이달희(시인), 김용만(소설가) 나경찬(화가) 추왕석(도예가) 등	
공간운영	작가들의 개별 창작공간과 전문 갤러리들의 밀집공간으로 프로젝트별 공간의 연계 운영	
전 경		

표 11. 서종사람들 개요

일산오픈스튜디오의 작가들은 모여든 작가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들이 함께 꾸는 꿈은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미술 공간을 지향한다’는 일 년에 한번씩 열리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만 이야기되고 있다.

창작촌 명	일산오픈스튜디오
위 치	고양시 구산동 성석동 일대
설립년도	2001년 구산동 작가들을 중심으로 개최된 [구산 오픈스튜디오]를 계기로 공식적인 연대의 틀을 갖추
특 성	일산 성석동과 구산동에 작업실을 둔 작가들의 자발적 연대 모임
주요시설	시각예술분야의 개별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거점 공간은 없음
설립목적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미술 공간을 지향함
프로그램	- 매년 [오픈스튜디오 전],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개최
참여작가	<구산동 작가> 박종갑 전신덕 박금숙 서송, 장선영, 이원석 천영신 김영무 차현주 권석만 송왕섭 이성민 박환웅 최승호 박승범 박민섭 송명수 정명희 최원석 이희택 조훈 박동엽 허종현 외 <성석동 작가> 권치규 김경민 김경숙 김인태 김정범 민문기 박근우 서옥재 성미경 오상욱 오세문 오세춘 유재명 이상현 이성웅 이재숙 장상희 장진연 정국택 박상현 김용진 외
공간운영	작가들의 개별 창작공간의 밀집지역으로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위한 공간의 연계 운영
전 경	<p>The figure consists of two maps. The top map is titled '구산동 ART MAP' and shows the area around Gusan-dong, Goyang. It marks various artist studios with names like '이원석', '최승호', '박민섭', '김영무', '권석민', '차현주', '송명수', '김용진', '최원석', '이희택', '조훈', '박동엽', '허종현'. The bottom map is titled '성석동 ART MAP' and shows the area around Seongseok-dong, Goyang. It marks studios with names like '오상욱', '서옥재', '오세문', '장대엽', '김경민', '성미경', '류시욱', '김상진', '김경일', '이상현', '권치규', '김경민', '오성욱', '서옥재', '오세문', '장대엽', '김용진', '김민경', '장진연', '민문기', '박근우', '박상현', '신치현', '이연숙', '황남진', '김민경'. Both maps include street names and landmarks like '이산보 I.C' and '서울'.</p>

표 12. 일산오픈스튜디오 개요

1995년 설립 이래 하제마을은 동시대 유사한 경험과 고민을 가졌음직한 나이대를 형성하는 일군의 젊은 작가들에게 자신의 작업에 안정적으로 몰입하면서도 정서적 연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 외에도 하제마을을 이미 거쳐 간 작가들은 우리나라 현대미술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분명하게 개척한 이들이 많다. 서양화의 김재홍, 한국화의 유근택, 설치작가 김미형 외에도 많은 현대시각예술분야의 작가들이 이 공간의 출신이다. 이제 하제마을은 좀 더 다양하고 실험적인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작업세계를 교류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독일과 미국의 작가가 이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이 공간의 작가들은 단지 가까이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작업을 워크숍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공유하고 이러한 자리를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민간주도의 자생적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창작촌 명	하제마을	
위 치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62 일대	
설립년도	1995년 10월	
특 성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에 개별작가들 입주	
주요시설	조각, 설치, 영상, 회화 등 다양 분야의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	
설립목적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작가들의 독립적인 창작공간을 지향함	
프로그램	국내외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 내부 세미나, 워크숍 등	
참여작가	김창호, 김승영, 김창겸, 광경화, 최홍선, 이필두, 김태준, 홍순명, 김성남, 임택, Bernd halbherr(독일), Alan van every(미국)	
공간운영	약국을 운영하는 땅주인으로부터 공간을 무상임대 받아서 운영 / 전기세, 수도세 등 기본 운영비는 공동 부담.	
전 경		

표 13. 하제마을 개요

의왕시 왕곡동에서 폐축사를 개조해서 모여 사는 김문석선생과 안성문화마을의 홍성봉 선생은 모쪼록 자기작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들은 열심히 작업해서 작품을 생산하고 작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오픈스튜디오나 전시회를 통해 지인들을 초대해서 작품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왕곡천예술인마을의 작가들은 가끔 찾아오는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이라 말하며 닦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성문화마을의 작가들은 시행사라며 하청업체 부리듯 급하게 작가들을 동원하지 않고, “작품활동 하는데 도와줄 일 없냐”며 물어봐 주길 바란다.

의왕시 왕곡동에서 폐축사를 개조해서 모여 사는 6명의 작가들과 안성문화마을의 작가들이

모조록 작업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가 말해주듯 전환기의 시대에는 다른 내용과 형식이 등장하고 새로운 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예술이 위기인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시대”가 말하는 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지역민들이 소주에 반대떡이라도 사들고 쭈뼛거리며 찾아와 작품과 함께 긴 달이 뜬 밤의 정담을 나누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창작촌 명	안성문화마을	
위 치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53-3	
설립년도	2001. 10	
특 성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	
주요시설	도예작업장, 조각작업장, 회화작업장, 도자기 전시장, 세미나실, 작가숙소 등	
설립목적	다변화된 현대미술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지평을 형성함.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캠프 / - 찾아가는 학교연계 미술강의 / - 레지던시 프로그램 - 안성문화마을 작가 기획전 / - 내방인을 위한 미술체험 교실(수시)	
참여작가	유승렬, 홍성봉, 한병희, 김효기, 김정래, 권용철	
공간운영	교육청으로부터 안성시에서 임대하여 안성시 미협으로 경영위탁	
전 경		

표 14. 안성문화마을 개요



창작촌 명	왕곡천예술인마을	
위 치	의왕시 왕곡동128번지	
설립년도	2002년 9월	
특 성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	
주요시설	폐축사개조, 6인의 창작 및 주거공간	
설립목적	작가들에게 안정적 창작공간 제공	
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작가	김영주, 김승효, 이에리, 김상학, 김문석, 고영진	
공간운영	개인소유부지에 폐축사 개조 / 작가 월 평균임대료 200,000원 지출	
전 경		

표 15. 왕곡천예술인마을 개요

화성시 서신면에서 폐교를 개조하여 문화예술체험캠프시설을 운영하는 강연숙 선생의 쟁이골과 양평 양동면에서 폐교를 개조하여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해두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

한 미술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동미술연구소는 한번쯤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인 선생은 지역의 작가들이 어울려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문화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연구소를 통해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한다. 또한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문화예술적 놀이와 미술을 통한 성장을 하면서 같이 뛰어노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문화적으로 향유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자신들의 성장에 있어 당연한 경험을 빠트리지 않고, 온전히 가져가기를 원하는 강연숙 선생의 바람 또한 그러하다.

강연숙과 이인 선생의 바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찾는 이들이 오직 그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이의 손을 잡고 찾아와 이곳을 자기 삶의 소중한 공간 중 하나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면사무소에서 말하듯 양동미술연구소가 고추장된장만들기체험마을이 되어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과정을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면사무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 신나게 이끌어가기 바란다. 문화와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며 무성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다. 언론에 비교적 잘 알려진 쟁이골이 최근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러한 바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창작촌 명	문화예술촌쟁이골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2리	
설립년도	1997.7.1	
특 성	문화예술체험캠프시설	
주요시설	대강의실, 중강의실, 세미나실, 극기훈련, 캠프화이어장, 산악모험코스, 체험학습장, 노천교실, 숙박시설, 식당,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도자기 가마작업실, 컴퓨터	
설립목적	하늘, 땅, 바다, 문화예술, 공동체의 경험 제공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농촌체험, 자연생태체험, 예술문화체험, 전통먹거리체험, 야영, 장애체험 등	
참여작가	백운지, (사)문화마을들소리, 이상현, 김은미, 김석환, 최병두, 이강식, 신천희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12,000,000원	
전 경		

표 16. 문화예술촌 쟁이골 개요



창작촌 명	양동미술연구소	
위 치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630-7	
설립년도	1995년 전후	
특 성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 시각예술체험교실	
주요시설	작가개인창작스튜디오와 실습실	
설립목적	개인의 창작 활동에 매진하면서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지역주민대상 미술체험프로그램	
참여작가	최석윤, 장원실, 김남진, 이인,	
공간운영	양동면에서 임대하여 경영위탁함 / 임대료 없음	
애로사항	양동면과의 공간운영에 대한 의견 마찰 심화되고 있음 (* 연구자 후기 : 2006년부터 양동미술연구소는 양동면과의 마찰로 삼산분교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고, 양평문화발전협의회라는 임의단체가 운영단체가 되었음. 양평문화발전협의회는 '2006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원사업자로 확정되면서 시설개보수와 더불어 공간운영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음)	
전 경		

표 17. 양동미술연구소 개요

창문아트센터의 박석윤선생과 아름다움만들기의 권영환 선생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이미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주민이 되어버린 두 분께는 주민들의 생활과 자신이 추구하는 작업이 서로 다르지 않다. 박석윤선생은 창문아트센터에 적용되는 대부요율이 좀 낮아지고 5년이나 10년쯤 장기계약을 맺기를 바란다. 그래서 장기적 전망을 갖고 그 공간과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한다. 권영환선생은 장애우들의 생태문화공동체를 꿈꾼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생활친화형문화공간으로 선정이 되어 그 꿈은 한층 가까워진 듯하다. 다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 산을 흉물스럽게 깎아먹고 있는 채광석장이 사라지고, 목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근처 펜션에서 오물들이 쏟아져 나와 맑은 내를 흐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창작촌 명	아름다움만들기	
위 치	가평군 가평읍 개곡2리 562-2	
설립년도	2002. 1. 1	
특 징	장애우를 위한 문화예술체험공방	
주요시설	문화예술작업공방, 작품전시실, 천연염색체험장, 유기농배움테	
설립목적	장애우들의 숨어있는 소질의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 이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만듦.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서예, 전통소목생활공예, 천연염색), 유기농체험, 마을축제	
참여작가	권영환, 이해화, 박효선, 유승진	
공간운영	교육청과 1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147만원	
전 경		

표 18. 아름다움만들기 개요

창작촌 명	창문아트센터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 236	
설립년도	2003. 1. 1	
특 징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체험공방/지역주민문화센터	
주요시설	철근 콘크리트 건물/전시실/스튜디오/숙소/조각공원/체험교실/자료실	
설립목적	지역기반 생활 밀접형으로 환경친화적 조형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자리잡아감.	
프로그램	가족단위시각예술체험프로그램 / 문화농촌체험프로그램 / 학교연계프로그램 / 레지던시 프로그램 / 허수아비축제, 깃발축제 등	
참여작가	박석운 외	
공간운영	교육청과 2년 단위 계약 / 연간 39,565,150원	
전 경		

표 19. 창문아트센터 개요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의 이성덕 선생은 흙이 좋은 여주지역에서 도자예술이 부흥하기를 바란다. 가평현대도예문화원의 정충미 선생은 물이 좋은 가평지역에서 도자예술과 차가 어울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기획하고 싶어 한다. 자신들의 배움을 전하는 대학의 학생들을 인턴과정으로 받아들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전문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한다. 정충미 선생은 근처 6.25참전외국인용사들의 추모비가 있는 곳으로 매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정성껏 빚은 도자에 차를 담아 대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평현대도예문화원의 박근수 이사장은 일본JTB와 함께 테마가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5년 정도의 장기계약과 함께 몇 가지 시설개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와 가평현대도예문화원의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역동하게 될 것이다. 여주의 흙으로 빚은 도자와 가평의 물이 만든 도자가 각각의 특성을 갖고 발전하여 세계 속의 우리의 문화를 현양하는 일가를 이뤄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일이 있겠는가. 다만 그러한 바람의 실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강좌들을 도구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영자의 꿈, 공간의 설계,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참여자들에게 전해질 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촌 명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위 치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625-1	
설립년도	2002. 9. 10	
특 징	도자예술창작스튜디오, 도자예술체험공방	
주요시설	도자체험교실, 도자가마실, 야외조각공원, 도자전시실	
설립목적	일상에서 벗어난 조용한 자연 속에서 새로운 도자문화체험교육을 통해 도자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보급함.	
프로그램	교원직무연수, 학교연계체험프로그램,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작가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32,000,000원	
전 경		

표 20.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개요



창작촌 명	현대도예문화원	
위 치	가평군 북면 화악1리	
설립년도	2002. 6. 1	
특 징	도자예술창작스튜디오, 도자예술체험공방	
주요시설	체험교실, 전시실, 도자가마, 숙박시설, 식당	
설립목적	청소년의 타고난 재능과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가능성에 도전하며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감.	
프로그램	가족단위체험프로그램 / 각종 수련회 및 대학생 MT 기업체 및 공공기관(단체) 출장강의 /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각급학교 특별활동(CA) 및 특기, 적성교육, 교사교육	
참여작가	정충미 원장 외	
공간운영	교육청과 1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15,000,00원	
전 경		

표 21. 현대도예문화원 개요

시화호가 내려다보이는 화성의 우음도생태문화학교는 소울음소리 들리던 예전의 아름답던 섬을 기억한다. 남은 이들끼리 보리축제, 공룡축제, 장승축제를 하면서 함께 어울려 놀다보면 어느 듯 이 섬을 떠났던 사람들이 왁자지껄 다시 돌아와 한바탕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생각해보면 문화와 예술이란 그런 거다.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가있고 모두 떠나간 자리에 먼저 돌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음도로 먼저 돌아가 생태문화학교를 일궈가는 최오진씨와 이재화 교장선생의 선택은 충분히 문화예술적이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고리들은 두 사람이 바라는 꿈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 헤원하고 상생할 것이다.



창작촌 명	우음도생태문화학교	
위 치	화성시 송산면 고정3리 1290-4	
설립년도	2000.	
특 징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문화예술 기획공간, 생태체험강의실	
주요시설	강의실, 운동장, 숙박시설	
설립목적	우음도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문화관광활성화에 기여함.	
프로그램	생태체험프로그램, 우음도보리축제 등	
참여작가	최오진 외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2,300,000원	
전 경		

표 22.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개요

밀머리미술학교는 먹거리 생산자조합 '한살림'과 디자인그룹 '간텍스트'와 함께 조합방식의 공공미술디자인센터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생태 지향으로 지역문화를 재구성하고 그 가치의 파급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문화거점으로 자리잡고자 한다. 또한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농 문화교류와 다채로운 문화적 삶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공미술과 디자인의 가치를 실현해보고자 한다. 결국 '지역'이라는 이름의 배타적 시스템 속으로 얼마만큼 잘 스며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밀머리학교 박찬국 교장의 숙제로 남았다.



창작촌 명	밀머리미술학교	
위 치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262-1	
설립년도	2002. 7. 1	
특 징	문화예술체험학교 / 생태문화체험학교 / 장애인 문화체험 교실	
주요시설	철근 콘크리트 건물 : 세미나실, 야외체험마당, T셔츠공방 등	
설립목적	변화하는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의 집합이며 새로운 실험의 장이자 교육과 생산의 기지가 됨.	
프로그램	Art Camp, 시각문화예술체험교실, 학교연계프로그램, 장애인프로그램 등	
참여작가	박찬국 교장 외 전문강사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27,000,000원	
전 경		

표 23. 밀머리미술학교 개요

비닐하우스AA가 꾸는 꿈을 국악한수에서는 선취하고 있다. 미술은 강의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으며, 정규학교를 거치지 않아도 미술을 공부할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비닐하우스AA의 모토는 이제 갓 2년을 넘기면서 겨우 자기 성장의 싹을 틔우게 되었다. 비닐하우스AA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의 상징만큼이나 우리 사회 주류 학풍과는 다른 질서를 고민하며 흔들리고 있다면 양평 양동리하고도 금왕리에 위치한 한수문화원은 그러한 질곡의 과정들을 10년 이상 거쳐, 이제는 지역의 학교연계프로그램공간으로 확실히 자리잡아 제법 큰 줄기들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처음 고사리 손으로 풍물을 다루던 아이들이 그 분야를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그 지역 후배 고사리 손들을 가르치는 학습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비닐하우스AA도 지난 해 말 1기 졸업생들이 생겨났다. 이들 중 일부가 이젠 비닐하우스AA의 운영을 맡아 2기와 조금은 다른 거리에서 작은 가치를 조심스레 뺏어보고 있는 중이다.



창작촌 명		국악한수	
위 치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19번지		
설립년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에 소재한 석장초교였던 폐교를 임대하여 1994년부터 3년 동안 운영 / 지역주민의 소음 호소 관계로 장소를 이전하여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양동면 금왕리 소재의 폐업한 양어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운영 장소 협소와 냉난방의 시설 미비로 운영진과 회원 모집, 대대적으로 투자 기금을 마련하여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 및 개보수를 해서 2003년 7월 26일 정식 한수문화원의 개원식을 갖게됨.		
특 성	전통문화창작스튜디오, 전통문화체험교실		
주요시설	강당2동, 식당, 야외휴게실, 숙박시설		
설립목적	전통문화의 보급과 저변확대		
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전통문화전문가연수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작가	최원산, 박한아름, 박세라, 이옥숙, 정향희미, 박찬중, 남기문, 박건영		
공간운영	투자자 공동 소유부지에 세워진 창고형 창작공간 / 연간 임대료 납부 40,000,000원 납부		
전 경			

표 24. 국악한수 개요



창작촌 명	비닐하우스AA	
위 치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12	
설립년도	2003년 6월 26일	
특 성	대안적 문화의 시각예술학교	
주요시설	비닐하우스 2동 (길이 20m, 폭 10m, 높이 5m)	
설립목적	한국이라는 극동아시아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열려진 국제적 시야를 함양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미학적 가치관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창작능력을 갖춘 예술가와 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함.	
프로그램	오픈 하우스 / VAA 미술학교운영 / 기획전시 / 학습성과발표회	
참여작가	자문위원: 조성목, 전수천 강사구성: 김지섭, 백기영, 김월식, 송은영 외 특강구성(외부영입) 행정: 김소연, 이원정 근로장학생: 이원정, 전재철, 박관우(2004년)	
공간운영	개인소유부지에 세워진 임시 건축물 / 임대료 없음 시설운영비는 프로그램 등록비에서 충당	
전 경		

표 25. 비닐하우스AA 개요

### 3. 문화예술인 창작촌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

#### (1) 제도

##### 1) 농촌진흥법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대부분이 농촌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림부의 역할과 활동은 크게 주목되는 바가 있다. 농림부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과 농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더 나아가 세시풍속과 연계한 지역문화관광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계법령	내 용
농촌진흥법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b>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b> ②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26. 농촌진흥법 제13조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문화적 환경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의 관광 수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문화예술인 창작촌’이나 ‘지역예술창작’을 지향하고 있는 창문아트센터나 아름다움만들기, 서중사람들 그리고 우음도생태문화학교의 경우 이 제도와 정책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문화예술인 창작촌이 1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지역의 문화 예술인 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또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그리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은 그 자체로 폐교의 대부요율이나 시설개보수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법령	내 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1. "폐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 시설·청소년련수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p>4. <b>"사회복지시설"</b>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p> <p>.....</p> <p>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③교육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b>감액 대부</b>할 수 있다. &lt;신설 2002.12.5&gt;</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02.12.5&gt;</p> <p>제6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①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b>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b></p> <p>②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p> <p>.....</p> <p>제9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b>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b>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b>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b> &lt;개정 2002.12.5&gt;</p> <p>.....</p>
--	--

표 27. 폐교재산활용을 위한 축진법 제2, 5, 6, 9조

관계법령	내 용
폐교재산의 활용축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p>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b>수의계약</b>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lt;개정 2003.8.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b>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b>하고자 하는 경우</li> </ol> <p>.....</p> <p>②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연간감액비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8.6]</p>

표 28. 폐교재산활용을 위한 축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폐교를 활용하여 창작촌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촌 쟁이골’,



‘안성문화마을’, ‘양동미술연구소’, ‘아름다움만들기’,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현대도예문화원’, ‘우음도생태문화학교’, ‘창문아트센터’, 그리고 ‘밀머리미술학교’의 운영은 크게 좌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며, 감액대부 받을 수 있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면 창작촌 운영자들이 그 공간을 통해 상상해볼 수 있는 활동은 보다 크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완곡한 편인데,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지나친 계약기간의 산정이나 시설의 변경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는 게 사업담당자의 의견이다. 물론 담당자의 입장과 법에 대한 다소 자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적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출산율이 1.17명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다시 학교로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는 순환의 중요한 고리로서 창작촌을 고려해본다면 적절한 절충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3) 문화예술진흥법

최근 문화기본법과 기초예술지원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 된 개인이나 단체가 가장 많이 규정되고 있는 현행법은 ‘문화예술진흥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문화예술인 창작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존재 조건이나 지원의 근거가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예술촌들이 문화예술시설로서의 정책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관계법령	내 용
문화예술 진흥법	<p>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개정 2000.1.12, 2003.5.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li> <li>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p>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2000.1.12&gt;</p> <p>.....</p> <p>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1·12&gt;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1·12&gt;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lt;신설 2000·1·12&gt;&lt;시행일 2000·7·13&gt;</p>

표 2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9조

관계법령	내 용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p>제1조의2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05.6.13&gt;[본조신설 2000.10.23]</p> <p>-----</p> <p>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p> <p><b>[별표 1]&lt;개정 2000.10.23&gt;</b>  <b>문화시설의 종류(제1조의2관련)</b></p> <p>-----</p> <p>1. 공연시설</p> <p>가.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을 제외한다)</p> <p>(1) 종합공연장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p> <p>(2)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p> <p>(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p> <p>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p> <p>(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p> <p>(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p> <p>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p> <p>2. 전시시설</p> <p>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p> <p>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p> <p>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p> <p>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p> <p>3. 도서시설</p> <p>가.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p> <p>나. 문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p> <p>4. 지역문화복지시설</p> <p>가.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p> <p>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p> <p>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p> <p>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p> <p>5. 문화보급전수시설</p> <p>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p> <p>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p> <p>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p> <p>6. 기타 문화시설</p> <p>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p>

표 3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3조

즉 위의 조항들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창작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법9조와 시행령 제23조의 정책적 지원대상 건축물이 되는 문화예술공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창작시설의 경우 대형건축물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자생하고 있는 소형건축물의 경우에도 창작공간으로 사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인 창작촌 관련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6개월경과 후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대한 조사는 ‘예비작가양성’과 ‘문화예술교양교육’을 지향하는 ‘비닐하우스AA’, ‘문화예술촌 쟁이골’, ‘현대도예문화원’, ‘밀머리미술학교’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받지 못하는 문화시설로서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중 창작촌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계법령	내 용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p> <p>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p> <p>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p> <p>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p> <p>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p> <p>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p> <p>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학습·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2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p> <p>②시·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표 3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6조, 제21조

이 법의 ‘2조3의 라’에 따라 마련되는 시행령에 ‘문화예술교육시설로 활용되는 창작공

간'을 포함시키거나, '21조 ②'에 따라 폐교재산의 문화예술교육적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정지어진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2) 지원사업(2006년 기준)

### 1)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의 창작촌 관련 지원사업의 특징은 그 목표가 '창작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기반공간으로서의 창작촌 활성화'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창작공간의 활성화는 문화예술인의 작가적 역량의 제고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 물론 지역재단으로서의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경기도에 한계 지워져 있다는 것 또한 다른 지원 사업과는 분명 변별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자생성'과 '밀집성'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는 데, '3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자생적 창작 공간'이라는 사업대상에 대한 규정은 다른 창작촌 관련 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문화예술공간이란 정책목표에 영향 받아야 하는 도구적 공간이 아니며, 문화예술의 창작행위 그 자체는 이미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은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재단의 의지가 이 사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b>사업명</b>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b>사업주체</b>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a href="http://www.ggcf.or.kr">http://www.ggcf.or.kr</a>
<b>사업목적</b>	자생적으로 형성된 창작촌을 지원하여 · 창작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지역문화진흥의 기반공간 활성화
<b>사업대상</b>	경기도 내에 소재하면서 3인 이상의 예술인 상시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스튜디오를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해 온 단체나 모임 중 아래 프로그램을 당해연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창작촌. · 예술인 초청 레지던시 프로그램 : 국내외 예술인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에 거주하면서 공동작업 등의 교류활동이나 문화예술향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의 활동 · 창작촌간 교류 프로그램 : 다른 지역이나 장르의 창작촌 혹은 스튜디오와의 공동작업이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창작촌 입주 작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지역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이나 창작활동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b>지원사업자 선정방식</b>	- 연간 1회의 공모 - 경기문화재단 담당팀으로 재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된 지원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 - 지원신청사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자 최종 결정
<b>지원규모</b>	단체 당 최대 1,500만원 (지원금 총 규모 : 1억원)
<b>공모시기</b>	상반기 내(3~5월 중)
<b>기 타</b>	- 작가단체 또는 문화예술매개단체 직접 지원 -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표 32.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2)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

농림부 소속의 농촌진흥청을 통해 매년 실시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은 엄밀히 말해 문화예술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로서 문화예술은 지역으로 사람을 유인하거나, 내방객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자신의 작품공간으로서의 지역활동을 하는 작가가 아니라면 참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행과정의 특징들이 여타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지원결정사업은 2년에 걸쳐 지원받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염두에 되어 하는 지점이다. 예산신청을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보아야 한다. 어떤 사업이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지역 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더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자치단체가 지원대상마을을 선정케 하면서 매칭펀딩을 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기금을 효

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까지 창출한다. 더불어 익익년도 지원신청 할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학습기회를 마련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과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농촌진흥청 시행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은 일회적 사업지원이나 계기성의 사업지원으로 지원사업자가 작품생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여타의 문화예술지원사업들이 귀감으로 삼을만하다.

<b>사업명</b>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
<b>사업주체</b>	-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 <a href="http://www.go2vil.org/">http://www.go2vil.org/</a>
<b>사업목적</b>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가 전통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내방객에게 쉽고 즐거움을 제공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을 조성함
<b>사업대상</b>	농촌마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이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li> <li>·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개성과 이미지가 있는 마을</li> <li>·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마을운영에 참여할 인적자원이 있으며 마을 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마을</li> <li>· 마을민간 화합이 잘되고, 총회를 거쳐 사업추진이 합의가 된 마을</li> <li>· 사업추진 후 활용·관리 계획이 타당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li> <li>·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li> <li>· 농촌지도기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투입되어 성과를 도출했던 마을</li> </ul>
<b>지원사업자 선정방식</b>	(1) 사업신청(마을 → 시군농업기술센터) : 2월말 ※ 구비서류 : 사업 추진의향서, 사업계획서(시군농업기술센터 비치) (2) 마을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3월말 (3) 마을 선정(도농업기술원) : 매년 4월 초중순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마을을 자체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년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4) 예산신청(시도지사→농촌진흥청(검토)→기획예산처) : 5월 (5) 지원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을주민협의체 구성, 사업계획 수립, 운영자의 리더쉽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 사업추진능력을 구축토록 함. (6) 익익년도에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마을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 각종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교육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대상 마을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 ○ 예비마을 지원내용 - 마을주민협의체 구성·사업계획 수립 등 자문, 마을 대

	표자의 전문 운영자 육성과정 이수, 참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교육 및 견학 실시 등
<b>지원규모</b>	2년간 마을 당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b>공모시기</b>	매년 1월 중 익년도 지원사업자 공모, 익년도 지원사업자 예비신청 접수
<b>기 타</b>	- '전통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작가 간접 지원 -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표 33. 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 개요

### 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의 확대'와 '지역간 문화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지원사업 대부분이 프로그램 지원에 한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로서는 지원사업의 장기적 비전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예산뿐 아니라,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의 개증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구축된 공간 인프라를 통한 사업의 장기적 구상이 가능토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b>사업명</b>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b>사업주체</b>	- 주최 : 문화관광부( <a href="http://www.mct.go.kr">http://www.mct.go.kr</a> ) - 주관 : 전국문화원연합회( <a href="http://www.kccf.or.kr">http://www.kccf.or.kr</a> )
<b>사업목적</b>	주민 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
<b>사업대상</b>	- 문화소외지역 및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예술·문화복지 분야 단체, 지역주민자치협의회 등 생활문화공간 운영 의지 및 능력을 갖추었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희공간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동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허락(동의)을 받았거나, 기사용 중인 문화공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폐교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증명하는 제반서류 필히 포함)
<b>지원사업자 선정방식</b>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a href="http://www.mct.go.kr">www.mct.go.kr</a> )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kccf.or.kr">www.kccf.or.kr</a> )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신청공모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업주관단체(전국문화원연합회) 담당팀으로 접수 하면, 사업주관단체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처 지원사업자를 결정함
<b>지원규모</b>	총 10개소 내외, 1개소당 9천만원 내외 지원
<b>공모시기</b>	매년 1월 중 지원사업자 공모
<b>기 타</b>	- 작가단체 또는 문화예술매개단체 직접 지원 -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표 34. 문화관광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개요

#### 4)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문화예술계와 중앙정부차원의 오랜 진통 끝에 지난 해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참여 기반의 문화예술위원회로 개정 출범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원사업을 내 놓았는데, 그 중에서 <무용전용공간 지원사업>이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다. 이전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되던 ‘해외 레지던스 파견 지원사업’이 국내 예술가에게 해외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외 작가들을 국내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제적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인프라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적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사업명</b>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b>사업주체</b>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교류팀 - <a href="http://www.arko.or.kr">http://www.arko.or.kr</a>
<b>사업목적</b>	국내에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지원을 통해 · 다양한 해외 예술인의 국내 레지던스 활동을 진작 ·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국제 민간 예술네트워크 조직기반 조성
<b>사업대상</b>	- 초청자들이 일정기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전통/복합장르 등 각 분야의 해외 현장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아래 요건을 갖춘 프로그램. · 3개월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최소 5개국이상의 참가가 가능한 프로그램 · 해당 장르(문학, 미술, 공연, 문화일반 등)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참가자들의 교류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국내 예술인과 공동 워크샵, 프로그램 운영지역의 일반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참가자들의 예술기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해외 참가자들에 대한 한국문화 및 예술현장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포함 (※국내 단순 연수, 세미나 및 강습 등의 연수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음)
<b>지원사업자</b>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arco.go.kr">www.arco.go.kr</a> )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b>선정방식</b>	램 운영 지원사업』 신청공모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팀으로 접수 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및 인터뷰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자를 결정함
<b>지원규모</b>	지원단체의 프로그램운영 및 참가자 체재비로 4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에서 차등 지원
<b>공모시기</b>	매년 3~4월 중 지원사업자 공모
<b>기 타</b>	- 작가단체 또는 문화예술매개단체 직접 지원 - 2006년부터 시행.

표 35. 문화예술위원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요

그밖에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창작공간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행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관 활용 문학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등은 문화예술인 창작촌 운영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3) 연구대상공간과 관련 지원정책의 연계 관계

앞 절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작촌 관련 지원제도와 지원사업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각의 제도와 사업의 목표와 지원방식은 경기도 지역 창작촌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창작촌들의 운영현황이나 장기적 전망을 고려할 때 각각의 지원제도와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비닐하우스AA	아름다움 만들기	하제마을	일산 오픈스튜디오
체 도	농촌진흥법	×	○	×	×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	○	×	×
	문화예술진흥법	○	○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	×	△
사 업	문화예술인창작촌지원사업	△	△	○	○
	농촌전통테마마을지원사업	×	○	×	×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	×	○	×	×
	국제레지던스운영지원사업	△	×	○	△

표 36. 연구대상 창작공간별 지원제도 및 사업과의 상관관계표

이에 대한 구체적 진단은 각 창작촌의 전망과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 제5장 창작촌 유형별 모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1. 예비작가 인턴쉽 공간 - 비닐하우스AA(Vinylhouse Art Adapter)

#### (1) 모델분석

“0에서 1과 2을 개발하여 신품종을 개량 창출하고 신천지로의 비상을 꿈꾸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생산스튜디오”로서 “기존의 회화형식 시스템을 벗어나 상상 가능한 모든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대안미술학교를 지향하는 비닐하우스AA는 제도화된 우리의 미술교육현실에 비취보았을 때, 존재 자체만으로 신선한 자극이 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실험들이 그러하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립의 이념이 구체화되고, 목표했던 바가 현실화 될 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활동이 공간의 이념으로서 의미 있었노라고 가히 회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03년 설립으로부터 만 3년에 접어들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구체화하고 현실화 시켜온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한계, 그리고 현재적 전망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제도권의 미술교육이 봉착한 ‘실험성’, ‘창의성’, 그리고 건강한 ‘비판정신’의 부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과 전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 1) 비전과 전망

비닐하우스AA는 설립 이래 매년 새로운 신입생을 홈페이지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립의 이념과 교육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비닐하우스AA 홈페이지에서)

##### **설립이념**

비닐하우스AA는 척박한 이 땅에 희망과 정열, 그리고 개척과 도약을 의미하며, 0에서 1과 2를 개발하여 신품종을 개량 창출하고 신천지로의 비상을 꿈꾸는 진취적이며 실험적인 생산 스튜디오입니다. 비닐하우스AA는 이러한 비닐하우스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아카데미 예술교육 시스템에서 미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대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기존의 회화형식 시스템을 벗어나 상상 가능한 모든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진보적이며 실험적인 창작 프로그램 실기 교육을 지향합니다.

##### **교육목표**

한국이라는 극동 아시아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열려진 국제적 시야를 함양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미학적 가치관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예술가와 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대안미술학교를 표방하며 비닐하우스AA는 출범하였지만 실제 공간의 프로그램과 운영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설립이념과 목표대로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예술가와 예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비닐하우스AA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비닐

하우스AA는 제도미술교육이 수용하지 못하는 현대예술을 탐구하고 실험적 창작 실기 교육을 지향한다”는 설립의 이념과 목표는 프로그램과 공간운영의 내용면에 적절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닐하우스AA는 구성원 각자의 삶에 있어 그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성찰과 그러한 서로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는 다의적인 장소로 해석됨으로써 정체되지 않고 흐르면서 항상 열린 공간을 지향할 뿐이다. 그래서 비닐하우스AA는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예술가와 예술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표준화, 획일화, 대량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했던 근대의 기획이 더 이상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성장에 적절치 않은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후기 근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파이를 키워 적절히 나눔으로써 평등과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근대는 부의 양극화, 생태파괴, 전쟁과 기아 등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폐단을 양산하였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천 명, 이천 명이 같은 시간에 줄지어 등교하여, 같은 내용의 공부를 하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쳐서 등급을 매기는 거대한 학교에서는 표준에서 멀리 있는 소수의 학생과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특성은 배려 받지 못하고 감춰진다. 특히 표준에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느끼고 읽고 표현하는 섬세함과 창의적 감수성이 필요한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근대의 산물로 태어난 제도권 교육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견된 기획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AA의 ‘열림’은 획기적일 수 있는 것이다. 중심을 두지 않고, 획일적 체계를 만들고 표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안팎의 경계를 짓지 않음으로써 기존 제도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열림’과 더불어 ‘다름’은 비닐하우스AA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이다. 비닐하우스가 지향하는 ‘다름’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상황과 창작의 동기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제도교육을 거치면서 깊숙하게 감춰들 수밖에 없었던 표준에서 벗어난 감수성과 상상력을 회복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열림’과 ‘다름’의 비전을 통해 비닐하우스AA는 제도미술교육에서 거의 불가능한 기존의 조형세계에 대한 개인의 비판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창의력을 긍정하는 문화를 만들면서 소통의 문제를 직시하며 보다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문화를 양산하며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을 억압해온 근대로부터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대담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기근대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과 경제개발, 그리고 문화강국이라는 사회 공동의 목표에서 탈이념화된 개인의 삶의 질로부터 비롯되는 정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심의나 검열 제도와 같은 공동체 규범들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창의력과 의견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술계 역시 6~70년대, 80년대, 90년대 작가에게 요구하는 바가 제각각 달랐으며 최근에는 그 변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라는 제도화된 테두리는 조형예술에 있어 이러한 변화된 시대의 가치를 실험하고 생성시키려는 젊은이들을 현장의 변화와 흐름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AA는 교육기관으로서 ‘체계 없음’과 ‘가치지향 없음’을 표방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작가들이 형성되는 물질순환의 법칙을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2) 현황분석

### 가. 내재성

#### (가) 공간과 시설

비닐하우스AA의 소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33-1번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수천 교수가 쾌척한 부지에 세워진 높이 4-5m 정도의 비닐하우스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이 공간을 접한 사람은 그 황량함과 소박함에 실망할 수도, 대안미술공간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시작한 공간이니만큼 기존 상식에 근거한 판에 박힌 공간이 아님에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비닐하우스로 이 공간을 시작한 이유에 대한 물음에 비닐하우스의 2004년 운영자였던 임상빈씨의 대답은 쿨한 편인데 “건축비와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닐하우스AA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작은 오솔길을 찾아 걸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 위치적으로 쉽게 사람이 찾아오기 힘든 이 공간은 인사동이나 청담동과의 거리만큼이나 기존 제도미술과의 변별성을 형성하고 있다. 반나절을 앉아 내다보아도 오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10여 채 가구가 고작인 근처 주민 3-4명뿐이지만, 이곳에서 작품 창작과 비평적 시선을 형성해가는 학생들에게는 세상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이고 아틀리에이며 스튜디오이다. 작물을 재배하기엔 적합한 비닐하우스이다 보니 여름에는 더위를 쫓아야 하고 겨울에는 장작을 때는 난로에 추위를 녹여야 한다. 이처럼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직접 익히게 되는 체험은 도시의 작가들에게 전혀 다른 경험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은 창작에 있어 다른 사유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된다. 하지만 이 공간의 지속성은 태생적 한계로 언제나 불안하다.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서 현행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농작물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역시 자치단체 신고를 통해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즉 비닐하우스AA는 그 속에서 농작물이 아니라, 새로운 조형예술의 가치를 재배하고 있지만 불법건축물로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진1. 비닐하우스AA 전경

## (나) 조직과 인력

이곳까지 찾아오는 품을 생각하면 회당 100,000원의 강사비가 거의 자원활동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이마저 공간운영비로 다시 적립해야하는, 이곳 강사진의 열의와 문화를 다르게 사유하는 능력은 어느 미술대학의 교수진이 보여주는 열의를 이미 넘어서 있다. 김월식, 백기영, 김지섭, 송은영 등등... 젊은 미술인 그룹 중에서도 새로운 조형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작품으로 미술지형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비닐하우스AA의 강사진이다. 그런데 사실 비닐하우스AA에서 강사들의 뚜렷한 역할은 별로 없다. 아니 가르치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보다 사물을 읽는 방식과 작품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강사들에게는 완성된 커리큘럼이 없다. 그저 학생들에게 몇 가지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고, 참여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화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화두를 끄집어내어 놓기도 한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된 워크숍은 어느 듯 수준 높은 학술포럼으로 변하게 된다. 제도미술교육과 달리 가르치는 강사보다 배우는 학생의 태도가 더 중요한 이런 학습문화가 형성되기까지 구성원들은 수많은 자기 안의 갈등을 넘어서야만 했을 것이란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디자인대학을 졸업한 사람, 유학을 준비하던 사람, 사진을 전공하던 사람 등 그래도 조형예술과 인접한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미술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 이곳 학생들의 면면은 강사들보다 더 흥미롭다. 신문에 난 기사 한 줄, 우연히 발견하고 들렀던 홈페이지나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으로 모여든 학생들은 다른 문화와 다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다르게 읽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의 장기적 전망을 내다보았을 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대안학교라고 이야기 했을 때,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와 학생이 가장 핵심인데,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러한 관계는 굳이 비닐하우스AA가 아니더라도 형성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AA라는 특정한 공간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 비닐하우스AA는 미술을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제도미술교육이 놓쳐온 중요한 지점을 선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공간이 이후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창의적 공유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비닐하우스AA라는 공간이 기여하는 바를 돌이켜보면서 기획과 위기관리능력, 그리고 경영마인드 등의 문화적 매개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작가로서의 개인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사진2. 비닐하우스AA 워크숍 모습

(다) 재정

비닐하우스AA의 재정은 전적으로 공적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다음세대재단 등의 지원을 통해 전시와 강좌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상근 인력의 인건비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설립주체이며 땅주인인 전수천 교수가 무상임대하고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자생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공간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운영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매달 1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공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 경비로도 부족하다. 이러한 재정적 상황은 ‘교육과 예술이 갖는 공공성’과 ‘사적행위로서의 작품활동과 공간의 사유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기도 한다. 예술과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공간에서 작품창작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과 사회의 긍정적 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실험하는 ‘공익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사적행위로서의 작품활동과 공간의 사유성이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이 전수천 교수의 사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과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사회와의 접촉면을 가지면서 건강한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구성원들 스스로 이러한 마인드와 태도를 적극적으로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닐하우스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송은영 선생은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 예술과 삶, 인간과 작가로서의 정체성 경계 등의 그 어정쩡한 중간자적인 입장(adapter)의 위상을 차지함으로써 해서 낮설고 기존의 가치에서 세련되지 못했지만, 그 지점의 엄청난 가능성을 비닐하우스AA의 장점으로 부각시켜, 찾아 가는 것이 아닌 비닐하우스AA로 불러들이는 영향력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005 비닐하우스AA 3쿼터를 시작하면서>, 비닐하우스AA 내부포럼 자료, 2005, 이원정 정리) 아래 표는 비닐하우스AA의 재정에 대한 진단을 위해 연간 운영비 규모를 공간의 운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추정 정리하였다.

구분	예 산 과 목	내 용	예 산(원)	비 고
세출	총 계		41,600,000	
	인 건 비	2명×700,000원×10개월	14,000,000	
	관 리 비	시설개보수 및 유지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4,400,000	2005년 불법시설물 단속 벌금 약 200만원
	사 업 비		23,200,000	
	강좌 운영	100,000원/1강좌×4강좌/1주×32주	12,800,000	
	전시 프로젝트 운영	4,000,000원/회×2회	8,000,000	전시도록제작 포함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200,000원/1회×12회	2,400,000	
세입	총 계		40,600,000	
	사 업 수 입		10,600,000	
	프로그램 운영 수입	100,000원/월*8개월*12인	9,600,000	
	기타 수입		1,000,000	
	보조금 및 후원금		30,000,000	
	국고보조금			
	기금 및 기업 후원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다음세대재단 등	24,000,000	
지방보조금	서울시			
개인 후원금	강사비 반환	6,000,000		

표 37. 비닐하우스AA 연간 운영비 개요



위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AA의 재정상황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상근인력의 인건비라는 게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강사들은 강사비를 다시 후원금으로 내 놓아야 겨우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춰지는 형편이다. 그러니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투자비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해보기란 어렵다.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다음세대재단의 지원금은 그나마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인 것이다.

(라) 프로그램

‘대안미술교과 프로그램’과 ‘오픈스튜디오 전시’, 그리고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은 비닐하우스 AA를 지탱하는 프로그램의 삼각구도이다. 대안미술교과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천, 철학과 비평의 영역을 넘나든다. 현대미술의 최근 동향을 살피는 강의로부터 비닐하우스AA 커뮤니티의 미학적 담론이 만들어지고, 드로잉 강의는 단순 밑그림을 의미하는 작업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세계를 포착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된다. 또한 비닐하우스의 프로그램은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으로서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말하고 싶고, 하고 싶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예술적 상상이 자연스럽게 발아되고 표현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	교과내용	시간	장소	강사
09.03(토)	2005년 2쿼터 전체 모임 : 2쿼터를 시작하며 앞서 이루어진 쿼터의 전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쿼터의 진행 방향을 강사와 참여자들이 모여 모색한다.	10:00~13:00	비닐하우스	전체모임
09.10(토)	송은영 드로잉 워크숍 / 즉흥드로잉	10:00~15:00	비닐하우스	송은영
09.14(수)	VAA참여자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모임	17:00	외부모임	전체모임
09.24(토)		14:00~17:00	비닐하우스	백기영
10.01(토)	기획으로서의 미술	14:00~17:00	비닐하우스	김지섭
10.08(토)				김월식
10.15(토)	드로잉	10:00~13:00	비닐하우스	송은영
10.22(토)		14:00~17:00	비닐하우스	백기영
10.29(토)		14:00~18:00	비닐하우스	김월식
11.05(토)	기획으로서의 미술	14:00~17:00	비닐하우스	김지섭
11.12(토)	드로잉 / 전체포럼(3쿼터 포럼)	10:00~17:00	비닐하우스	송은영
11.19(토)		10:00~13:00	비닐하우스	백기영
11.26(토)		14:00~17:00	비닐하우스	김지섭
12.03(토)				김월식
12.10(토)	드로잉 / 전체 포럼	10:00~	비닐하우스	송은영
12.16(금)	비닐하우스 오픈 스튜디오		비닐하우스	
12.17(토)	비닐하우스 2005 3쿼터 전체 모임 비닐하우스는 무엇인가?		비닐하우스	
12.24(토)	비닐하우스 2005년 전체 마무리	18:00~	비닐하우스	

표 38. 비닐하우스AA 2005-2분기 강의 일정(9,10,11,12월)

‘오픈스튜디오와 전시’는 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실천하는 장이 된다. 첫 번째 전시 <밀물과 썰물-육지와 바다의 차이 : 대안미술학교 비닐하우스AA 학생展>(2003년12



월10일~16일)에서부터 두 번째 <식물읽기展>(2004년12월11일~22일), 세 번째 <씨알+CR(creative relationship)> (2005년06월29일~07월31일), 네 번째 <비닐하우스 포트폴리오 플러스(Protfolio+)>(2005년11월25일~12월03일)에 이르기까지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보여준 네 차례의 발표회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으로 무엇을 심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러왔는지 드러내고 평가받고 성찰하는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사진3. 비닐하우스AA 첫 번째 전시회 홍보물

공간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강생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다. 2004년부터 1기에 해당하는 3명의 학생들이 AA에서 프로젝트 실행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 참여토록 하는 이유는 공간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전문인력이 부재한 탓이 가장 컸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다. 이러한 역설은 민주적 학교나 조직 만들기의 가장 기본은 공간의 이용자를 운영자로 참여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데에 기인한다.

비닐하우스AA의 ‘인턴쉽프로그램’은 이 공간이 창작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공간의 명칭처럼 Art Adapter가 성장하는 공간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비닐하우스AA의 공

## 나. 외부성

### (가)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신자유주의와 지식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전 지구적 문명사적 전환은 크게 두 가지 대응양상으로 나타나며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그 하나는 초국적 자본의 압도적 영향력에 빠르게 순응하는 시장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모형이다.

시장모형은 신자유주의와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빠르게 편승하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생산물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유무형의 모든 생산물은 이윤으로 환원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은 당연한 것이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조직 구조의 시스템화와 대량생산체제는 필연적인 것이다. 또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간 경쟁과 더불어 조직에 속한 개인들의 경쟁 풍토 또한 일상화된다. 이는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가치는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겨지고, ‘돈 되는’ 작품만이 조형의 시대정신인양 유행처럼 소비된다. 문화예술공간 역시 직접적으로 자본이 거래되는 공간만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부단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공동체모형은 자유주의에 근거한 개별성의 확대와 다양성의 확산을 지탱하는 신자유주의와

지식정보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양극화와 분절된 인격, 자본을 갖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의 도태 그리고 소통의 단절 등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 평화, 생명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다. 생태공동체와 교육공동체, 장애우공동체에서부터 문화예술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느리지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과 지역을 새롭게 바꿔내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이미 경쟁에 기반을 둔 자본의 질서로 구조화된 주류 공간과 제도로부터 벗어나서 대안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실험하면서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시장모형을 지탱하는 신자유주의든, “Think globally”하고 “Act locally”하면서 공동체모형을 지지하는 풀뿌리연대든, 이러한 흐름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지구시민이 등장하였으며 새로운 전자정부의 가능성을 밝혀 놓았다. 더 나아가 동서간 이념의 경계는 구소련이나 베를린 장벽과 함께 붕괴되었으며,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두었고, 초국적 다국적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고 세계시민사회단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동일한 의제를 따로 또 같이 실현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모형이든 공동체모형이든 ‘세계화’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계화가 각 지역과 각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해치고 그리하여 다양성을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시장모형과 공동체모형이 화해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소통’의 네트워크가 튼튼해질수록 네트워크 외부와의 경계 또한 뚜렷해지게 되며, 내외부간 긴장과 대립이 조성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양 모형 모두 서로가 지향하는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재미난 일을 기획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매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 성, 직업, 국경, 인종의 경계를 가로지르되 동시에 고유한 문화가 꽃피우고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미술교육 비닐하우스AA는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공동체모형을 지향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현재로선 시장모형에 가깝다. 그리고 세계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흐름에 대해 시장모형을 지향하는 다른 경쟁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닐하우스AA가 생존할 확률은 ‘0’에 가깝다.

## (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대안미술학교를 지향해온 비닐하우스AA로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활동에 대한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 다음세대재단의 지원금은 비닐하우스AA가 중심을 두고 있는 교육활동보다는 작품전시활동에 맞춰져 있어, 비닐하우스AA로서는 공간의 목적사업과 기금성격에 맞는 외부활동 사이에 간극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정책’으로서 비닐하우스AA의 교육적 역량에 따라 공적 기금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3월에는 대안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물론 중·고등학교까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현재 대학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작가 과정으로서의 교육방법을 갖추고 있는 비닐하우스AA로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야흐로 평생교육과 유비쿼터스 교육의 시대는 나이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전망으로서 삼을 수 있다면 보다 더 풍부한 관계망에 근거한 대안적 미술 교육을 실험하고 실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과 제도부문에 있어 비닐하우스AA에 기회는 이뿐만이 아니다. 퍼포먼스 그룹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예술인회관 점거와 경기문화재단의 창작촌 활성화지원사업과 포럼 등 문화예술시설로서의 창작공간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담론 형성은 졸업과 동시에 창작을 위한 변변한 스튜디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고 마는 작가를 양성하는 제도미술교육의 한계를 넘어 작가로서 작품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예비작가 인턴쉽 공간으로서의 비닐하우스AA의 지향에 비취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조직내부	
	강점	약점
조직 및 인력	전문예술가들이 강사진으로 포진	전문경영자의 부재와 경영마인드 부족 소유자와 경영자의 역할 관계가 불투명함
비전	대안적 시각예술학교	장기적 공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망의 부재
재정	외부펀딩능력 있음	자체자금조달능력 없음
시설	자연적 환경이 좋고, 비닐하우스라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제시함	불법건축시설에 해당하고, 강풍과 폭염에 약함.
프로그램	체험과 실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구성	학습자들의 몰입과 전념을 동기화하는 프로그램 부재
홍보	유명예술가들의 포진과 새로운 공간개념 제시로 미술계에 홍보됨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낮고, 문화공간의 대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임팩트가 약함.
대 지역관계		지역 교류 전무함
교류협력	문화예술계 내 다양한 인력 풀과 자원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타 문화예술촌이나 해당 자치단체, 인접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전무함.
	조직외부	
	기회	위험
중앙·지방정부 문화정책	창작공간에 대한 담론확산과 문화예술교육의 법제화	
지원시스템	경기문화재단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등	연속 수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법·제도	2005년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통과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 통과	불법건축시설물 단속에 무방비로 노출, 신고가 접수되면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사회문화환경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경험을 가지려는 평생학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지리와 환경	신흥 개발지구로 변모하는 중	참여 학습자들뿐 아니라 방문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위치함.

표 39. 비닐하우스AA 조직경영기법적 분석

관점 구분	비닐하우스AA 분석
예술제도	- 대안미술교육공간 Alternative Public Zone - 체계화 되지 못한 비평, 창작, 전시, 교육의 복합공간 - 사적 소유 공간
문화예술생태계	- 예비 작가들의 서식처로서의 역할 - 자생성과 지속가능성 없음 -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는 매개자의 부재
예술사회학	- 탈지역성과 정치성 - 생산과 향유로 이분화된 근대적 기획공간의 경계 탈피 - 사회적 지원시설로서의 공공성의 부족

표 40. 비닐하우스AA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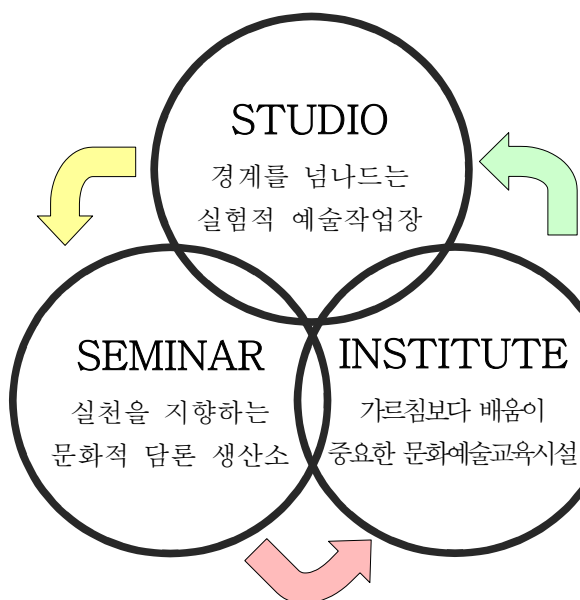
## (2)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비닐하우스AA의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내재성으로서의 공간과 시설, 조직과 인력, 재정,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상황과 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외부성으로서의 한국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담론의 변화와 정책 및 제도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분석과 의미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로 하자. 활성화방안은 비닐하우스AA의 설립자이며 공간제공자인 전수천 교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깊숙이 참여해온 작가이면서 전시기획자겸 평론가인 백기영, 그윽미술공간의 운영자이면서 비닐하우스AA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김지섭, 그리고 송은영, 유승덕, 양정수씨와 연석 회의(2006년 1월~2월 / 총4회)를 통해 마련하였다. 또한 이 계획에 대해서는 2004~2005년 비닐하우스AA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 정리하였다.

### 1) 전망

#### 예술성의 접합 공간(Art Adaptor) / 창의성의 공유 공간(Creative Commons)

비닐하우스AA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daptor’였다. 비제도권 예술교육을 통한 제도권 미술의 경계넘기와 예술적 시도의 ‘접합’은 비닐하우스AA가 여전히 추구해 나가야할 철학적 바탕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비닐하우스AA가 제도권의 규율과 위계를 넘어서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경계없음’과 ‘시스템없음’이 문화적 생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공간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철학과 삶의 태도가 함께 상존해야만 한다. 각기 다른 경험치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공통된 실천행위를 위해 만난 시스템화되지 않은 공간이 갖는 최대의 강점은 예술적 사조나 예술기법이 아니라 바로 서로가 서로의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예술을 제도 내로 접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토마스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지식의 계보가 공고한 기존의 아카데미 시스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AA의 철학을 실현케 하는 문화가 될 것이다. ‘접합’의 철학과 ‘공유’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공간 운영의 전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강사와 근현대 미술운동의 사적 흐름과 미학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이를 작품창작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시설’과 ‘작업장’이 공존하면서, 이러한 학습과 작품생산활동을 적절히 평가하고 예술의 진보성과 사회성에 관한 의미를 생산하는 담론 생산소로서의 세미나가 적절히 상보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비닐하우스AA는 공간이 전망하는 바대로 “0에서 1과 2을 개발하여新品种을 개량 창출하고 신천지로의 비상을 꿈꾸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생산스튜디오”로서의 “기존의 회화형식 시스템을 벗어나 상상 가능한 모든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대안미술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비닐하우스AA의 전망과 성격

2) 학습원리와 목표

스스로 / 참여를 통해 / 경계 위에서 / 관계를 맺으며 / 작업함으로써 배운다.

비닐하우스AA가 비제도적 학교로서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기존 아카데미 체제에 익숙한 사람에서부터 미술이나 예술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기존의 아카데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형식실험의 엄격함과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무관심 등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며, ‘미술대학, 화랑, 큐레이터, 전문매체, 평론가 등으로 구획된 미술계라는 제도적 틀’이 가진 장벽을 비닐하우스AA라는 열린 틈새를 통해 진입해보려는 사람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사회와 바로 맞닿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대학’을 비켜서 있긴 하지만, 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는 고등교육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AA에 참여하는 이들은 비닐하우스AA에 ‘대안미술대학’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대학입시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학교체제에서 중등교육(고등학교까지를 일컫는다)을 마친 이들은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학습에 있어 수동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 12년간을 교사나 학원강사가 가르쳐주는 지식을 받아 적고 밀줄 쳐서 암기하여 시험치고 난 후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수동적 신체로 길들여진 것이다. 교육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늘날의 학교는 200여 년 전 프러시아에서부터 출발한 국가주도의 국민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보고 있다. 산업사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근대의 학교들은 국가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포드식 대량생산 체제의 공장 형태로 지어져 평가와 규율을 통해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이러한 근대학교의 전통이 21세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교과, 특히 미술교과에 있어서는 도우(A.W.DOW)나 치첵(F.CIZEK) 등의 존듀이(John Dewey)로부터 출발한 학습자 중심의 미술교육이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효율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근대 학교체제 내에서 대량교육방식으로 흡수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습자 각각의 개별성과 창의성에 근거하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니라 규모가 문제 Size matters”라는 이야기가 새로운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규모의 문제에 있어 비닐하우스AA는 이미 태생적으로 근대학교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문제는 비닐하우스AA에서 작업자로 새롭게 활동하려는 이들은 이미 근대학교에서 길들여진 수동적 학습태도를 가진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쟁적이고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 ‘구별’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 훈련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작업능력과 더불어 근대적 기획에 길들여진 이들이 진입 이후 단기간 내에 비닐하우스AA가 전망하듯이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롭고 진취적인 담론과 작품을 생산하는 후기근대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화적 소통능력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획이 비닐하우스AA의 학습원리로 작동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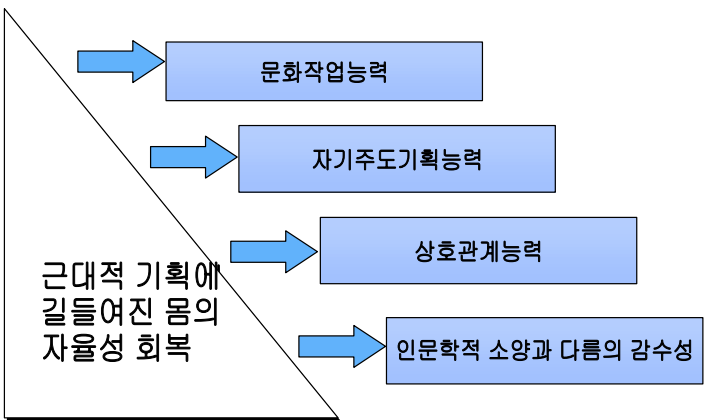


그림 5. 비닐하우스AA의 학습원리와 목표

### 3) 조직운영

조직(組織, organization)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나가는 체계”라면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집단”이다. 공동체의 경우 구성된 상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주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삶터로서의 마을 단위로 조성되고 운영된다면, 조직은 개인의 삶과의 ‘관계성’보다는 “서로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보다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효율성’과 관련된다. 비닐하우스AA의 조직 운영 형태는 현재로서는 조직적이지도 공동체적이지도 않다.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공동의 목적과 이루려는 바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개개인들이 그 목적을 위해 기능적 역할을 나눠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유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삶터와 모임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의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제도학교를 부정하면서 태어난 대안적 미술학교라는 특성상 기존 학교조직으로서의 비전을 갖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로서의 비전 또한 당장 갖춘다는 것도 힘들다. 비닐하우스AA의 운영방식은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도학교의 체제처럼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위계화되지 않고, 학생들이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전락하지 않으며, 공동체가 갖는 폐쇄성과 무거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다. 조직의 운영주체를 비닐하우스AA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팀과 프로젝트 기획 진행을 담당하는 프로젝트팀, 그리고 조직의 각종 문화와 약속을 논의하는 ‘자치포럼’으로 두고, 각 단위의 대표와 비닐하우스AA의 운영위원들이 참가하여 각 팀에서 검토 논의되거나 팀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해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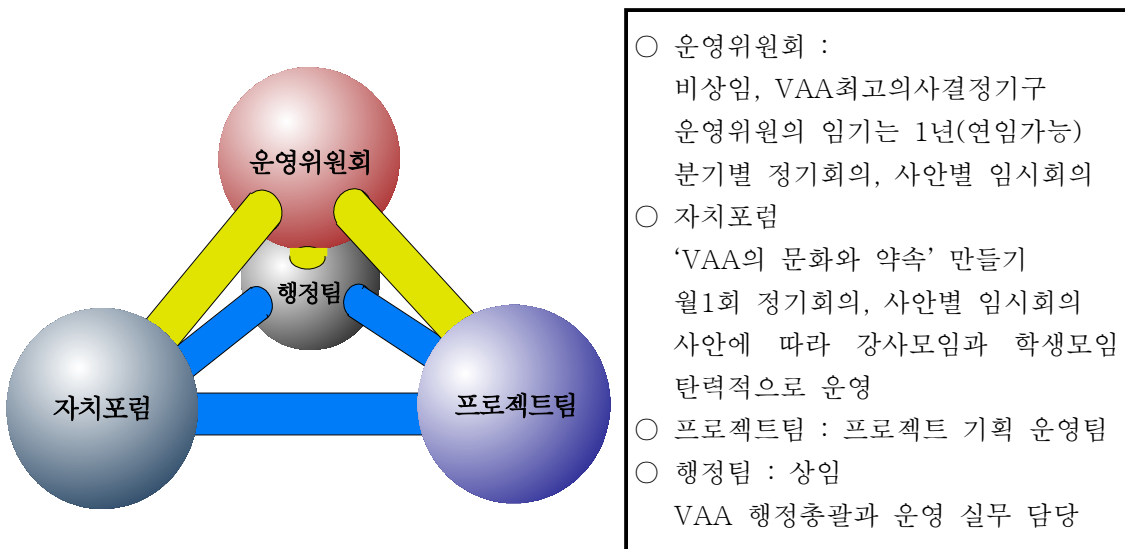


그림 6. 비닐하우스AA 조직운영구조도

### 4) 재정

재원의 다양화와 안정화



앞서도 밝혔듯이 비닐하우스AA의 재정은 전적으로 공적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사업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하우스AA의 안정적 운영은 이러한 기금 의존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재원을 다각화하여 비닐하우스AA를 운영하는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안정화시켜야만 한다. 현 비닐하우스AA의 운영구조 상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재원으로는 먼저 수업료가 있을 것이다. 현재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수업료를 한 학기 400만원 내외가 되는 대학 등록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커리큘럼의 질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야 한다. 퍼주기식의 강좌운영은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화와 참여도에도 좋지 않다. 물론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수업료를 받는 데는 법적 문제가 있다. 이를 기부금 형태로 전환하여 받는 것도 하나의 운영방식일 것이다. 다음으로 후원기금이 있다. 공간이 갖는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 후원자들을 고정화시켜 가야 한다. 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후원금을 다양화하고, 후원자 100명을 모집하면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유일한 재원인 공공기금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강사의 인건비와 공공프로젝트의 사업비, 그리고 각종 재료비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해야 한다. 끝으로 후기근대의 새로운 학습공간으로서의 비닐하우스AA에 걸맞는 일과 학습이 분리되지 않는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이를 사업수익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근대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분리되고,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시대와 잘 노는게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이분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AA의 프로젝트 또한 학습자와 생산자가 분리되지 않는 프로젝트로 기획 될 수 있다. 운영자들이 각종 기업프로젝트와 시민사회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과정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각종 재원과 용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원	용처
후원기금	상근인력의 활동비, 시설 및 기자재 개보수비(상근2인/월300만원 규모)
공공기금	프로젝트와 커리큘럼 운영비(기획자, 강사 인건비, 사업비 등)
수업료(기부금)	공간유지비용(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월100만원 규모)
수익사업	수익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강사비, 공간재창출비 등)

표 41. 비닐하우스AA 재원구분과 용처

### 5) 공간

유목성Nomadic & 가변성Flexible & 축진성Cultivate & 거주성inhabitable

비닐하우스AA의 공간적 특징은 비닐하우스라는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 임시로 지어지는 VINYL Compound라는 공식 명칭의 화학적 재료를 사용하는 설치물이라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우스HOUSE라는 ‘거주성’과 임시라는 ‘유목성’, 비닐이라는 ‘가변성’, 그리고 농작물의 재배라는 ‘축진성’이 바로 그것인데, 비닐하우스AA가 이러한 공간의 기획에서 작가적 직감으로부터 출발한 공간의 성격을 충실히 현재의 의미로 재구성화 한다면, 우리사회 내 독특한 미술창작공간이자 예비작가들의 산실이자 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출발하는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가. 작품으로서의 작업공간 모델 창출

비닐하우스AA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불과하다. 농작물 재배용 설치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견고함을 비켜서는 것이 예술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닐하우스AA는 그동안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새로운 소재와 대상, 그리고 개념의 제시를 통해 비켜서거나 넘어선 제도의 견고함을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을 통해 제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생태를 파괴하는 회복 불가능한 각종 개발을 통해 공간을 사유화 영토화하는 영토주의 ‘territorialism’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천적 사례를 이 사회에 제시할 수도 있다. 이는 작품으로서의 작업공간의 모델을 창조하는 것인데, 현재 조성된 공간을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 해석하면서 새롭게 조성해간다면 ‘불법’이라는 제도적 제약과 공간에 대한 예술적 개입으로서의 비닐하우스AA가 추구하는 ‘실험성’과 ‘창의성’을 공간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비닐하우스AA와 유사한 공간적 개념을 제시하는 ‘작품으로서의 작업공간’의 여러 사례들이다.



사진4.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도된 다양한 작품으로서의 공간들

나. 움직이는 작업공간 기획

비닐하우스AA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33-1번지이다. 하지만 공간이 가진 ‘유목적 특성’을 살린다면, 비닐하우스AA의 소재는 ‘어디일 수’도 있다. 접었다가 펴면 그곳이 작업장이 되고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이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사회 곳곳의 공공적 영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문화예술향수기획 확대’와 ‘공공예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움직이는 작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

성'과 '창의성', 그리고 '건강한 비판정신의 회복'을 추구해온 비닐하우스AA의 철학을 공간을 통해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문화예술적 움직임들이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시도들을 비닐하우스라는 움직이는 작업공간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영국 런던의 선창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트리트니 부두에 위치한 컨테이너시티(Container City)처럼 몇 개의 작은 아플리에를 연결하여 큰 작업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런 용도로 기획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운영해볼 수도 있다.



사진5. 영국 런던의 선창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트리트니 부두에 위치한 컨테이너시티Container City, <http://www.containercity.com>



사진6. 이동용 학습장 예시 :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는 몇 동의 몽골텐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동용 작업장 또는 학습장이 될 수 있다.

#### 6)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실험성과 창의성을 위한 무 체계의 체계 / 상호간섭과 영향을 위한 열림

비닐하우스AA의 설립의 목표와 전망의 기반은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예비작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의 편제와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서도 공간운영의 원칙이나 조직구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실험성', '창의성', 그리고 '건강한 비판정신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시스템화하려는 충동'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혼동되는 무간섭'계일 것이다. 체계 없음은 불안을 초래한다.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체계화하려는 충동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단절과 배제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구현되어 가던 근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충동이 일정 정도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수많은 시스템들이 단절되고 서로를 배제시켜가는 후기 근대에 있어서 이러한 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은 불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창의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일상의 약속과 문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당연한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 그리고 예술은 '천재'이고, 그리하여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던 시대 또한 지났음을 인식해야 한다. 천재성과 독창성은 더 이상 인류가 공진화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근대말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단절과 배제의 시대에 인류의 영속성과 공진화에 도움이 되는 예술의 '창의성'과 '실험성'을 여전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적극 간섭하고, 상대의 간섭을 위해 자신을 열어두어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것이 '상호간섭과 영향을 위한 열림'이다. 이를 위해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운영

가. 주니어 : 자율적 몸만들기와 감수성 트레이닝 / 기획·위기관리·상호관계 학습  
 -> 필수, 프로젝트 형태는 스스로 기획

나. 시니어 : 자기기획전 프로젝트

※ 주니어 시니어 공통 교육과정 : 인문학(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인문학적 접근)과 문화작업  
 -> 2006년은 '소록도 프로젝트'와 '모델하우스 프로젝트' 운영

나. 교육과정의 평가

가. 평가방법 : 학기 초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 학기 말 포트폴리오 발표회

나. 평가범위 : 공동프로젝트 / 졸업프로젝트(개인작품전프로젝트)

다. 평가주체 : 자치포럼을 통한 상호평가와 운영위원회 내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

라. 평가척도 : pass/non-pass

7) 비닐하우스AA의 제도로서의 문화예술계 내 포지셔닝

우리나라의 미술제도는 작가양성시스템과 작품유통시스템으로 나뉜다. 작가양성은 각종 미술관련 학원과 아카데미 시스템의 대학,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예비작가들이 데뷔하는 화랑과 각종 경연대회나 공모대회로 이어진다. 그리고 작품유통시스템은 작품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와 화랑 및 미술관, 홍보되고 기록되고 평가하는 언론과 평론, 그리고 이를 향유하고 구매하는 향유자와 콜렉터로 나뉘어져 있다. 최근에는 미술품 경매시장이 등장하여 화랑의 역할을 나눠 갖기도 한다. 물론 작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레지던시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로서의 경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술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미술계의 구조상 비닐하우스AA의 경우, 작가양성시스템으로서의 미술관련 학원과 대학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 잡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 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들과 비닐하우스AA가 제도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술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공간의 대외적 포지셔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입시학원	×
문화예술교육시설	☆
시민사회문화센터	▲
대안학교	◎
평생교육시설	△
전문작가 스튜디오	○

(좌로부터 추천순 : ☆, ◎, ○, ▲, △, ×)

표 42. 예비작가양성시스템 내 비닐하우스AA의 포지셔닝

비닐하우스AA는 예비작가양성시스템 외 “창작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문화진흥의 기반공간 활성화”이라는 측면의 예술인 교류시설과 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비닐하우스AA는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당장의 재정적 운영을 위해 공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괴리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칫 정체성의 혼동을 겪으면서 전망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지금껏 전망과 조직, 재정, 공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으로부터 비닐하우스AA가 요청받고 있는 역할 내 포지셔닝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주	유형	내용	포지션
문화예술 교육	a.예비작가 양성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 지망생을 위한 전문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발표회 개최	100%
	b.문화예술 교양교육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또는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체험 또는 향수프로그램 운영	●
작품창작	c.지역예술 창작	‘지역’이라는 ‘장소’를 창작활동의 캔버스 또는 무대로 삼아 전통적 시공간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창작으로서의 지역예술 활동	●
	d.사적작품의 질적 성장	작가로서의 작품수준의 향상과 간섭 없는 자극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내밀한 사적공간으로 활용	●
작업교류	e.국내외 예술인 교류	국내외 문화예술인이 창작촌을 기반으로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작업이나 워크숍 등을 통한 예술교류활동 전개	●
	f.작업실 교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작업실이 프로그램, 인력, 시설 면에서 연계하여 개최하는 강좌, 워크숍, 축제,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해 상호 상승 관계를 도모하는 문화예술활동	●

표 43. 비닐하우스AA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역할 중 비닐하우스의 포지셔닝

## 2.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공간 - 아름다움만들기

### (1) 모델분석

#### 1) 일반현황

가평군 가평읍 개곡2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움 만들기’는 90년대 초반 문을 닫은 폐교를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대로변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산간벽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쪽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마을에 위치해 있다. 개곡리 전체는 약 1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개곡2리는 토착민이 3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외지에서 들어와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펜션의 경우, 아름다움 만들기가 처음 입주할 당시(2000년 경)에 3개정도 밖에 없었으나 2003년에 급증하여 현재 4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많은 토착민들이 외지로 나간 상태이고, 주민들 대부분의 자식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40-50대가 되어도 마을에서는 청년 층에 끼는 형편이라고 한다. 마을의 주 생계수단은 농사와 목축이지만 토지의 절대량이나 구조상 기업농은 어려운 상태로 주로 계단식 농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당 농사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아 생태적인 느낌을 많이 주지만, 마을입구에 있는 규석 채취공장과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펜션으로 인해, 그 전보다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아름다움 만들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그 이전까지는 분교로 사용되던 작은 학교였던 곳으로 90년대 초반 폐교 후 권영환씨가 2000년경 입주하기 전까지 버려져있던 공간이었다. 장애인 공동체를 생각하며 여러 부지를 물색 중, 가격과 크기, 입지조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한 곳이라 판단되어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입주당시에는 교사건물이 있어서 임시로 사용하였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개축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시 건물을 지은 상태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교사가 있던 상단 지대와 운동장이 자리하고 있는 하단 지대 이렇게 2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숙소와 전시장, 교육장이 있고 숙소 뒤쪽의 산비탈 쪽으로 소규모이지만 유기농 체험공간(무, 배추, 고추 등)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아름다움 만들기라는 장애인 예술공동체를 처음 구상한 것은 85년 감전사고로 권영환씨가 장애인이 된 이후라고 한다. 사고로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는 상태였고, 사회문제나 통일문제, 빈민문제 등 장애인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으나 감전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많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예술, 장애인과 지역, 예술과 지역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구상을 하던 차에 ‘아름다움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조직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 2) 목표 및 비전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의 조직 목표와 비전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권영환씨가 명시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권영환씨의 구술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조직분석이라는 연구차원의 목적과 이

차적으로는 아름다움 만들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 목표와 비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축은 첫째, 장애인 공동체 둘째, 예술공동체, 셋째, 생태공동체로서, 이 세 가지 축의 유기적인 결합형태로서의 ‘아름다움 만들기’가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이자 과정으로서의 조직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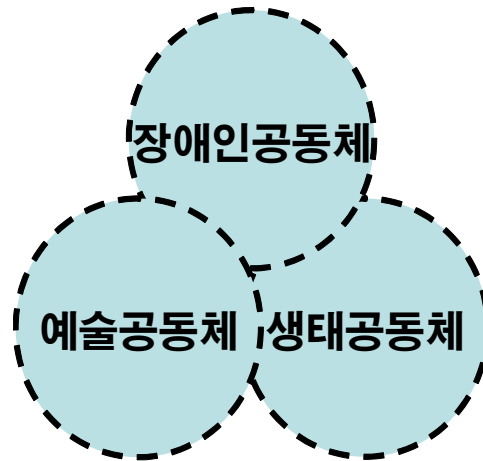


그림 7. 아름다움만들기 조직목표구조1

이들 세 가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 만들기’는 장애인 시설개념이 아닌 그룹홈(Group Home)의 형태로서 소수의 장애인 공동체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이전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갖는 ‘시설’, ‘수용’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생계를 장애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소공동체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절대 시설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룹홈으로 가야한다. 마포에 있는 쉼터처럼 아파트 한 채에 3개방, 1방에 2명씩, 5명에 한사람씩 복지사 배정, 그룹홈을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 문제 연구소에서 주장했고 그중에 한명이 본인이다. 꽃동네나 복지관, 복지원처럼 몇 백 명씩 수용하는 시설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일 좋은 복지 는 한 가정이 장애인 한명을 책임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궁극의 복지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는 5-6명 정도 10명이 안 넘어가게, 식구들이 같이, 식구들 냄새나게 살아가야 한다. 수용개념을 벗어나서, 시설개념을 벗어나서 그룹홈의 형태로 가야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예술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 만들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서예와 천연염색을 통한 예술공동체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예술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 만들기’에서 ‘예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치료수단으로서의 예술, 놀이로서의 예술, 관계방식으로서의 예술, 자활수단으로서의 예술 등 다면적인 성격으로서의 예술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권영환씨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직업교육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탐색교육을 시키고 있다. 복지관도 별 방법이 없다. 세상을 좀 바라보고 건강하게 폭넓게 어떤 밀폐된 공간...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미술작품, 천연염색,, 모자이크 하면서, 여기서 프로그램 좀 하고 있다. 판매도 괜찮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보살핌이 없이는 불가능한 애들이다. 그런데 그 보살핌이 그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귀찮아하지 않는 보람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작품활동을 하게 한다. 일반인들도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같이 애들하고 작업하고 놀고... 황토 흙 가지고 장난하고... 그런데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식구가 매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오면 그런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 만들기’의 예술관은 때로는 예술을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술의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을 비예술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예술의 다면적인 성격을 언급하면서 이런 시각을 조심스럽게 거부한다.

창작촌포럼 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다. 순수미술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순수예술하고 현장성을 갖는 운동적인 시각을 가지는 예술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하는 분이 있었다. 운동하기 위해서 예술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부정하길래, 그건 아니다. 저분하고 우리하고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림보고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딱 일 안하고 그것만 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아니냐... 또 내 글씨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이라면, 시장에서 팔리려면, 아름답고, 멋있고, 작품성이 나와야 팔릴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작품이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 하지 말자...이렇게 얘기했다. 참여, 순수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겪은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다.

셋째, 생태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 만들기’는 유기농법과 마을자원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통한 생태마을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 만들기’가 위치한 개곡 2리의 지역특성상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역민의 부(副)의 축적과 생태적인 국토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유기농법을 통해 지역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마을의 주요 자원인 마을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을하천을 이용해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녹색연합을 통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생태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는 유기농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각종 유기농 관련 강연이나 강의 등에 참여시키려는 노력과 유기농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유기농생산 인증절차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논농사나 채소재배 뿐만 아니라 유기농 양계업도 구상중인데, 마을 노인께 적극적으로 권유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마을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규석 채취공장과 펜션의 무분별한 확장과 이용실태를 교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규석 채취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펜션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해 마을주민들과 펜션업자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안적 이용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자연부락에 들어가서 그 부락 전체 주민을 공동체화 시키는 것... 개인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그런 느낌... 그쪽을 생각하고 있다. 그 관계 속에서의 생산물, 그러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것... 일반적인 시장 상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오고갈 수 있는 상품... 그 모델이 과천 신대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 동네를 퍼머스쿨이라고 한다. 농촌생활 공동체... 한살림이나, 생협이 농산물을 공급해주라고 해도 공급해줄 농산물이 없다. 왜, 직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도시 생협 소비자들과... 도시민들이 농촌에 일손 돕기 위해서 1번 올 때는 방해가 된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올 때는 자기 할 일을 찾는다. 자기 것을 찾아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진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동네에다 계속 물어보아서, 콩 씨 뿌릴 때, 모내기 할 때, 애들하고 같이 와서 일을 돕는다. 일종의 주말 농장처럼...그리고 생산하면 다 가져간다. 요즘에 고추 같은 것도 박스도 몇 박스씩... 요즘 택배 문화가 발달해서....가져가서 회원들과 나눠 먹는다. 이것은 조레나 규범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움 만들기’의 조직목표 또는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비전은 중요성 측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 만들기’와 지역간, ‘아름다움 만들기’와 대(對)사회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위상학적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아름다움 만들기’가 설정하고 있는 조직목표 또는 비전을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서, 장애인공동체 < 예술공동체 < 생태공동체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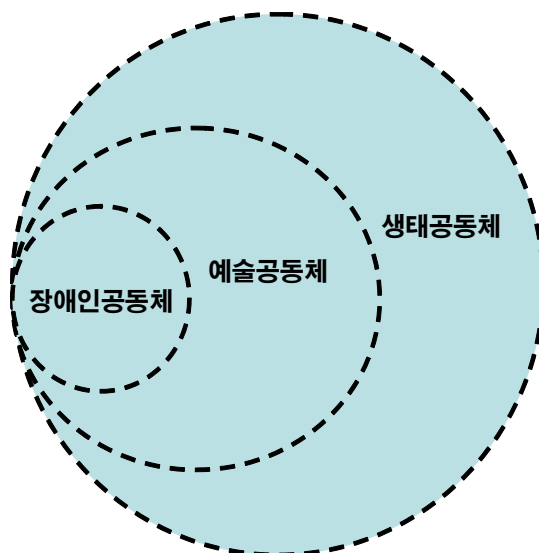


그림 8. 아름다움만들기 조직목표 구조2

우선 장애인공동체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부모, 교사, 협력단체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는 단위로써 앞서 언급했던 그룹홈의 형태로 조직화되면서 장애인복지의 대안적 성격을 가지는 공동체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터한 활동은 그 속성상 어느 정도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공동체로서의 폐쇄적 성격은 '예술'을 매개로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장애인(일반인)과의 사회관계의 지평을 넓히려는 개방적 속성에 의해 보완된다고 할 수 있다. 치료와 놀이, 관계와 소통, 창작과 향유의 예술의 다면적 속성은 장애인 본인과 부모, 관련자뿐 아니라, 지역민과 대(對)사회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예술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 만들기'의 중요한 성격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한편 생태공동체로서의 비전은 '아름다움 만들기'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장애인공동체나 예술공동체가 가지는 국지적 성격을 벗어나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 개념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과 도시, 자연과 인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사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출된 비전으로서, 끼리끼리의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를 넘어서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자연학교 '물꼬', '간디'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그곳의 창설자들이 우리 대안학교 팀들이다. 나는 대안학교를 하면 장애우 예술학교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사서 만들자라고 얘기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동네로 들어가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기존의 문화를 발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따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지 그것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 마을 주민으로 융화되어있다. 이곳이 마치 정거장처럼 마을 어르신들이 오다가다 꼭 들렀다가 가신다.

### 3) 조직 및 인력

'아름다움 만들기'의 공식적인 인력구성은 권영환씨와 부인인 이해화씨 두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움 만들기'의 공식적인 멤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곳의 장애인 학생의 어머니인 박효선씨가 있다. 박효선씨의 경우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장애인 아이들을 데려오고 수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분의 경우 미술교육과 미술치료프로그램을 다른 단체에서도 진행하면서 '아름다움 만들기'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전에는 박효선씨 외에도 상근자가 몇 명 더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그만 둔 상태라고 한다.

나하고 부인, 그리고 상주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는데(박선생 - 승진이 엄마), 3-4군데 돌아다니면서 장애인 아이들 데리고 온다. 일주일에 3-4번 정도. 승진이가 졸업을 했다. 인강고등학교. 졸업 후 복지관으로 가야하는데, 복지관에 안 보내고 5명 정도를...여기서 직업교육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탐색교육을 시키고 있다. 복지관도 별 방법이 없다. 세상을 좀 바라보고 건강하게 폭넓게 어떤 밀폐된 공간,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그래서 미술작품, 천연염색,, 모자이크 하면서, 여기서 프로그램 좀 하고 있다.

‘아름다움 만들기’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전체적인 운영과 문서작업, 교육업무, 행사진행, 유기농업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중 구체적으로 손으로 섬세하게 해야 하는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권영환씨가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권영환씨가 본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서 컴퓨터작업을 통한 서류작업을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서 천연염색과 관련한 이론적 강의와 농업과 관련한 일의 일부분을 맡고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는 형태로 업무가 분할되어 있다. 서예작업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오른 손으로 배웠는데, 사고 이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후 왼손으로 붓글씨를 다시 배우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왼쪽 손 또한 사고 후유증으로 불편한 상태이므로 다시 서예를 배우는 과정은 보통 사람이 왼손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부인인 이해화씨의 경우는 서예활동은 하지 않고 천연염색과 관련된 실습을 주로 담당하는 형태로 아름다움 만들기 전체차원의 일을 꾸려나가면서 천연염색 파트 강의와 문서작업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지만 충원되는 인력의 마인드를 중시함으로써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페퍼링하고 기획하고... 지금은 이선생(부인)이 다 감당하고 있는데.. 아름다움 만들기 꾸려나가지, 자기 천연염색 파트 꾸려나가지.. 힘들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력은 없으니까... 자원봉사도 계속 와야 일이 되는데, 처음 와서 설명해주고 일 하려고 하면.. 참 갑갑하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이선생하고 밤샘하고...그런 형편이다.

현재까지 몇 번의 행사에 필요한 인력은 거의 자원봉사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 2005년의 행사 모두 동네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도와주었는데, 준비과정과 프로그램 진행과정 등을 모두 새마을부녀회나 이장부부 내외,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행사 진행 중 필요한 전시나 공연 등의 인력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형성된 여러 개의 단체들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인력의 충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거절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름다움 만들기’와 관련해 기획이나 문서작업만을 전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귀농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예정으로 노동도 같이하고 삶도 같이하는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한다면 같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거절한다. 그런데 재정을 감당 못하니까, 대신 여기서 닭을 키워라, 무공해로 사료먹이지 말고 쌀겨, 곡물 먹여서 닭을 키워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협을 통해서 공급을 책임져준다 이렇게 말한다. 귀농시각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같이 활동할 수 있다. 그 때는 노동도 같이하고 삶도 같이하고, 삶도 같이 한다는 것은 먹거리부터 같이 한다. 가족 같은 개념으로... 그렇지만 여기 와서 도와준다, 프로그램을 같이한다. 페퍼링한다.. 기획해준다.. 그런 사람은 싫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 4) 재정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의 재정상황은 거의 모든 예술단체들이 그러하듯이 안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개곡리에 등지를 틀 때 초기자금으로 1억2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초창기만에도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초기 자금은 이전에 있던 교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서 교육청에 철거를 요청한 후 다시 건물을 짓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다고 한다. 현재 있는 건물 중에는 나중에 문광부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증축한 건물이라고 한다. 또한 3-4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어 부채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약 1억 정도)로서 이자만 월 1백정도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부터 프로그램 수입이 조금씩 생기면서 나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자 분기도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개인 돈이 1억 2천 가지고 들어왔는데... 집짓는데 다 들어갔고... 그 이후로 생긴 건데...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애초의 생각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염색이고 작품활동이고, 프로그램... 그랬는데, 직접 겪어보니 그렇지 못했다. 아무것도 못하고 수입 없이 살다보니 돈 구하러 다니러 세월 다 보냈다. 처음에 현장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주민들 다 설득해낼 수 있겠지...하고 생각했다. 당장에 주민들 친환경농업 하겠지, 장애인들 몇 들어가는 거 반대 안하겠지, 그런데 딱 부딪힌거죠. 현장조사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것 아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교실이 2년 동안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다. 집 지으라, 주민들하고 술 마시고 관계 개선하러, 초상, 잔치 다 다닐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세월 보내느냐고 경제적으로 안 좋고, 뭐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와중에 재정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아름다움 만들기'가 법인 등록이 안 된 상태이어서 개인적인 부채로 충당 중인데, 앞으로 법인형태를 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발전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의 주 수입원은 권영환씨의 개인적인 붓글씨 작품 판매와 각종 단체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염색은 본격적인 전시나 판매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여서 수입원으로서의 비중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학습프로그램의 경우는 재료와 노동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가장 큰 수익은... 붓글씨 작품판매... 학습프로그램은 재료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중이 적다. 염색 작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수입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프로포즈가 들어왔다. 기독교방송국 로비에서 한번 장터를 열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꽤 길다.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이들과 수강생들에게 작품을 내라...그래야 한다. 그래서 현재 끌여가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렇지 앞으로 재정적인 전망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측면이 제일 어렵기는 하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시회를 했었다. 전시회를 할 때, 천연염색은 없었고, 천연염색은 돈 들여서 배웠고... 전에 전시회를 하면 비용 빼고 4-5천정도 수익이 남았다. 그 돈도 돈이지만, 전시회 과정에서 작품구매 의뢰가 들어온다. 그것도 꽤 된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 6년간 전시회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러나 권영환씨는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는 차차 작품전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 방송국에서 붓글씨와 천연염색 전시회를 제안받은 상태로서 현실적으로 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돈은 앞으로 갚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그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부채가 2억 정도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고 본다.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면 사람이 모여든다.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살면서 당신들 이일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같이하자... (외부에서 보기에선 지원금으로 개인 빚 갚았다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처음에 개인 돈이 1억2천 가지고 들어 왔는데... 집짓는데 다 들어갔고... 그 이후로 생긴 건데... 그리고 그냥 주라는 거 아니다... 작품으로나 뭐 그런 걸로 하고 싶지 여기 후원회는 만들고 싶지 않다... 붓글씨나 천연염색 등 작품으로 하고 싶다...

재정과 관련한 사항은 예술작품과 교육에서만 사고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아름다움 만들기’는 생태공동체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의 하나는 유기농 닭을 키우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 닭의 키우는 것은 유기농 배추나 무 재배와 더불어 자연체험 학습의 효과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중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닭을 키우는 것도 단순히 ‘아름다움 만들기’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이 과정에서도 관철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을 노인 분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과 연락을 취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마을 전체의 부(副)와 공동체라는 성격을 끊임없이 사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름다움 만들기 차원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 있다. 재정적으로 필요해서 닭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몇 마리 안 되지만, 올해 600마리를 주문해 왔다. 방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를 크게 해서 기존의 닭장과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공간 말고 근처에 부지를 빌려 왔다. 지금 공간은 100마리정도, 애들에게 보이기 위한 공간이고 근처 산 밑에 땅을 빌려 왔다. 그리고 그 공간의 관리는... 마을의 노인한분한테 얘기해 왔다. 농사지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동네 분들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 5) 시설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가평교육청 소유로서 매년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다시 맺는 형태로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간 임대비용은 약 170만원 정도인데 부지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여타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단체들의 폐교 임대비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권영환씨에 의하면 부지가 전체 1000평 정도로 시가로는 약 8천만 원 정도한다고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아름다움 만들기’의 시설 구조는 상·하로 나뉜 구조 중 상단지역에는 권영환씨와 부인 이해화씨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고, 전에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하단지역의 구석으로 건물 2개동을 연결한 상태로 전시장과 교육장, 작업장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년 행사 때 필요해서 몽골천막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다. ‘아름다움 만들기’의 건물들은 모두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단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시멘트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토담으로 지은 건물이라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적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난방의 경우도 환경을 생각해서 가스보일러나 석유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땀감의 경우는 목재현장에서 쓰고 남은 부스러기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하루 밤 묵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방바닥은 따뜻하지만 우풍이 세서 전반적으로 공기는 차가운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점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무를 태는 방식은 난방 시스템은 난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경험을 상당히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불을 땀 때면 삼삼오오 아이들이 모여들어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하단 공간의 교육장과 전시장 및 작업장 공간은 전체적으로 폐목재와 신(新)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공간으로서 친환경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도 난방의 문제는 존재하는데, 권영환씨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겨울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 만들기’차원에서는 난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난방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교육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점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 또한 가평의제 21 차원에서 인근 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 있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제안 받은 상태여서, 이후에 난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난방은 원래 하지 않았는데... 여름엔 프로그램하기 좋은데..... 이번에 난방을 할 일이 생겼다. 방과후 학교를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가평, 마장, 목동 초등학교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이것은 연중이다. 그래서 난방이 필요하다. 우리 프로그램만 하면 난방이 필요 없다.

부지 임대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영환씨의 말에 따르면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것은 ‘아름다움 만들기’와 교육청과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름다움 만들기’가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이고 지역이미지나 지역발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쫓겨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평교육청에서는 부지를 인수하라는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개인한테는 교육청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움 만들기’를 법인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적인 성격을 더 많이 담보하면서 재정적인 측면과 사업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구상중이라고 한다.

여기는 1년에 한번씩 계약한다.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고 본다. 계속연장해서, 1년씩 연장하는 것은 거기에서 원하는 건데, 임대 목적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교육청과 내가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그런데 서류에 언제까지 임대를 원하는가 하는 항목이 있는데, 10년이라고 적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쫓겨날 위험은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본다. 계약 단위를 몇 년씩 할 필요는 굳이 없다. 교육청에서는 나보고 인수하라고 한다.

## 6) 운영 프로그램

‘아름다움 만들기’에서 별이고 있는 활동들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는 포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격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이는 ‘아름다움 만들기’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도 연결된 것으로서 크게 예술공동체 차원의 활동과 장애인공동체 차원의 활동 그리고 생태공동체 차원의 활동들이 존재한다. 이는 ‘아름다움 만들기’가 장애인이나 대중 또는 지역민과 관계 맺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모든 활동들이 사고되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프로그램이라고 칭할 수 있는 활동들을 먼저 살펴보면 천연염색과 두부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가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장애인, 일반인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들은 주중프로그램과 주말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천연염색의 경우는 예술과 교육, 생태와 수익적 측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도출된 프로그램으로서 권영환씨의 서예작품 판매와 더불어 ‘아름다움 만들기’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었다. 한편 두부 만들기과 천연비누 만들기의 경우는 가을에 진행되는 행사에 배치되었던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듯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가을의 행사 때 전시와 간단한 체험의 형태로 다시 재현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름다움 만들기’에서는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아름다움 만들기’와 관계 맺는 방식이 틀리기도 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대가 틀리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는 달리 자활이나 치료 또는 놀이와 복지차원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업의 성격보다는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려한다는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경우 천과 염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장애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아름다움 만들기’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특수학교 애들은 프로그램 하는데 돈 써야 한다. 일반 애들은 수업하러 오지만, 특수학교 애들은 놀러오는 거다. 다른 사람은 배우러 오니까 시간 맞춰서 황토염색 가르쳐주면 끝나지만, 이 애들은 하루 종일 노니까, 천과 황토 계속주어야 한다. 그래서 비용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도 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맞추면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자식들도 그런데.. 재정적

으로 마음이 또 아프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서 말없이 감당해주어야 한다.

한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프로그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르 중에는 목공과 도자기공예가 있다. 권영환씨에 따르면 목공예와 도자기공예를 하시는 분 2분이 마을에 입주하여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목공예와 도자기공예를 프로그램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름다움 만들기’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많은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부분적으로는 장애인들과 관련된 것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생태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유기농교육과 답사, 재배, 마을하천이용, 펜션, 유기농유통, 주말농장, 장애인 운동회 등의 활동들이 존재(보충)

올해부터 지역의 가평, 마장, 목동 초등학교 학생들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비영리타아소 개념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서 가평 청정의제 21과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다. 주로 생활이 빈곤해서 도시의 부모들과 같이 못살고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대개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져 일반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방과후에는 방치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재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 일부와 몇몇 뜻있는 사람이 담당할 것이고 재정적인 부분은 각종 후원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 7) 홍보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맥을 통한 소극적 홍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는 2005년 5월에 만들어져 기간 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커뮤니티 형성이라든가 정보의 제공, 소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도 검색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구체적으로 ‘아름다움 만들기’의 웹사이트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접근하기조차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차원에서의 홍보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는 ‘아름다움 만들기’가 몇 번 다루어진 적이 있어서 이 곳을 찾는 사람들 중의 적지 않은 수가 이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마이 뉴스기사가 2회정도 게재된 상태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몇 번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한편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도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해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아름다움 만들기’에 대한 소개가 몇몇 있었다.

오프라인 측면에서의 홍보 전략은 주로 ‘아름다움 만들기’의 개인적인 인맥들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당생협이나 YMCA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들레 학교, 관공서 같은 곳에는 주요행사를 알리는 전단지 정도를 배포하면 이를 통한 구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권영환씨에 따르면 일년에 한번 치루는 행사를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사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의 집대성으로서의 행사측면과 일상적인 활동들을 행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리는 홍보의 한 방편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3일간 행사한 거... 재작년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왔는데, 작년에는 여기는 꼭 가야한다....이러면서 왔다. 올해는 여기 행사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행사는 연중행사다... 농민들과 함께 하고... 농민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자식을 생각해서 여기는 돌아다녀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가 가장 큰 마케팅이다. 포스터 안내문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 배달, 팔당생협, 민들레 학교, 춘천, 남양주 ymca, 관공서 등..

## 8) 대(對)지역 관계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은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개곡 2리 정도를 지역공동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과 일반인 들 중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개념에 포함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개곡2리의 지역민 30가구 정도와 40가구 정도의 펜션 운영자들이 포함된다. 현재는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권영환씨의 개인사에 대한 오해와 ‘아름다움 만들기’가 맺고 있는 외부와의 관계, 그리고 장애인들을 마을에 끌어들이는 선입견과 특히 반공이데올로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여기 와서 제일 후회한 것이 뭐냐면... 여기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전에 내가 살았던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나 붓글씨 쓴다, 통일시 쓴다... 이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좁히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가평은 전쟁 기념비가 11개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빨갱이 아니냐... 이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고생한 이유다. 잘못했구나... 지금도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다. 내가 전체 동네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번 행사 때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은 서너 가구가 있다. 처음에 법적으로는 동네사람은 되었지만, 그 다음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 동네 분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계속 인사하고 찾아다니고....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영환씨의 개인적인 이력이 처음에 관계를 맺는데에 많은 장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번에 걸친 행사를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되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지자체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자체와도 처음에는 불편한 관계였으나 군수가 지난 행사에 다녀간 이후로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한다.

이 공간은 가평에 꼭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좋은 느낌을 갖고 갑니다. 정말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들어간 냄새도 안 나고, 자연적이고.. 앞으로 관계를 좋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

또한 대지역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펜션 운영자들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펜션과 ‘아름다움 만들기’, 펜션과 지역민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름다움 만들기’는 펜션 운영자들과 지역민과의 관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데, 지역의 생태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자칫 펜션 운영자들은 외지인으로서 마을의 생태를 파괴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소개와 경제적인 측면, 도시와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들어선 펜션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공동체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펜션 운영자들과의 관계와 펜션 운영에 따른 생태파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름다움 만들기’가 주축이 되어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펜션 운영과 마을의 대소사에 펜션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 그리고 집단적 차원에서의 펜션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펜션 운영자들과 지역민 모두에게 설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계곡의 펜션 때문에 물이 많이 더러워졌다. 돌들에 많은 이끼들이 끼기 시작했다. 세제와 기름 때문에... 여름에 기름이 개울에 둥둥 떠다닌다. 여기는 고동과 울겅이가 많다. 송사리 피라미 등등... 펜션 사람들도 많이 설득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소규모 펜션들을 연결시켜서 수련원 같은 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방 한 채, 교육시설 한 채, 세면장 한 채, 숙소 한 채 이런 식으로 연합해서 하려고 한다. 또한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가면 면세효과도 있다. 동네 분들한테 펜션들을 인수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그래도 남는 다, 그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지원도 받고... 다시 생태건축적인 건물을 지어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한다. 공동구매해서 한옥체험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 (2) 활성화 방안

‘아름다움 만들기’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우선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경영조직론적 분석에 의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조직내부	
	강점	약점
목표 및 비전	●장애인, 예술, 생태 공동체로서 종합적인 성격	●예술창작적 성격이 약함
조직 및 인력	●지역민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행정 및 사무전문 인력 부재
재정	●개인전시회를 통한 잠재적 재정확보 능력	●부채에 따른 재정적 압박
시설	●주거와 창작, 전시공간의 통합적 성격	●난방이 취약함 ●방문객을 위한 숙소 부재
운영 프로그램	●체험과 실습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적 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홍보	●대중매체의 호응과 대외 이미지가 좋음	●공격적인 홍보전략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
대(對) 지역관계	●지역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소수 지역민과의 관계가 불편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의 경감효과가 존재
네트워크	●오랜 사회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인력 풀과 자원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개인적인 인맥에 의존하는 경향 ●대(對) 예술계와의 소통이 소극적임
구분	조직외부	
	기회	위협
중앙·지방정부 문화정책	●창작공간에 대한 당론확산과 문화예술교육의 법제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분과 설립	
지원시스템	●경기문화재단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예술창작성격의 상대적 취약함으로 인한 공공지원의 축소 가능성 존재
법·제도	●2005년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통과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 통과	
사회문화환경	●체험과 실습을 원하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주말농장 체험욕구의 지속적인 증대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지속적인 인구공동화 현상
지리와 환경	●자연환경이 좋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존재 가능성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놀이공간 이용 가능성이 존재	●교통편 불편 ●펜션 및 규사 채석공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지속적인 증대

표 44. 아름다움만들기 조직경영기법적 분석

'아름다움 만들기'의 기존 위상 및 프로그램	'아름다움 만들기'의 위상 및 프로그램의 재설정 및 구체화	
	예술/장애인/생태 공동체의 복합공간	복합적 공간으로서의 균형적 이미지 구축
천연염색 창작/체험공간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간	●내부 창작인력과 대중의 예술체험의 명확한 경계설정 필요성 ●천연염색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전문화를 통한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체험공간으로서의 이미지제고 필요성 ●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적극적 연계 필요성

표 45. '아름다움 만들기'의 포지셔닝 매트릭스

분석표를 통해 조직내부의 강점과 약점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포지셔닝 매트릭스는 위의 분석표를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편으로는

조직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어떠한 요소가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위협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맞추어 조직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실천하는 것.

포지셔닝 매트릭스를 통한 이미지의 재구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적 요인들의 적극적 변화 시도 필요성

## 1) 목표 및 비전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는 장애인/예술/생태 공동체로서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지역내·외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관계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전의 복합적, 종합적 성격으로 인해 예술 '창작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다른 창작촌들과는 다르게 예술가들의 '집단성'부족, 기존 예술계와의 관계망의 부족, 일반인들을 위주로 한 예술체험적 성격의 프로그램에의 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체성은 '아름다움 만들기'가 추구하고 있는 개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외부의 시선에 맞추어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술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의 정당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움 만들기의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장애/예술/생태 공동체라는 각기 다른 층위들을 균형감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술 층위에 있어서의 창작과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생태 공동체라는 지향점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것이다.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해 보면, 첫째 '복합적 공간으로서의 균형적 이미지의 구축'과 둘째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체험 공간'으로서의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합적 공간으로서의 균형적 이미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유입, 장애인들의 창작능력 제고, 기존 예술계와의 관계망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체험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부의 창작활동과 외부의 예술체험과의 명확한 경계설정, 장르의 다변화와 전문화, 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적극적 연계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 2)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하여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의 적극적 유입'과 '행정·사무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가 지니고 있는 두가지 차원에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첫째, 앞서 언급했던 정체성과 관련하여 예술'창작'적 성격의 강화라는 측면과 둘째, 실질적인 행정·사무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유입함으로써 창작촌이라는 집단적 성격의 강화,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다변화, 기존의 서예와 천연염색과 새로운 장르의 결합을 통한 전시 및 판매

의 다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지역민의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일정정도 내부적인 인력의 부족을 메꾸어 나가고는 있으나 행정 및 사무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권영환씨가 기대하고 있는 귀농마인드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인력과 관련한 유연한 태도의 견지가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새로 유입되는 예술인에게 행정업무를 분담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복지사/문화예술활동가/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 지지자의 확보와 자원봉사 시스템의 확충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 3) 재정

현재 ‘아름다움 만들기’의 재무 상태는 ‘아름다움 만들기’를 운영하기 전에 몇 번의 서예전시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 고갈된지 오래인 상태로서 4-5년의 살림을 통해 많은 부채를 안고있는 실정이다. 원금 상환 및 이자부담이 큰 상태로서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예전시를 계획중이고 천연염색과 관련한 전시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다소 희망이 보이고 있음

재정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음. 첫째 작품의 전시/판매 수익, 둘째 문화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운용 수익, 셋째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시스템 활용. 재정상태의 호전은 위에서 언급한 조직 비전과 관련 다양한 전문예술인의 유입과 전문문화예술교육체험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됨. 첫째 작품 전시/판매와 관련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없을 정도의 소수인원, 행정·사무 인력의 부족에 따른 서예 창작활동의 절대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전시기회의 박탈, 이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복합적 전시/판매 수익 가능성 확보. 둘째,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 체험공간으로서의 이미지의 제고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점점 확대, 장애인과 일반인, 일반인과 기업연수 등의 차등적 수업료 책정을 통한 재무상태의 호전가능성 확보. 셋째 새로운 예술인의 유입을 통한 예술 ‘창작’ 집창촌으로서의 성격강화를 통한 지원의 정당성 확보. 더불어 고금리 부채의 저금리 부채로의 전환 모색. 법인화를 통한 부지의 무상임대 또는 무상이전 시도. 유기농 경작/주말체험농장에 따른 수입기반 확대.

### 4) 시설

시설의 경우, 주거와 창작, 전시공간의 통합적 성격으로 인해, 기존의 근대적인 공간개념을 탈피함으로써 창작과 수용의 점점 확대, 예술가와 대중의 친밀성 확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난방이 취약하고 숙박을 통한 장/단기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연수나 일반인 체험의 숙식제공을 위한 기숙사 마련 모색. 난방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통한 사계절 이용가능성 확대 모색 필요성. 법인화를 통한 시설의 영구 무상 임대/소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모색. 지역의 가정들을 민박으로 활용하거나 펜션과의 계약을 통해 자체내 숙박시설의 미비로 인한 한계점 극복 가능성.

### 5)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세가지 속성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음. 프로그램의 장르/성격/대상에 따른 구분. 체험과 실습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적 효과가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의 진행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다양한 예술인의 유입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교육 체험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필요성
- 천연염색의 예술적 성격의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노력
- 계절별, 시기별 프로그램의 확대 모색
- 장애인/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의 변별적 특성 확대 모색
- 창작과 체험 프로그램의 변별적 특성 확대 모색
- 대(對)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의 마련 모색
-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적극적 연계 모색

## 6) 홍보

- 홍보의 경우, 공격적인 홍보전략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몇몇 대중매체의 호응과 대외 이미지가 좋음.
-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의 구사 필요성
- 개인적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관(官)의 적극적 활용
- 포지셔닝 매트릭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시장세분화/표적시장선정/소구대상과 자원의 집중화 필요성
- 홈페이지의 적극적 활용

## 7) 대(對) 지역관계

- 대(對) 지역관계의 경우, 지역민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힘써온 결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소수 지역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존속하고 있음. 한편 '아름다움 만들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부지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 이외에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반감효과가 존재함.
-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호의도 제고
- 관(官)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및 호의도 제고 노력 필요성

## 8) 네트워크

- 네트워크의 경우, 오랜 사회경험을 통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대(對) 예술계와의 소통이 소극적임. 현재 창작촌 포럼을 계기로 소통의 계기를 확대하고 있으며, 폐교활용과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개인적 네트워크에서 탈피하여 네트워크의 다변화 노력 필요성
- 다른 창작촌과의 연계방안 모색
- 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생태·환경단체와의 적극적 네트워크 방안 모색
- 장애인 단체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활용

관점 구분	공간분석
예술제도	- 예술, 장애인, 생태 공동체의 복합적 공간 - 창작, 전시, 교육, 주거의 복합공간 - 예술제도의 한 형태로서, 지원과 경영의 대상으로 인지
문화예술생태계	- 창작촌과 지역주민의 공진화 및 협력 개념을 통한 창작촌과 주변의 상호발전 관계 - 생산 - 매개 - 향유라는 예술문화망의 복합적 공간 - 경험학습, 실천학습, 사회학습을 통한 암묵지의 형성과 대안적 교육시스템 확장
예술사회학	-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패턴의 변화에 따른 대(對) 사회와의 접점의 확대 - 생산과 향유, 주거와 창작공간, 예술과 생활의 이분화된 근대적 공간개념의 탈피 - 다른 문화영역과의 비교를 통한 포지셔닝 전략의 확인

표 46. 예술제도/생태계/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본 ‘아름다움 만들기’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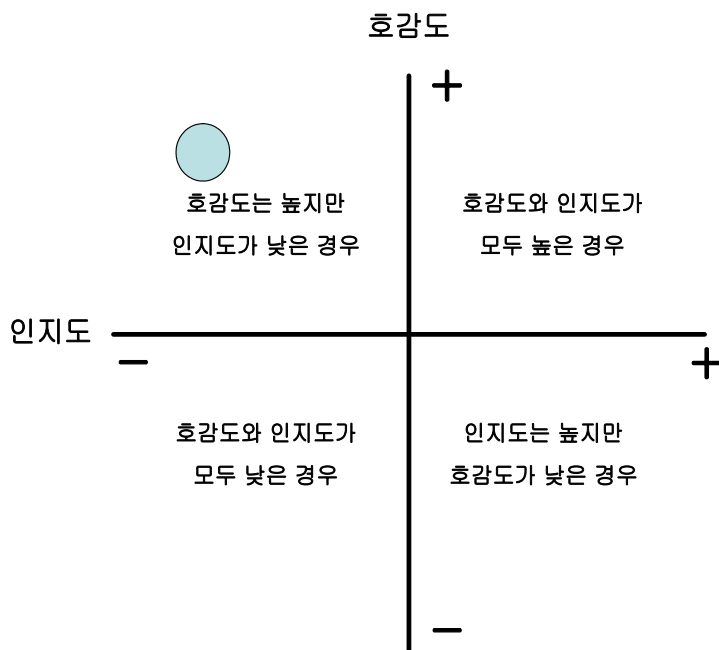


그림 9 ‘아름다움 만들기’의 호감도/인지도 매트릭스

### 3. 해외예술인 레지던시 공간-하제마을



사진7. 하제마을 전경1

하제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화가 마을과 달리 본격적인 의미에서 작가 공동체로서의 집단 창작촌, 창작 스튜디오 개념으로 마련된 공간이다. 국내에 창작촌 담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는 1995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233에 약 2000평(1.634 acre)의 부지에 마련된 여섯 동의 공간이 하제마을 출발이다. 1995년의 경우 작가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집단 예술인 마을을 형성한 사례들은 있지만 창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의미의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담론이 드물었다는 면에서 하제마을은 일정한 역사적인 성과 역시 축적해 오고 있는 창작촌이라 할 수 있다. 하제마을이 작가들에 의한 자생적인 공간이 아닌 이유는 제 3자 격인 예술 후원인이라 할 수 있는 약사 권창호 박사에 의해 작업 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집단 창작촌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형성된 최초의 '사립 창작스튜디오'라는 면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길지 않은 한국의 미술 창작촌의 발전과정에서 있어 다양한 시도와 모색을 통해 자생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아울러 국내 미술창작촌의 일정한 방향성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미술창작촌의 취약한 여러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더 드러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활발한 해외교류 모색에 주안점을 두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의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과 일정한 기대치 이상의 전망을 가지려 한다는 점, 다른 제약조건들과 공간적 입지조건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설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하제마을을 해외예술인 레지던시 공간으로 분류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 (1) 모델분석

##### 1) 비전과 전망

하제마을은 작가 공동체 특유의 비교적 느슨하고 자율적인 형태의 운영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후원자이기도 한 권창호 박사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도 무관하지 않다. 명문화된 규율과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 입주 작가들 간의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방향성과 원칙을 만들어가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권창호 박사의 경우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재정적 후원 이외에는 창작촌의 운영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고 있어 예술 후원에 있어 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런 면에서 하제마을의 운영원칙은 창작 공간이라는 기본 성격에 충실하면서 기본적인 현황의 공유와 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0여년의 역사에서 형성된 몇 가지 최소한의 원칙은 존



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일종의 약속에 가까운 암묵적인 관행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활동은 작가들에게 작업실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활성화를 꾀하려는 기본적인 활동이외에 작가세미나, 오픈스튜디오의 활동들이 있어왔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은 주변의 지역적인 특성상 거의 기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전문 창작활동에 주요 축을 두고 마을이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하계마을이 갖고 있는 일정한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창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좀더 본격적인 작가교류, 특히 해외 교류를 통해 입주 작가들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계마을의 일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하계마을의 공간을 좀더 많은 작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경우이며 해외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통한 상호교류에 현실적인 관심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계마을의 애초의 성격 자체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성격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 향후의 방향성과도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그 운영 초기 단계라 그 성과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향후 다양한 전망에 대해 기대를 가질 정도로 입주 작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일정한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계마을은 국내외의 특정한 사례나 모델을 염두에 둔 공간은 아니고 작가들의 자발적인 운영에 초점을 두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작촌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촌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스타일, 특정한 예술이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원칙만을 설정해오고 있으며 그때그때의 공간의 방향성의 경우 입주 작가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한 해외교류에 창작촌의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계마을의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은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소 소극적인 방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기회를 충분히 열어놓지 않고 있는 점이나 외부에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이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해외 레지던시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예산상의 한계 등이 본격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가로막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의 미흡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보자면 하계마을이 현재 특화된 방향으로 설정하려 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역시 자생적인 면모를 더 많이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하계마을의 특유의 성격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도 있다.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레지던시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보고, 운영에 있어 다른 레지던시 공간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방안, 전문 인력의 도입, 재정상의 지원 같은 것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현황분석

### 가. 내재성 분석

가) 공간 및 시설 분석



사진8. 하계마을 전경2

공장 부지를 개조하여 만든 하계마을의 경우 총면적은 2000평으로 제법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정리되고 있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6동의 건물이 있지만, 폐공장 부지, 창고 공간과 작업실 공간이 뒤섞인 상황이다. 건물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62-235(1465평방미터)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 60평( 김성남/김태준 작업실) 2층 약 50평 ( 김창겸/ 이필두 작업실), 62-39(1487 평방미터)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60평(홍순명/최홍선,곽경화 작업실) 약25평(김승영 작업실) 62-233(990평방미터)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 60평 ( 김창호/김미형 작업실/세미나실)이 자리잡고 있다.

처음부터 완비된 공간으로 출발한 경우가 아니라서 각각의 작업실 및 공용 공간, 마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힘을 합쳐 수리하고 정돈을 해오고 있다. 오히려 마을 가꾸기가 회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마을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 공동체의 유지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계마을의 경우 처음부터 완비된 준비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성격에 더 비중을 두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전문화된 공간의 경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간	세부내용
대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 62-235(1465평방 미터), 62-39(1487 평방미터) 62-233(990 평방미터), 62-234(1813평방미터)
건물	62-235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 60평( 김성남/ 김태준 작업실) 2층 약 50평 ( 김창겸/ 이필두 작업실), 62-39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 60평(홍순명/최홍선,곽경화 작업실) 약25평 (김승영 작업실), 62-233 지상의 건물 중 1층 약 60평 ( 김창호/김미형 작업실/세미나실)

표 47. 하계마을 공간구분

각각의 작업실의 경우 작가마다 모두 동일한 면적은 아니며 작가들이 알아서 공간을 개조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업실의 경우 넉넉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나 냉난방이나 제반 시설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주거를 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숙식은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작가들도 있다. 향후 최소한의 난방이나 샤워실 등의 시설 지원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작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공용공간으로는 세미나실과 외부 게스트 룸, 사무실 등이 있는데 이후 세미나실이나 자료실, 작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자재실이나 수장고실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별도의 전시공간이 있다면 더욱더 마을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실과 외부 게스트룸의 경우도 시설 보완 역시 요구되는데, 공용공간의 경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창작촌의 운영

을 위해 반드시 시설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부 게스트 룸의 경우 숙식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정리를 하자면 하계마을의 공간 및 시설의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자족적인 성격이 더 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하자면 초기 시설 투자라든가 시설 보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기적으로는 공용시설이나 작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내부에서 이런 시설 확충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후원이나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하계마을의 방향성에 따른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고려가 필수적이긴 하다.

#### 나) 인력 및 입주 작가들

하계마을의 경우 공간 운영을 위한 특별한 전문적인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을의 제반 운영은 입주 작가들의 회의를 통해 주로 결정하는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이거나 사안별로 특별 모임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웹 커뮤니티 (<http://cafe.daum.net/spacehajei>)의 운영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계기를 높게 해왔던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2005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전문 프로그래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2006년도 부터는 현재 사안별로 외부 기획자나 프로그래머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택씨와의 협조체계를 구축중이다. 이런 면에서 전문화된 기획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얼마간 회원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1995년 이래 하계 마을을 거쳐 갔거나 현재 입주해 있는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와 장르의 작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홍(서양화)-1996/6~1998/12, 김창호(동양화)-1996/5~현재, 최홍선, 광경화(도자기)-1996/7~현재, 정종산(조각)-1997/8~2000/1, 이병두(한국화)-1997/8~2000/12, 김동찬(기획)-1997/8~2000/1, 신범상(조각)-1998/5~1999/12, 유근택(한국화)-1999/2~2004/4, 이순중(설치/단기프로그램)-1999/10~2000/6, 홍순명(설치)-1999/7~현재, 김미형(설치)-1999/8~2005/5, 김성남(서양화)-2000/3~현재, 이필두(영상)-2001/1~현재, 김창겸(설치)-2004/7~현재, 전은숙, 김숙희(인턴프로그램)-2004/7~9, 차기울(설치/단기프로그램)-2004/9~2005/1, 유현미(조각/단기프로그램)-2004/11~2005/1 김태준(설치/초대작가)-2005/1~현재, 문수성(인턴 프로그램)-2005/6 ~현재, Alan van every(미국/단기프로그램)-2005/12~현재 등이다. 공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 현재는 김성남, 김승영, 김태준, 김창겸, 김창호, 이필두, 최홍선, 광경화, 홍순명의 작가들이 입주하고 있다.

작가 입주방식은 공개적인 홍보나 모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신규 입주 작가 선정의 경우 기존 입주 작가의 추천과 설립자와의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입주 작가를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지 않은데, 입주 작가들의 작업의 성취도만큼이나 개인적인 신뢰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담은 공식적인 선발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고,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라 보기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적 젊은 작가들의 입주에 우

선을 두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선정된 입주 작가들의 경우 명문화 된 입주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마다 설립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계마을의 이러한 입주 작가 선정의 과정은 자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작가들에게 입주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하계마을이 일반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과는 달리 거주에 기반을 둔 작가 공동체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입주의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다) 운영프로그램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작가들 세미나와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 ① 오픈스튜디오



사진9. 하계마을 프로그램 홍보 전경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오픈스튜디오의 경우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입주 작가들과 연관된 미술계 인사들을 초대하여 작업실을 개방하여 작품과 작가에 대한 소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일상화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고 행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세미나 형식을 통한 개별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행사 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조건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다 전략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공식적인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 역시 현재까지 두 번밖에 수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과의 교류는 인근지역이 공장지대로 지역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창작공간에 더 초점을 두려는 하계마을의 방향성 때문이다. 방학프로그램으로 주부들이나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이 회원들 내부에서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이런 면에서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기적인 작가들 세미나 프로그램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방향성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적인 조건상 그 전망은 많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범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세미나 프로그램

작가들 세미나 프로그램은 작가들마다 1년에 1회 정도 외부 미술전문가들과 관계자들 초빙하여 작품세계를 조명하려는 의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외부에 입주 작가들의 작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으로 예술 창작층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입주 작가들의 작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별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의 성격 역시 겸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미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작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향후 계속해서 모색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작촌의 일상화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의 경우 중요한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곧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더 적극적인인 홍보나 세미나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요청된다고 하겠다. 아래의 표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주요 세미나 활동 사항에 대한 기록이다.

사업명	사업기간(일시)	장소	비고
이필두 세미나	2005. 4. 12	갤러리 아트링크 (서울 인사동)	영상설치, 일반인과 전공학생 대상 50 명 참여
환경 조형 프로젝트	2005. 3. 26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및 하제마을 인근	식수 및 환경조경에 작가 30 명 참여
예비작가 육성 워크샵	2004. 12월 과 8월	하제마을 세미나실	대학 및 대학원생 40 명 참여
김창겸 오픈 스튜디오 유현미 초대 세미나	2004. 11. 21	하제마을 세미나실 및 작가 개인 스튜디오	작가와 일반인 70 명 참여 단기작가 프로그램 일환
오정일 초대 세미나	2004. 10. 17	하제마을 세미나실	작가와 일반인 대상 20 명 참여
인턴쉽 프로그램	2004. 7. 1 ~ 8. 30	하제마을 스튜디오	대학원 2 인 대상
홍순명, 김창호 세미나	2004. 7. 25	하제마을 세미나실	해외 스케치여행 영상보고 작가 및 일반인 20 명 참여
유근택, 이필두 세미나	2004. 4. 17	하제마을 세미나실	작가 대상 30 명 참여
환경 조형 프로젝트	2004. 4. 6 ~ 15	하제마을 스튜디오 및 기타 공간	구조 변경 및 환경 개선 사업
김미진 초대 세미나 (영은미술관 부관장)	2003. 11. 2	하제마을 세미나실	작가 및 일반인 대상 30 명 참여
김성남 세미나	2003. 5. 25	하제마을 세미나실	극단“초인”초대 연주 공연, 작가 및 일반인 대상 100 명 참여
최홍선 세미나	2003. 4. 12	작가 스튜디오	작가 및 일반인 대상 20 명 참여

표 48. 하제마을의 최근 3년간 주요 세미나 프로그램

### ③ 레지던시 프로그램

하제마을의 경우 향후 방향성의 설정에 있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

다. 이는 좀더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고립된 지역성을 극복하고 창작에 대한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해외교류의 경우 외국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이를 통한 상호교류에 비중을 두어 입주작가들의 해외 활동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현실적인 목적도 중요한 배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기간 공간이 필요한 국내외 작가에 개방되고 있는데 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한국에서의 전시준비를 앞둔 외국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지만 국내작가 역시 지원할 수 있다.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거주작가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초대된 작가나 기획자로 최대 입주기간은 18개월로 정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하려 하였고 2005년의 경우 일정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국내 작가들의 경우 공간이 빌 경우 전시를 위한 단기 입주 작가를 비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입주 작가들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의 경우 9월에 독일의 아사펜부르크 미술관 관장인 엘리자베스 씨와 하인스가 방문하여 머물면서 작가들의 작업을 둘러보고 2년 뒤 하제마을 작가들의 전시를 초청받았으며 2006년 8월 다시 방문하여 2007년의 전시 참여 작가와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2005년 10월에는 중국의 사천 미술대 중국화가 학장인 풍빈 교수와 바이하이 교수가 방문하여 중국의 현대 미술과 성도비엔날레, 특히 사천미술대학에서 운영하는 Tank Loft Art Center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소개받는 등, 향후 중국과의 교류의 가능성을 만든 상황이다. 하제마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은 비교적 그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입주 작가들의 활발한 해외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면에서 현재 입주 작가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향후 꾸준히 전개할 계획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게스트 룸을 운영하여 단기적으로 체류 가능한 국내의 해외작가들을 입주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중이다. 다음의 표는 하제마을에서 구분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의 내규이다.

프로그램 구분	운영 규칙
단기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기간 공간이 필요한 작가.</li> <li>- 단기 작가는 입주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한다.</li> <li>- 단기 작가를 추천한 기존 작가는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li> <li>- 단기 작가는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li> </ul>
초빙작가, 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거주 작가 (하제마을) 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초대된 작가나 기획자.</li> <li>- 입주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한다.</li> <li>- 프로그램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시 입주 작가 (운영위원) 의 토의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종료시킬 수 있다.</li> <li>- 이후의 의무는 단기작가와 동일하다.</li> </ul>
여유 공간 프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작가의 경우 사용기간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li> </ul>

램	-기존 거주 작가 중, 개인의 사정에 (개인전 준비, 작품 디스플레이 등.) 따라 공간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친다. -기존 거주 작가와 외부 작가와의 project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

표 49. 하제마을 레지던시 프로그램 구분

## 나. 외부성 분석

### 가)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

국내의 경우에 비한다면 해외의 경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일반화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미 일상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는 안정적인 창작여건의 제공보다는 문화교류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창작의욕의 고취와 이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설정되고 있는데, 초빙된 외국의 작가들과 국내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발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교류에 방향을 두고 있다. 미국 창작실 연합(The Alliance of Artist' Communities)나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레스 아티스트(RES ARTIST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 and Networks)가 대표적이다.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기획이나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여 실질적인 내용으로 전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네트워크화는 가장 신경 써야 할 현안이기도 하다. 하제마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본격적인 교류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성과를 국내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자극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나) 지리적 조건

하제마을의 경우 서울 외곽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자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 교통 상으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대중교통 상으로 서울에서 2시간 남짓한 거리이며 가까운 거리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도 상대적인 강점이라 하겠다. 다만 하제마을의 주변의 경우 공장지대, 농촌지대로 지역을 거점을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지역성의 측면에서 볼 때 취약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문화와 연계한 여타의 프로그램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문화시설로는 하제마을을 오는 길에 붉은 벽돌집의 흥원연수원이 있는데, 김수근 선생이 '공간'을 운영할 때 건축한 건물이며 지금은모기업에서 인수하여 연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원에서 팔학골로 올라오는 다리에서 공릉·순릉·영릉이 보이는데 공릉은 예종의 원비 장순 왕후(1445-1461), 순릉은 성종의 비인 공혜 왕후, 영릉은 사도세자의 이복형이며 정조의 양부인 진종과 왕비 효순 왕후의 릉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제마을까지는 20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한적한 시외의 풍경을 뒤로한 채 그런대로 산책을 할만한 거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 작가의 경우 이동의 편의를 생각할 때는 별도의 교통수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 다) 제도와 정책

하계마을의 경우 민간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기관과 같은 제도로서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의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해보았을 때 검토의 대상일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외부의 공공지원의 대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외부 지원 사업은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의 계획과 지원 사업 신청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창작촌 활성화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을 수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사업계획 역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더 체계화하고 그 공공성의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성과를 다양한 형태로 교류시키려는 노력 역시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문화예술시설로서의 창작공간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활발한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창작촌의 지원근거와 법률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 창작촌과 같은 문화예술시설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스튜디오’,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학습 공간’,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숙소와 전시관, 사무실’, ‘예술공연 전시나 문화행사장소 및 시설운영을 위한 아트샵’, 그리고 ‘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설치 또는 지원하는 방안들이 조례화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관련 사항들의 입안 및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최근 입법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역시 검토해볼 수 있다. 물론 하계마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시설’에 관한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지원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고려해본다면 하계마을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적 제도라 하겠다.

#### 조직경영방법론적 분석

하계마을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한계로 발생한 경우라 생각된다. 하지만 소극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지원과 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배타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기획 및 운영이 없었던 것은 그러한 전망 자체가 없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의 부재로 인한 것들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 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작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여러 한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시적이지만 외부의 전문 인력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의 성격을 특화시키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하려하고 있는데 향후의 발전 전망을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라 판단된다. 아래의 표는 하제마을의 조직경영기법 분석이다.

조직경영기법 분석		
구분	조직내부	
	S (강점)	W (약점)
목표 및 비전	*전문 예술 창작촌, 자생적 해외 레지던시 공간 *오랜 경험을 통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창작촌	지역기반이 취약,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미비
조직 및 인력	*입주작가들의 전문성 및 대내외적 활동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협의구조	*전문기획운영인력의 부재 *입주작가들이 직접 기획운영
재정	*후원자의 지속적인 지원(공간 및 기본 시설)	*후원자의 최소한의 지원, 개별 후원자의 지원에 의존. *회원들의 각출에 의존하는 소규모의 재원과 예산 운영
시설	*조용하고 쾌적한 입지조건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점 *기본적인 시설 구비(작업실 및 기초시설), 향후 발전가능성이 잠재	*최소한의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의 미비(공동 공간, 제작지원실 및 전시공간의 부재) *본격적인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미비
운영프로그램	*지속적인 세미나 프로그램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의욕적 기획운영	*최오픈 스튜디오를 비롯한 창작촌 특유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 소극적이고 자족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홍보	*국내최초의 사립창작촌으로 지명도가 있고 대외적 이미지 우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부재(대외홍보, 홈페이지, 홍보물의 부재)
대지역관계	*원만하고 무리없는 지역관계	*지역적인 조건상 적극적인 대지역관계설정의 어려움이 있음
네트워크	*입주작가들의 개인적 네트워크 우수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노력의 부재
구분	조직외부	
	O (기회요인)	T (위협요인)
중앙-지방정부분화정책	*창작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 *향후 기대되는 정책들과 연동된 발전 가능성	*마을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일정한 한계
지원시스템	*경기문화재단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지원(해외문화예술 교류포함)	*지역재단 및 공공문화예술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기타 지원 시스템의 부재
법제도	*법인화의 전환으로 체계적인 운영의 가능성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현실 법제도의 적용에 있어 한계 (현재 실효중인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
사회문화환경	*해외 레지던시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폭 *해외문화교류의 확대, 국내외 작가들의 관심의 확대.	*실질적인 해외 레지던시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 존재
지리와 환경	*전문창작활동을 위한 주변입지조건 및 환경이 우수,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대중교통 이용가능) *인근지역의 여러 창작 공간 및 창작촌의 형성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존재	*주변지역이 공장지대로 지역문화활동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 *향후 개발가능성으로 인한 난개발 및 지가상승의 가능성

표 50. 하제마을 조직경영기법적 분석

우선 강점으로는 첫째, 국내 최초의 사립 창작촌으로 대외적 지명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오랜 경험을 통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셋째, 조용하고 쾌적한 입지조건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점이 있다. 넷째,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시설 투자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후원자의 거리를 둔 지원으로 인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지리적인 접근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전문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입주 작가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창작촌이 무엇보다도 입주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셋째, 작업 공간 이외의 특별한 시설 투자가 없는 상황이다. 넷째, 체계적인 운영이 미비하고 창작촌 특유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다. 다섯째, 소규모의 재원과 예산으로 소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공개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미비 등 홍보를 위한 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현재로서는 개별 후원자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나 중앙 및 지자체 등 외부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점, 법적 제도 및 세제상의 혜택이 미비하다는 현실적인 약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여건상 지역을 위한 활동에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창작촌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의 증대와 연동된 발전 가능성이나 인근지역에 다수의 창작공간과의 네트워크 가능성이 발전가능성을 예감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입주성원 스스로가 특화된 방향성으로 설정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하계마을의 발전가능성의 가장 큰 이유로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의 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하계마을에 대한 분석이다.

관점 구분	공간분석
예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인의 전문적인 창작 진흥을 위한 공간</li> <li>- 자생적 사립 해외 레지던시 공간으로 공공 지원의 가능성이 많음</li> </ul>
문화예술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주도의 다양한 해외교류를 통한 미술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li> <li>-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으로 자생성의 계기가 큰 공간.</li> <li>- 작업실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술계 및 문화계의 다양한 소통의 기회확대 필요</li> <li>-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가 필요</li> <li>- 다양한 협력관계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li> </ul>
예술사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창작활동 이외의 지역문화의 주요 주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해야 할 것임. (지역문화예술교육 포함)</li> <li>- 지역을 비롯한 대사회적 접촉지대의 확대가 필요</li> <li>- 작가 커뮤니티 및 확대된 작업실 공간에 대한 확대된 인식공유가 요구됨</li> </ul>

표 51. 예술제도/생태계/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본 ‘하계마을’의 분석

## (2) 활성화 방안

하계마을은 비교적 오래된 역사를 통해 자생적인 창작촌 운영의 사례라는 면에서 평가될 만하나 국내의 다른 창작촌의 여건이 그러하듯이 많은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 창작촌 특유의 자율적 운영이 장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자족적이고 소극적인 운영에 그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고, 특히 향후 특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은 지원

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고 있다는 면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평가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제마을이 갖고 있는 일정한 역사성과 한국 내 자생적인 창작촌의 가능성이란 면에서 하나의 사례로 정리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가. 분석을 토대로 한 방향 설정

하제마을의 경우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이점이나 자율적인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재정지원, 시설투자 등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동시에 최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가 여러 가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면서 대내외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고, 창작촌 제반 운영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하제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토대로 하여 발전 방향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다.

- 가) 국내 최초의 본격 사립 창작촌이라는 지명도를 홍보의 주요방향성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 나) 창작활동의 여건이 우수하며 넓은 공간적인 입지조건을 강점으로 작용시켜야 할 것이다.
- 다) 제반조건과 지리적인 조건의 불리함을 프로그램 운영의 특화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 라) 창작 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하제마을 특유의 지속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대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향성 설정 및 인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 마)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축으로 해서 제반 운영에 있어 체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바) 다양한 후원과 지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효과적인 운영 모색이 필요하다.
- 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목적인 입주 작가의 다양한 교류에 있는 만큼 하제마을의 활동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요청된다.

이런 고려사항을 분석을 고려했을 때 하제마을이 향후 취해야할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본격적인 미술 창작공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다른 창작촌과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에 있어 특화된 장르에 집중된 본격 창작촌으로의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며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창작 스튜디오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작 활동 진작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 및 작가별 오픈 스튜디오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화를 통해 성과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창작촌의 기본적인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작활동의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투자 및 여건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

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나. 포지셔닝 전략 및 포지션 매트릭스 설정

하제마을의 경우 창작촌의 여러 가지 위상 중 입주 작가들에게 보다 나은 창작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하제마을에서의 입주가 작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는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보다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창작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모적인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정비 및 시스템 정비, 기본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특화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거주 작가들의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지향이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격적인 전문 미술 창작 공간 + 특화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류의 확대 + 작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의 운영

하제마을의 기존 위상 및 프로그램	위상 및 프로그램의 재설정 및 구체화	
자생적 미술 창작촌	본격적인 전문미술 창작공간	다른 창작촌과 구별되는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순수미술창작공간으로 특화시킨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공간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특화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자족적인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다른 공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제마을 특유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부족한 시설 및 인력, 및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 및 오픈 스튜디오	창작활성화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의 운영	기존의 세미나를 보다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자료화, 아울러 제반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표 52. 하제마을의 포지션 매트릭스

다. 단기/장기 전략안

가) 단기 전략안

시설 및 운영체계의 정비, 단기 홍보 전략의 설정 및 현실화, 자체 내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 및 체계화, 경기도 및 다른 후원단체의 좀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단기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 ① 국내외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공조체제 구축한다. 하제마을의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작가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의 개별 네트워크로 국제 교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 해외 레

지던시 공간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관련 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해외 레지던시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환프로그램들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교류를 위해 Res Arti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와 같은 기관에 가입하여 국제적 네트워킹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류와 관련하여 동남아등과의 네트워킹과 교류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실효성이 높게 기대된다. 단순히 국내 작가들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전문 인력, 기획자의 도입이 요구된다. 곧 객원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의 한시적 고용이 필요한 것이다. (재단 혹은 경기도내 전문 인력과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하계 마을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전문화된 기획인력의 영입과 이를 위한 노력은 해외레지던시로 특화된 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문제라 하겠다.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이나 홍보 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거주 작가 이외의 전문 인력의 영입은 하계마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항이다.

③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하계마을의 경우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로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영문, 국문 홈페이지의 개설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하계마을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와 아울러 하계마을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정리 작업도 요구된다. 이 작업은 하계마을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함과 아울러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외 홍보에 있어 근거가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온라인 활동의 경우 활동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홍보작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보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도든 하계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직까지 하계마을은 미술인들과 몇몇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계마을의 활동 자체가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끌어내야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있긴 하지만 관심 있는 미술인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나 후원홍보의 측면에서도 홍보의 문제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 인력의 도입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홍보용 보도자료나 팜플렛 등을 만들어 필요한 단위에 배포하고 일상적으로도 비치하여 마을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세미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별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작가 세미나 프로그램의 경우 창작 전문공간으로서의 하계마을의 성격을 보완해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작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창작의 동기와 회원들간의 예술적 소통을 제공해온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도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외부 평론가 및 큐레이터 등의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 이론가들의 초청은 세미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하계마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 공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홍보 방안과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외부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 강좌의 성격을 갖는 것도 물론이다. 별도의 노력을 통해 지역문화,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활동성과를 확대하여 이를 외부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기존의 공간 이외의 시설 및 공간의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하다.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공간에 대한 개보수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할 문제이겠지만 미디어 작업 지원실이나 자료실 등의 공간을 갖춰 보다 체계적인 창작촌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체 전시장 마련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체 전시장 마련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함과 아울러 다목적의 활용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창고형 전시공간 정도를 고민해볼 수 있다.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인접 공간인 고양스튜디오나 고양문화센터 내 미술관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장비 및 기술지원의 경우에도 인접한 다른 공간과 시설협조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⑥ 다양한 형태의 재정보호를 위한 후원,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하계마을은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의 후원을 위한 노력 이외에는 별다른 재정보호를 위한 노력이 많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전문 기획인력의 도입으로 해결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항이지만 단기 사업별로 후원, 협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협력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도 국제교류 항목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규모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⑦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 작가들의 홍보나 대외 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하계마을에 입주하여 작업 활동을 하는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단위와의 다양한 교류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 입주 작가들이 국내 미술계와 다양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레지던시가 단순히 작업 활동의 진작만을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작가들과의 국내 미술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교류활동 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⑧ 작가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마을단위의 아트페어나 작품 판매를 위한 노력 역시 고민해볼 수 있다. 하계마을의 경우 현재까지 작가들의 생존을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고 이를 작가들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을 단위로 한 미술품 유통에 대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기획 역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몇몇 시도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함께 고민해보는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내 창작촌과 연계하여 작품 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획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 나) 장기전략안

장기 전략의 경우 전폭적인 투자와 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향후의 전망을 고려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재단으로의 전환 역시 고민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계마을의 경우 개인후원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며 하계마을의 장기적인 전망이나 현실적인 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하계마을의 장기 전략의 수립은 향후의 전망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 형태의 후원을 통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마을의 전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냉정하게만 평가한다면 현재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우 소극적이고 자족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의 활동을 실험하고 평가하여 장기적인 전망에 관한 가능성의 타진이 필요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이를 위해 법률, 제도상의 체계적인 지원 모색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금이나 각종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이 이에 해당된다.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각종 단체나 기업의 후원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들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몇몇 가지적인 성과를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의 발전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자족적인 평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단위의 평가를 통해 좀더 공론화되어야 하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좀더 적극적인 마을의 운영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사실 하계마을의 장기 전략이나 향후의 전망에 대한 논의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활동도 작가창작 활동의 강화라는 다소 자족적인 공간에 머물렀고, 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와 맞물린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특성화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모와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부기관이나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좀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세부 제안들

구분	실행계획안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전문 인력배치(직원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li> <li>* 외부 평론가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체계 구축</li> </ul>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 및 외부 레지던시 공간 개보수(공동작업실, 자료실, 외부인 숙소 마련)</li> <li>* 자체 전시 공간 마련, 창고형 전시공간 마련(대안으로 인접한 고양스튜디오와 연계안 모색)</li> <li>* 향후 전망을 고려한 작업실 증개축</li> </ul>
기획 및 운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확대방안 모색</li> <li>* 작가상호간 크리틱 프로그램의 일상화.</li> <li>* 오픈스튜디오의 현실적 기획 및 운영</li> <li>* 차별화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속적인 운영</li> <li>* 별도의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미술대학이나 예비 작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역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추진)</li> <li>* 공공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특히, 해외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li> <li>* 작품 유통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마련(창작촌 버전의 아트페어 프로그램 기획)</li> <li>* 하제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모색</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홈페이지 개설(영, 한)</li> <li>*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li> <li>* 하제마을을 알릴수 있는 공식 리플렛 및 자료집의 제작 및 배포(영, 한)</li> <li>* 경기도내 근접지역의 창작촌 투어 맵 제작, 투어프로그램의 운영</li> <li>* 마을 진입로에 표지판 및 사인물 설치(버스정류장에도 사인물이 필요함)</li> <li>* 경기도내 창작촌 공조체계를 통한 홍보방안 모색</li> <li>* 다양한 미디어와의 접촉지점의 확대를 통한 공세적인 홍보의 노력이 요청됨</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의 공조체계구축</li> <li>* 인접 문화공간과의 시설 협조 체계구축</li> <li>*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li> </ul>

표 53. 하제마을의 발전방안



#### 4. 작업실 밀집형 공간 - 일산오픈스튜디오

2005년 4회를 지나 2006년 5회 째를 맞는 “일산오픈스튜디오”는 고양시 일산 서구 구산동과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두 개의 동네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창작촌 컨설팅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연구 모 단위를 두 지역으로 나누었고, 이 중 밀집성과 커뮤니티 형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구산동 작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먼저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영역에서 두 지역은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성석동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구산동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산동에 사는 작가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기에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하는 “일산 오픈 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 거주 자체를 나타내는 <구산동 작가 마을>을 쓰기로 한다.

현황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내재적 측면 분석을 통해서 작가들의 주관적 측면과 의지적 측면을 다루었고, 외재적 측면 분석에서 <구산동 작가 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문화예술적 환경, 법제도적 환경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 (1) 모델분석

###### 1) 현황 분석

내재적 측면의 분석은 직접 인터뷰, 간담회, 메일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구체적인 화자는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양적으로 다수성보다는 차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드러내려고 했다. 한 작가 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해안이 있다면 그 의견이 전체의 생각보다 더 앞설 수도 정확할 수도 있기에 여러 생각들의 갈래를 드러내려고 했다.

###### 가. 공간 및 환경 및 시설

###### 가) 위치

인사동이나 홍대가 30분~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작가 마을이 이미 형성된 양평, 가평은 인사동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먼 편이다. 그에 비해 일산 구산동이나 성석동은 서울에 가깝고, 인사동과 가까워서 작가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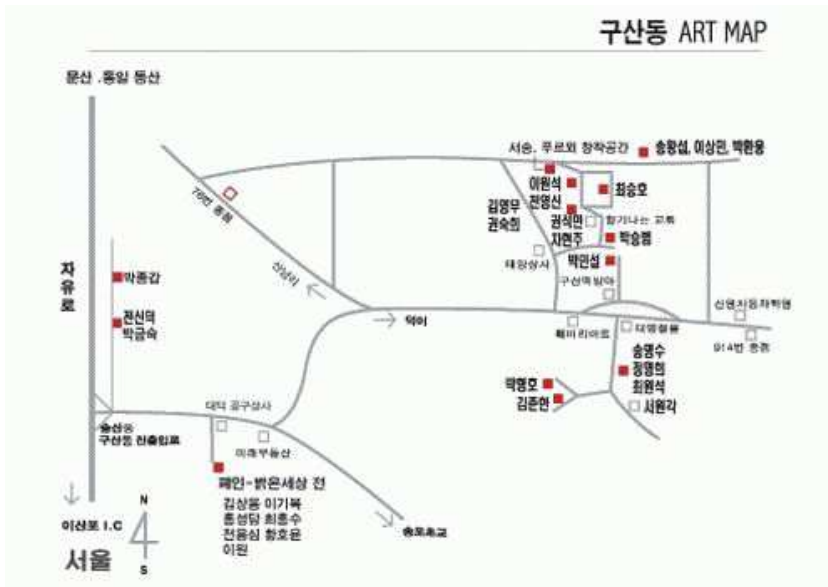


그림 10. 구산동 작가 스튜디오 위치, [www.ilsanopenstudio.com](http://www.ilsanopenstudio.com)

#### 나) 주변여건

구산동 주변에는 농협 창고들이나 공장들이 많다. 골짜기는 없는 가구 공장 같은 경우이다. 도시 근교의 창고형 공간으로서 확장되는 이유는 준농림 지역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임대업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땅값이 평당 200만원 정도로 100평만 해도 2억에 다다른다. 토착 지역 주민은 많이 없는 편이고, 소규모 공장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 다) 유인요소

구산동 지역에 모이는 큰 매력은 강북 지역 중에서 홍대와 가깝고, 인사동에도 접근성이 좋다. 자유로로 빠져나가면 강남도 가기 어렵지 않다.

작가들의 성향과도 잘 맞는다. 기본적으로 조각가들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한다. 추가로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파주출판단지과 헤이리 아트 밸리와의 가깝운 것도 향후 주요한 유인 요소가 된다.

작업 환경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 일산 신도시가 있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고, 근처에 공구상들도 잘 발달되어 있어 작업 준비도 용이하다. 소음이 나는 경우만 빼고, 공구상이나 재료 구입의 시스템도 좋다. 이만한 비용에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공간을 찾기 어렵다.

#### 라) 건물의 법적 형태 및 거주 형태

구산동 주변에는 법적허가가 난 건물이 70%,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 30%인 상황이다.

작업실과 주거를 겸하고 있는 작가는 70% 정도이다. 구산동 지역에는 3층 정도의 독립 건물 및 정원 형태가 있는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고, 6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개조해서 작업과 살림이 가능한 형태로 갖춰 둔 곳을 작업실로 이용하고 있다. 30% 정도의 작가는 외부에 따로

주거 공간이 있고, 구산동은 작업실로만 사용한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를 들어와 있다. 공동 작업실 형태로 60평 정도에 2~3명이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

#### 나. 인구통계학적 현황

구산동 작가 현황(일산오픈스튜디오 참여작가 24인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가) 나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최승호(50) 작가가 연장자에 속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작가(나인주, 최원석, 송명수, 정명희)들도 있다.

##### 나) 출신 학교

홍익대학교가 가장 많고,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출신 작가들이 몇몇이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작가들은 주로 젊은 작가 군을 이룬다.

##### 다) 직업

교수직은 1인이고 3~4분이 대학 강사로 나가시고, 나머지 작가들은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 활동 지역은 주로 서울/일산 지역이다.

##### 라) 거주 기간

구산동에서는 최승호 작가가 가장 오래되었다. 7년 정도, 그 뒤로 서송, 권석만, 이원석 작가가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 마) 수입

전업 작가가 대부분, 전업 작가의 반이상은 조형물 제작을 통해서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거주자의 10%정도는 200만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sup>21)</sup> 나머지 대다수 작가는 직접적인 작품 판매 수익은 거의 없는 편이고, 예술 연관 활동들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고 있다.

##### 바) 임대료

개인 소유나 전세인 경우를 제외한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75만원 정도가 평균에 해당된다.

##### 사) 지출

생활비와 재료비는 수입이 있을 때 쓰고 없을 때는 안 쓰는 형태로 매우 불규칙한 작가가 많다.

#### 다. 작가 커뮤니티 현황

21) 아뜰리에 메핑-일산 오픈 스튜디오, 미술인회의, 2005 참고. 이 자료에는 200만원 이상이 30%로 나와있다. 구산동과 성석동을 합친 통계로 구산동은 조형물 제작 수입이 있는 작가가 훨씬 적다.

#### 가) 형성 과정

작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김정범, 최승호 작가의 노력이 컸다. 주변 작가에게 지역을 소개하기도 하고, 공간을 얘기해주기도 했다. 일산 구산동에 작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구산동 초입부에 있는 작가들 중심으로 시작했다. 박종갑, 전신덕, 박금숙 작가와 홍성담 작가도 살고 있었을 때 처음 오픈스튜디오가 시작되었다. 현재에는 조각이 가장 많고 도예 작가나 회화 작가가 몇몇이 있다. 일산 구산동에 영상쪽이나 미디어쪽은 없고, Hard한 작업을 많이 한다.

#### 나) 모임 방식

작가들의 모임은 편안한 술자리에서 만난다. 2004년~2005년은 의욕적이어서 한 10명씩 모였었다. 2005년 행사 이후 자주 모이지는 않는 상태이다. 작가 개개인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편이다.

#### 라. 구산동 작가 마을과 주변과의 관계

##### 가) 홍보 활동

2004~2005년도에는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를 했다. 2005년 일산오픈스튜디오는 KBS 디지털 미술관(8월), 한겨레 21 잡지 등 방송과 언론에서 작업실 문화, 작가의 삶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미술인 회의의 2005년 아틀리에 매핑 첫 기획으로 일산오픈스튜디오가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 나) 기획 활동

Gallery라는 것도 만들고 주거하는 곳을 만들자는 것을 추진했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일산 오픈스튜디오를 설명하고 활동하는 거였다. 보통일이 아니고 많은 품이 필요로 했다. 구상을 하다가 실행이 안되었다.

##### 다) 외부와의 협력

고양 어울림 재단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들을 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작가 탐방>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일산 스튜디오로 와서 작가 따라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10월 헤이리 축제와 연결해서 연계 전시를 기획하고, 오픈 스튜디오를 연계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 2) 내재성 분석

내재적 측면의 분석은 직접 인터뷰, 간담회, 메일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구체적인 화자는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록 한 사람의 의견만 있을지라도 혜안이 있다면 그 의견이 전체의 생각보다 더 앞설 수도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했다.

가. <구산동 작가 마을>과 <성석동 작가 마을>의 일산 오픈 스튜디오의 역사

사업명	사업기간(일시)	장소	비고
2005 일산 오픈스튜디오	2004.10.1(토) -10.29(일)	참여 작가 작업실 및 상설 전시장 (오전 11시!~오후 5시 개방)	참여작가 : 서송, 권석만, 이원석, 차현주, 천영신, 김영무, 송명수, 정명희, 최원석, 송왕섭, 이성민, 박 환웅, 박민섭, 전신덕, 박금숙, 최승호, 박승범, 푸르 메창작공간, 박종갑, 김용진, 하종현, 조훈, 이희택 (구산동23인) 김정범, 성미경, 김인태, 이재숙, 오세춘, 권치규, 김 경민, 김경일, 이상현, 오세문, 오상욱, 서옥제, 장진 연, 박근우, 황남진, 정국택, 이성웅, 김경숙, 유재명, 민문기, 장상희, (성석동21인)
2004 일산 오픈스튜디오	2004.10.16 (토) -10.24 (일)	참여 작가 작업실 및 상설 전시장 (오전 11시!~오후 5시 개방)	참여작가 : 서송, 권석만, 이원석, 차현주, 천영신, 김영무, 송명수, 정명희, 최원석, 송왕섭, 이성민, 박 환웅, 박민섭, 전신덕, 박금숙, 최승호, 김준한, 정경 열, 김석희, 강인구, 박승범, 문윤형, 푸르메창작공간, 박형호, 김갑숙, 권숙희, 박종갑(구산동 25인) 김정범, 성미경, 김인태, 이재숙, 오세춘, 권치규, 김 경민, 김경일, 이상현, 오세문, 오상욱, 서옥제, 강태 엽, 장진연, 박근우, 신치현, 황남진, 김한나, 정국택, 이성웅, 김경숙, 유재명, 이방원, 민문기, 장상희, 구 연경, 박형진, 이연숙, 김성진, 김민정(성석동 30인)
2003 일산 오픈스튜디오	제1부 (성석동) 2003.10.30-11.2 제 2부 (구산동) 2003.10.30-11.9	구산동 일대 작업실	참여 작가 : 전신덕(조각), 박금숙(서양화), 김 근태(서양화), 김정범(도예), 성미경(도예) 박동 엽(도예), 심은하(조각), 김진수(조각), 임효(동 양화), 손권일(조각), 유시욱 (동양화), 홍성담 (서양화), 이승오(서양화), 이미호(조각) 오기석 (조각) 김병걸(조각), 윤익환(서양화), 이진원 (동양화), 윤익환(동양화), 홍현숙(설치), 김건 주, 이소영, 김범수, 공성훈(설치), 김승영, 오 상욱, 이장희, 권석만, 한영실(조각), 조명식, 유근택(동양화) 총 31명
2001 구산 오픈스튜디오	2001.10.12-10.31	참여작가의 작업 실및 인포메이션 전시장	참여작가: 전신덕, 류시욱, 김상용, 최홍수, 이기복, 한재철, 오기석, 이미호, 심정수, 서송, 이원석, 최승호, 권석만, 차현주, 김영무, 김경민, 오상욱, 박근우, 장진연, 성미경, 김경일, 정국택, 박형진, 이연숙, 양동욱, 김정범, 박동엽, 민문기, 구 연경, 서옥제, 강태엽, 오세문 총 33명

표 54. 일산 오픈스튜디오의 역사/ 일산 오픈스튜디오 운영위원회 제공

오픈스튜디오의 역사는 2001년 10월부터 시작한다. 일산 노르피 지역 작가들이 시작해서 첫

출발이 2001년 시작되었다. 주변 분들에게 돈을 모아서 [일산 오픈 스튜디오]를 준비했다. <2001년 구산 오픈 스튜디오전>은 덕이동 갤러리 메이의 자재 창고를 빌려서 시작했고 제목은 <향수전>이었다. 첫 시도였지만 일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구산동과 성석동의 많은 작가들이 참여했다.

2002년은 쉬고, 2003년 2회를 열었다. 이 역시 돈을 조금씩 모아 재원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3회째인 2004년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받아 [일산 오픈 스튜디오]을 열었고, 이때부터 시민 모니터링도 이루어졌다. 4회째인 2005년 또한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 나. 각 주체의 목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관된 목표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떤 전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확실하게 나누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의견에서 다른 의견으로 변하기도 하고, 세가지 모두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기도 한다.

가) 첫 번째는 <구산동 작가 마을>이 아뜰리에 공간으로 창작 환경이 잘 조성된 조용한 작업실로 유지되기를 꿈꾼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원한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전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나) 두 번째는 장소성을 높게 평가한다. 주변에 삼학산을 중심으로 헤이리 아트 벨리, 파주 출판 단지, 일산과 파주의 금촌 및 교하 등의 아파트형 주거 지역과의 근접성을 보고 있는 지리적 잇점을 살리려고 한다. 작품 창작에 기반을 두지만 작품의 전시와 유통과 연관된 장소로 부각되기를 원한다. 미술계에 부각될 수 있는 워크샵,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다) 세 번째는 인근 일산 지역의 주민 뿐만 아니라 구산동 주변의 이주노동자, 주민과 더불어 존재하는 공공 예술적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과 연관된 독특한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만드는데 재원이나 자원을 구성하려고 한다.

<구산동 작가 마을>이 창작촌으로서 자기 정립을 하려고 하는 큰 목적에서 보면 세 가지 목표 모두가 잘 결합이 되었을 때 그 목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각기 다른 목표들은 미술계의 흐름이나 동향의 접측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나이나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이지 예술에 대한 목표나 지향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창작촌은 생활 공간을 포함한 장소이자 프로그램이 통합된 공간이기에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다수의 목표가 동일한 의미의 무게를 가지고 존재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산동 작가 마을>의 작가들이 다른 작가들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서로 인정하면서 통합하느냐가 커다란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작촌으로서 목표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 몇몇 사람의 주도로 한 가지 목표로 갈 경우 소박한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 거시적이고 통합된 목적 속에서 세가지 목표를 녹여내는 일을 <구산동 작가 마을>이 창작촌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설정한다.

## 다. 서로 다른 목표의 배경 : 예술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가) 작업실의 은유

작업 공간을 화가는 화실, 사진가나 영상 작가나 음악가는 스튜디오, 만화가는 작화실, 공연예술에서는 연습실, 시각예술에서는 아틀리에(Atelier) 또는 작업실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개인 작업실 수준에서부터 이름난 작가가 만든 도제적 작업실, 또는 경제적 이유이거나 예술적 지향이 비슷해서 함께하는 공동 작업실 형태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있다. 현대에 와서 이 <작업실>에는 여러 가지 은유가 따라 붙는다. 태반, 랩(Lab), 실험실, 공장, 공방 등등 해당 예술의 확장 방향이나 융합 방향에 따라서 특정 이름 부르거나 특정 은유로 이해하기를 선호한다.

첫째, 생물학적 은유에서 보자면 작업실은 작품이 잉태되고 길러지는 자궁과 태반의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작가의 숨결이 붙어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비유에서 작업실은 개인의 무의식이 거주하는 곳이자, 개인의 상상이 만들어지는 장소이다. 최고조의 완성은 천재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천재 개념과 상상력이 핵심에 있다.

둘째, 과학적 은유에서 보자면 작업실은 실험실이다. 이곳에서는 작가 간 교류, 지역 간 교류, 국가 간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장르와의 만남, 다른 지역 예술과의 만남, 동시대의 예술가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융합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창조적 예술이 나온다. 창조성과 교류가 핵심에 있다.

셋째, 근대성 은유로 작업실을 공방 또는 공장으로 본다. 공방은 작업 방식이나 규모 측면에서 작은 것을 지시한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교육도 일어나는 공간이다. 특정한 공방으로서 지역의 생산-놀이 체계에 위치하기도 한다. 창조성과 공공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공방이자 향유자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이 생산되고 교육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의 향유와 창조성의 결합이 핵심에 있다.

넷째, 산업화의 생산 방식의 은유로 작업실은 공장이자 스튜디오이다. 수공업성을 넘어서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난다. 대규모 작업의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공간이다. 공장은 세계적으로 지방 정부가 문화와 예술의 특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재생 정책이나 재활력 방안으로 옛 공장이나 버려진 공방(빵공장부터 대장간까지)을 활용한 스튜디오나 센터가 늘어나면서 더 확장이 되는 은유이다. 국가 정책의 예술 산업화와 연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비유이다. 예술의 생산력과 판매력과 연관되어있다.

<구산동 작가 마을>의 작가들이 생각하는 작업실의 은유는 첫 번째인 생물학적 은유에 정서적으로 지향적으로 몰려있다. 일산 오픈 스튜디오를 기획 진행해오면서 세 번째인 공방 비유가 조금씩 짝이 트고 있고, 네 번째의 공장의 은유는 국가 정책이나 지역 재단의 후원과 연관해서 조금씩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조각가가 중심이 되어있는 작가의 성향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농업 창고나 책 창고 용도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을 작업실로 활용하는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향

후 세 번째와 네 번째중 어떤 은유에 기반해서 <구산동 작가 마을> 창작촌을 꿈꿀 것인가가 중요한 선택의 갈래길이 될 것이다.

#### 나) 미술 시장에 대한 전망

21세기 들어 예술이 세계화되어 가지만 예술 시장은 아직 개방되거나 국내 작품이 활발히 해외로 나가는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한다. 시도는 있지만 실적은 부실한 상태이다. 몇몇 해외 경매 시장에서 중견 작가 작품들이 팔려나가지만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술 시장이 발전하여 외국과 같이 작가와 작품이 좀 더 대우받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술은 상품이 되었지만, 한국 미술 시장 규모는 껌시장 규모보다 작다. 2003년 기준으로 껌시장은 3400억이지만 미술은 3000억이다. 수입 작품 1000억, 이발소그림 800억, 공공 미술 시장 700억, 경매 150억, 고미술 50억, 국내 현대 미술 작가 400억-500억...한국의 미술시장은 세제, 법 등의 제도적 문제 및 전근대적 시스템, 불합리한 유통구조, 가격 체제, 감정 등의 미술계 내부 문제 등이 개선되어...”<sup>22)</sup>야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법과 제도적 문제 이전에 예술 자체의 자기 발전의 문제도 큰 상태이다.

후원 그룹이 형성되더라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미술의 대중화와 상품화에 의해 예술이 산업적 시스템을 갖는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대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역시 양적 규모는 커지더라도 혜택은 소수에 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미술의 상품화가 갖는 한계에서 작업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작가도 있다. 새로운 소통과 유통의 장소로 재설정된 열린 작업실은 예술의 대중화를 만들 수 있는 장소이다. 미술 시장의 활성화 보다는 공공성의 확대를 통해서 예술이 사회화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작가들이 몸으로 느끼는 미술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조각가 들이 많은 만큼 공공미술 영역에서 조각 공원이거나 환경조형물 등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 작품 중심으로 선정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 다) 국공립 스튜디오 및 창작촌에 대한 인식

‘창동 스튜디오의 경우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면서 학기 내 중고등학교의 미술 시간과 연계하여 2시간 정도 개발 활동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활동 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학생들과 프로그램 매니저가 스튜디오를 함께 둘러보면서 스튜디오의 개념 및 용도 등을 설명하고 작업 공간을 견학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1시간은 입주 작가와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으로 프로그램 매니저가 선정한 몇몇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들어보고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양스튜디오의 경우 여름 방학을 활용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선착순으로 모집된 15명의 학생과 입주 작가 1명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을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을 전시로 꾸미는 프로그램이 있다. 창동과 고양 스튜디오는 정기적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개최, 이를 출판물로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sup>23)</sup>한다. <구산동 작가 마을>의 작가들은 국공립 미술 스튜디오가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

22) 2005년 일산 오픈스튜디오 워크샵 中\_윤태진, 2005, 미술시장 작가 작업실, 발췌

23) 미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34



립 창동/고양 스튜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지만 프로그램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오픈스튜디오, 작가 따라하기, 작업실 탐방은 일산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생활비나 전시에 대한 지원이 없이 1년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

공립 미술창작스튜디오나 지역형 창작촌에 대해서는 <구산동 작가 마을>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곳은 30억~50억 정도 지원을 받아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문화상품을 개발하거나 농림부와 지역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지역성과 향토적인 것이 예술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일색의 창작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구산동 작가 마을>은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연계된 것보다는 일산 시내와 연결되어야 하고 다양한 성향의 작가들이 들어와서 현대 미술에 기반을 둔 작가들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 라) 예술가의 생존권을 위한 제도화

예술가 사회 보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예술 창작 활동 지원중 예술가의 생활 및 작업 조건 개선을 법제화 해서 작업 중에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포함한 직업 작가로 인정되는 작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작업실에서 화재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예술가 사회보험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그린벨트 지역 등 국가나 시의 토지를 예술가에게 장기 임대하는 정책이나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후원구조(왕권, 귀족, 부르조아)가 약해진 현실에서 예술은 대중과 공공성과 화합을 필요로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예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예술 스스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요구 이전에 창조적 해결에 대한 자신의 노력도 예술가의 큰 몫이라는 의견이다.

#### 라.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구산동 작가 마을>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

##### 가) 일산 오픈 스튜디오 성과에 대한 평가

개인 작업실이 모여있는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사적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처음에는 교류가 쉽지 않았다. 초기 일산오픈스튜디오는 작가들의 교류 측면에 중심에 있었다. 일산 오픈 스튜디오가 구산동 작가들의 교류를 활성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면이나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성과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다. “옛날에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의 대부분이 작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약해져 있습니다.”는 한 작가의 말 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계획대로 안되거나 의견 불일치가 많은 이유는 의견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자가 없어서 발생한다고 보는 면이 많다. 합리적이면서 구산동 작가 마을 외적 요소와 작가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하다. 작가 마을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으나 힘들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오픈 스튜디오를 하면서 창작촌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늘어난 어려움은 낮에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줘야한다는

점이 익숙치 않다는 거였다. 오픈 스튜디오에 대해서 다수는 순수한 오픈 스튜디오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소수는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린이/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

다른 의견으로 일산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 각자의 욕구를 잘 융합할 수 있고, 장기적인 전망 아래에서 총기획자가 있다 하더라도 작가들이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작업장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선 능동성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있다. 작가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자생성과 능동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나) 지역성과 미적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의 미술계는 과잉 생산의 체계이다. 너무도 많은 자식을 놓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모와 똑같다. 한 작가는 “한국 지역의 서울에 있는 미술의 대학 수가 독일 전체의 미술 대학을 넘어섰다”고 얘기한다. 국립 스튜디오나 사립 스튜디오의 성공적인 사례로 썸지스튜디오를 이야기하는 데, 이러한 작업실 레지던시가 효과는 스타 작가, 뜨는 작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과정이란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술 시장이나 국제 교류만을 기대어 “글로벌 거대 작가”를 비전으로 삼는 것보다 그동안 보지 않았던 영역인 지역과 공공성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가들도 자기 작업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5%~10%는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작업 방향을 바꾸거나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맞는 관계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작업장만 놓고, 작업을 들로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서 예술가로서 먹고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 문화 재단이나 후원이 꼭 필요하다. 지역 문화 재단은 지역과 연관된 작업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 미술 교육은 저변을 확대하여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향유층을 만들고, 예술가들을 키워내는 과정이다. 인근 지역과 연관짓자면 파주 신도시의 주민에게는 문화적 향수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일산의 다양한 예술교육 대상들에게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또한 구산동 근처의 공장에 있는 이주노동자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일산쪽으로 고생모(고양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모임)은 안면만 있고, 여성민우회하고 연결하려고 했지만 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2005년 들어서 헤이리 아트 벨리나 파주 출판 단지와의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있는 중이다.

지역성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작가들 사이에 많은 이견과 충돌이 있다. 지역이나 교육을 너무 강조할 경우, 창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적극적으로 지역과 예술 교육 과정과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만남을 강조해야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 또는 공존에 대한 모색이 <구산동 작가 마을>이 마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역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동시대에 공존해야하고 통합해야할 두 가지 측면의 대립이라고 보는 작가도 있다. 작품을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창작에 대한 집중이 왜 가능한지 않는가에 대한 반문이다.

#### 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하면 현대미술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 한다고 말한다. 공공성을 물리적 환경적 차원에서 보느냐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인식을 나타낸다.

<구산동 작가 마을>의 작가들은 조각이나 설치를 한 작가들이 많아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물리적 조형적 환경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요즈음에는 소외된 지역에서 공공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다른 측면에서 공공성이나 공동체성이란 말에는 계몽주의적인 것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술의 대중화 형태로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미술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는 논리는 계몽적 의식일 뿐이다. 작업을 통해서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작업을 통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만일 교육적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획자가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평가 이론이 제기능을 못하기에 예술과 사회의 관계, 예술의 존재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작가도 예술의 창작과 향유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다른 측면에서 창작 또는 예술의 존재방식과 연결해서 사유되지 않은 공공성은 또한 위험하기도 하다. 큰 흐름은 예술가들의 참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오픈스튜디오도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몇몇 작가 분들은 강하게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함을 이야기 한다. 지역 사회나 예술관련 재단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창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여러 작가의 제안과 연구자의 의견이 곁들여진 프로그램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구산동 작가 마을 커뮤니케이션 통로 개발 :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을 활성화 하는 방안.
- ② 1달에 1회 토론회를 만든다. : 예술가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 장을 만든다. 각각 다른 의견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③ 실루엣 프로젝트.(작가 호상간 Critic) : 1주일씩 돌아가면서 서로 보고 작품 크리티크를 하는 것. 창작자로서의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④ 해외/아시아 교류 : 교류를 통한 사례 발굴, 구산동 작가 마을과 비슷한 모델과 적극적인 교류를 만드는 것.
- ⑤ 새로운 유통 방식의 개발 : 예술시장, 예술의 위치, 예술의 위상 탐색으로 수많은 모색이 필요함. 구산동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 직접 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⑥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레지던시와 다른 개인 작업실 밀집형에 맞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개발
- ⑦ 창고 전시 공간 : 하나의 창고를 임대해서 전시를 개최함.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⑧ 커뮤니티 하우스 : 예술촌 커뮤니티 하우스의 필요하다. 이지역의 색깔에 맞는 공간을 생각해야 한다. 전시를 해서 교육을 하려면 장소들이 필요하다.
- ⑨ 표지판 공공 디자인 : 상설 1년 내내 걸수 있는 존을 만들어서 한다. 현재는 너무 찾기가 어렵다.

#### 마. 구산동 작가 마을에 대한 전망

#### 가) 구산동 오픈 스튜디오

작가들이 생각하는 일산 오픈 스튜디오 전망은 크게 1)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체험으로 일반인들과 어린이가 작업실을 방문해서 작가라는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이해하여 장차 예술수요자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2) 미술대학생과 예비작가들의 만남과 대화로 미술대학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장이다. 3) 작가 작품의 홍보, 4) 지역주민과 시각 프로젝트 실험으로 벽화, 조각공원, 공공 프로젝트등을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5) 작가 발굴 현장으로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성과로 꼽고 있는 것은 창작 체험과 교육, 교류이다. 추후 기대하는 것은 작가 발굴과 홍보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 교육실의 공간을 지원 또는 후원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한다. 그 공유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반인도 오고, 큐레이터도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장소가 부각되었으면 한다.

어떤 작가의 경우에는 오픈스튜디오를 위해서 판매를 하려고 소품을 200~300점 정도 만들어 20만원~30만원 정도씩 판매를 하였다. 오픈스튜디오 행사 끝나고도 계속 사람이 오면서 창작을 지탱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기반이 되었다. 개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기 보다는 전시장과 연결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유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나) 작가 마을의 전망

활발한 활동이 없는 창작촌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전원 주택이나 조용한 마을이라고 부르는 게 솔직하고, 그렇게 되는데 솔직하다. 구산동 창작촌의 작가들은 스스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젊은 작가부터 나이 많은 작가분 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작가들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성과 미적교육의 측면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지역어린이와 함께 했던 작가 체험과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지역 교육 및 예술을 통한 체험의 다양한 장이 만들어진 부분도 기억할 만 하다. 많은 작가들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미적 교육을 전통적인 교육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많은데 기능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이나 제자에게 미술의 환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는 미적 교육 과정에 작품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토론과 워크샵 과정이 절실하다.

작가 마을로서 전망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의견 차이를 좁히는 다양한 워크샵과 토론회가 필요하다. 둘째,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서로 인정 가능한 속도와 수준의 진행이 필요하다. 데에 많은 작가들은 공감한다.

#### 다) 지역/장소의 발전 가능성

과주출판단지, 헤이리 페스티벌 등과 연결되어 발전 가능성은 모두 높게 보고 있다. 구산동 작가촌은 과주/헤이리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면 수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맛이 달라서 이 만큼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편안한 주택가도 아니고 우후 죽순 있는 창고촌이 역으로 강점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색깔있는 다양한 작가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계기성 오픈 스튜디오를 지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만 보자면 작가들이 다양하지 않고, 기획자가 없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지원이 있는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위가 무위보다 악하다.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작가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 요소는 경기 북부 지역이 발전에 따라서 지가 상승이 이루어져 구산동도 현재 평당 100만원 정도에 이르러 젊은 작가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설치나 회화 작가들이 들어오기에는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면도 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원책이나 조례등이 마련되어서 구산동/성석동 지역이 서울에서 밀려나고, 경기도 인근에서 밀려난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작가 마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다.

### 3) 외부성 분석

외재적 측면은 각각의 영역마다 개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서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요소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추후 필요하다면 연구자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구산동 작가 마을>과의 토론 속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는 게 적절하다.

#### 가.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

가) 정부의 정책과 제도 연관

- ① 1~2년 후를 바라보면서 법인화를 준비할 수 있다.
-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지역연계 프로그램을 고양 어울림 재단과 지속적으로 기획가능하다.
- ③ 공공미술 위원회의 공공환경 및 공공 미술 프로젝트와 연관 가능하다.

나) 지자체 및 각종 지원 체계

- ① 고양어울림 재단에서 시각 예술 분야나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 과정과 연관 가능하다.
- ② 경기문화재단에서 창작촌 연구 및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다) 문화예술계의 흐름

- ① 국가 주도의 창작촌과는 다른 형태에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 ② 자생적 국제 교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 나. 지리적 공간적 환경의 변화

가) 일산, 파주 지역

- ① 이 지역에 살던 토박이들은 거의 없고, 모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요즘에는 구산동 근처 공장들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 ② 돈이 더 없는 작가들은 구산동 북부 쪽이나 광탄, 용미리쪽으로 이주중이다.
- ③ 심학산 근처에 개발 사업이 추진중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나) 헤이리 아트벨리 및 출판단지

- ① 헤이리 아트 벨리의 여러 전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 ② 파주 출판단지의 여러 출판사들이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다) 세계평화축전

- ① 경기도의 세계 평화 축전과 연관해서 교육 예술, 예술 교육의 거류 거점으로 활성화 가능하다.
- ② 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 음식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벨트를 만들어보려는 기획도 있다.(작가 최홍수)

(2) 활성화 방안

가. 구산동 작가 마을 분석

가) 강점 및 약점 분석

구분	조직 내부	
	강점	약점
조직 및 인력	지리적, 경제적, 창작 여건의 이유로 모임 조각, 공예에 기반한 작가들이 많음	예술관이 상이해서 응집이 약함 조각,공예 이외의 작가들이 들어올만한 매력이 아직은 부족
비전의 조건	시설과 전문 인력 1인	예술철학, 프로그램 등의 비전이 부족
재정	소품 판매등으로 수익이 올라가지만 아직까지 커뮤니티의 합의가 없어 개인적인 수익으로 만 되고 있는 상황	자체자금조달능력 없음 외부 재정 지원 유입 약함
공간 및 시설	개별 작가들의 공간은 넓은 편임 주변 공간도 넓어 발전 여지가 많음	공장 건물이 많고, 최근 임대료가 상승
프로그램	작가 작업실 방문은 반응이 좋음. 창작과 교육을 병행하려는 작가에게는 좋은 조건임	방문자의 편이성에 대한 준비 부족 작가의 창작에 방해될 요소도 있음
홍보	일산 지역 주민에게 팸플렛 등으로 홍보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한 적도 있음 방송 홍보도 추진함 일산 지역에서 인지도도 생기고 개인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음	아직은 알음알음 수준의 홍보임. 홍보가 잘 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은 없음
대 지역관계	5년 동안 지역교류에 노력 미술계에 알리는 노력이 주가 됨.	일산 고생모등과의 교류 없음 다른 지역사회단체와 교류 없음
교류협력	문화예술계 내 다양한 인력 풀과 자원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타 문화예술촌이나 해당 자치단체, 인접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전무함.

표 55.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조직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

나) 기회 및 위협 분석

	조직 외부	
	기회	위협
중앙·지방정부 문화정책	새로운 창작촌에 관한 정책 요구	밀집형의 경우에는 의견이 모이지 않아 지원체가 형성되지 않음
지원시스템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경기문화재단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밖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연속지원이 안되는 상황 (2006년 경기문화재단 지원 안됨. 성석동에서 내는 과정)
법·제도		30% 정도는 무허가
문화예술환경	스쿼트 운동등으로 작업실 담론 활성화 2005년 토론회 개최 및 아프리에 메핑 발간으로 일산오픈스튜디오 존재 부각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문제가 있고,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구조
지리와 환경	인사동, 홍대 등과의 근접성이 큰 장점 hard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유입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춘	헤이리와 출판단지의 근접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음

표 56.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대외적 환경 분석

다) 예술제도, 문화생태계, 예술사회학적 관점의 분석

관점 구분	분석
예술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익대학교, 장르는 조각 중심의 작가군</li> <li>- 주거형 작업실 공간</li> <li>- 작업실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기반</li> <li>- 작품 판매에 대한 지향과 지역성, 공공성에 대한 지향이 혼돈되어 있음</li> <li>- 재원의 관점에서 시장 개념의 탈피. 지역성과 공공성의 재인식 필요</li> </ul>
문화예술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작업실 형태인 만큼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의 유입을 통한 다양성 확보</li> <li>- 워크샵, 교육, 레지던스 등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매개자의 유입 필요</li> <li>- 다양한 대상과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li> </ul>
예술사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적 작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음</li> <li>- 예술 교육이 갖는 존재성, 교육성, 사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교육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예술 행위의 과정과 통합되는 것에 대한 탐구 필요</li> <li>- 작가 커뮤니티에 대한 자의식 형성의 필요. 커뮤니티 없는 예술의 자율성은 어려움</li> </ul>

표 57.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예술제도, 문화생태계, 예술사회학적 관점 분석



## 나. 구산동 작가 마을의 세분화

대상별 : 큐레이터 / 일반인 / 청소년 / 예술관련학생 / 지자체 / 지역주민

수준별 : 작음 / 중간 / 큼

관심별 : 예술적 관심 / 미적-지역적 관심 / 교육적 관심 / 경제적 관심

대상별	관심	예술적 관심 (작품,작가..)	미적 관심 (문화교육포함)	미술교육적관심 (예술교육포함)	경제적 관심 (수익성,작가생존)
	수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작음		●		
	중간			●	
	큼	●			●
일반인	작음	●	●		
	중간				●
	큼			●	
청소년	작음	●			●
	중간			●	
	큼		●		
예술관련 학생/애호가	작음		●		
	중간				●
	큼	●		●	
지자체 문화재단	작음			●	
	중간	●			●
	큼		●		
지역주민	작음	●			●
	중간		●	●	
	큼				

표 58.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문화주체별 수준과 관심 분석

구산동 작가 마을의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기대치는 다음과 같다. 큐레이터, 작품 중개인 등은 예술, 미적 관심 보다는 실용적 관심이 많다. 주변 어른들은 예술 교육, 실기 교육 차원의 관심이 많다. 예술 관련 학생들은 두루 관심이 있는 편이고, 지자체는 홍보 대상이 될 수 있는 작가,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은 예술에 대한 큰 관심이 없지만 미적 관심은 존재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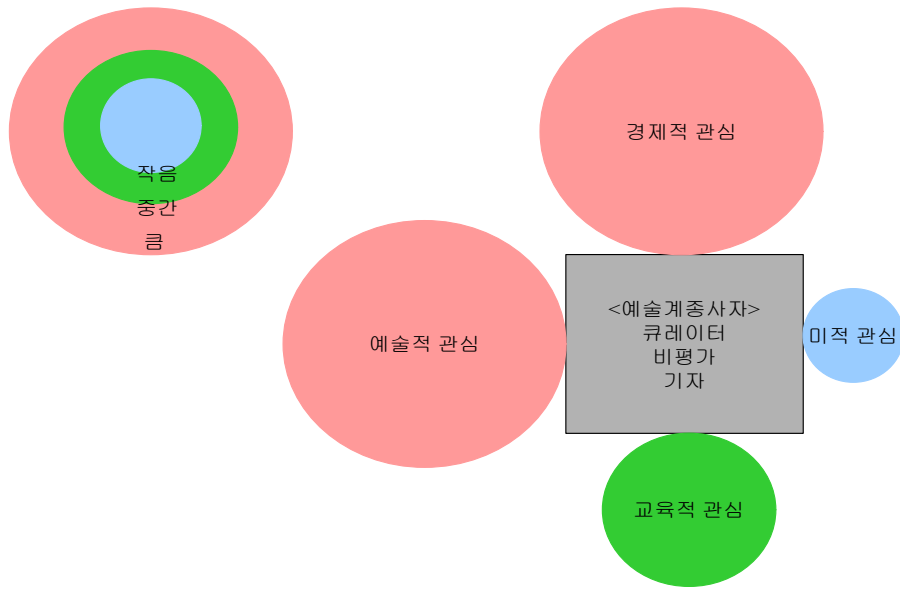


그림 11. 문화주체별 관심 수준의 시각화, 예술계 종사자 : 큐레이터 사례

작업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층 = 예술 관련 학생 > 큐레이터

미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층 = 청소년 > 문화재단

미술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층 = 예술 관련 학생 > 일반인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층 = 예술 관련 학생 > 큐레이터 > 문화재단 > 일반인

#### 다. 포지셔닝

##### 가) 포지셔닝 기초

구산동 작가 마을의 기존 위상 및 프로그램	위상 및 프로그램의 재설정 및 구체화	
개별 작업실	본격적인 미술 창작 공간	작가 마을로 비전을 세워야함. 창작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기획자, 큐레이터 공진화 모델 필요
오픈 스튜디오	새로운 전망에 대한 공유 필요 예술에 대한 성찰 필요	오픈 스튜디오 개발 예술관련 학생 > 청소년 > 문화재단 > 큐레이터 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느슨한 작가 모임	창작과 향유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예술 관련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작 공간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 59. 구산동 작가 마을의 포지션 매트릭스

① 현황 분석에서 보듯, 임대 비용 및 창작 환경에 관한 개선을 만들 수 있는 조례 개정, 예술

가 사회 보장등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요구안 마련이나 정책적 활동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해야 한다.

② 내재적 측면 분석에서 보듯, 생물학적 은유의 작업실 은유에서 걸어 나와 세 번째나 네 번째의 공방과 공장 은유로서 작업실 개념으로 전환에 대한 커뮤니티의 의견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③ 외재적 측면 분석에서 보듯, 주변의 조건 형성과 발맞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내적 준비와 외적 환경의 유인이 잘 결합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좋은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④ SWOT 분석에서 본다면, 주관적 의지 측면이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주변 조건은 그와 대비히 좋은 조건으로 형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내적 커뮤니티 형성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소이다.

⑤ 세분화 분석에서 본다면, 어떤 대상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관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중요하다. 앞의 대상 중에서 예술관련 학생에 집중한다면, 관심별로 예술적 관심과 미술교육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대상 중에서 청소년과 지자체에 집중한다면 미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큐레이터 등의 예술계 종사자에게 주목받는 창작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술계 유통의 새로운 대안 장소로 부각되어야 한다.

나) 포지셔닝 매트릭스

구산동 작가 마을의 기존 위상 및 프로그램	위상 및 프로그램의 재설정 및 구체화	
개별 작업실	본격적인 미술 창작 공간	작가 마을로 비전을 세워야함. 창작촌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기획자, 큐레이터 공진화 모델 필요
오픈 스튜디오	새로운 전망에 대한 공유 필요 예술에 대한 성찰 필요	오픈 스튜디오 개발 예술관련 학생 > 청소년 > 문화재단 > 큐레이터 순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느슨한 작가 모임	창작과 향유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예술 관련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작 공간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

표 60. 구산동 작가 마을의 포지션 매트릭스

다) 포지셔닝

① <구산동 작가 마을> 이미지 포지셔닝

<구산동 작가 마을>에 대한 포지셔닝의 분기점은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일산 <구산동 작가 마을>은 주관적 의지의 결정,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비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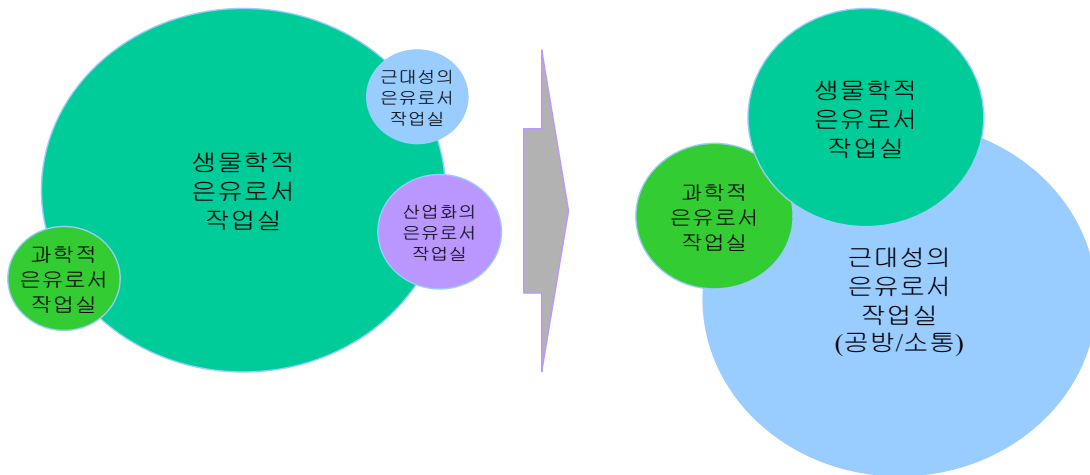


그림 12.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이미지 포지셔닝1.

먼저 작업실의 의미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은유로서 천재성의 창조 공간인 작업실에서 공방과 소통의 작업실로 개념의 전환을 하고 이에 기반한 이미지 정립이 필요하다. 근대성의 은유로서 작업실이 60%와 생물학적 은유로서 작업실 30%과 과학적 은유로서 작업실이 10% 정도 수준의 의미 층이 서로 결합된 포지셔닝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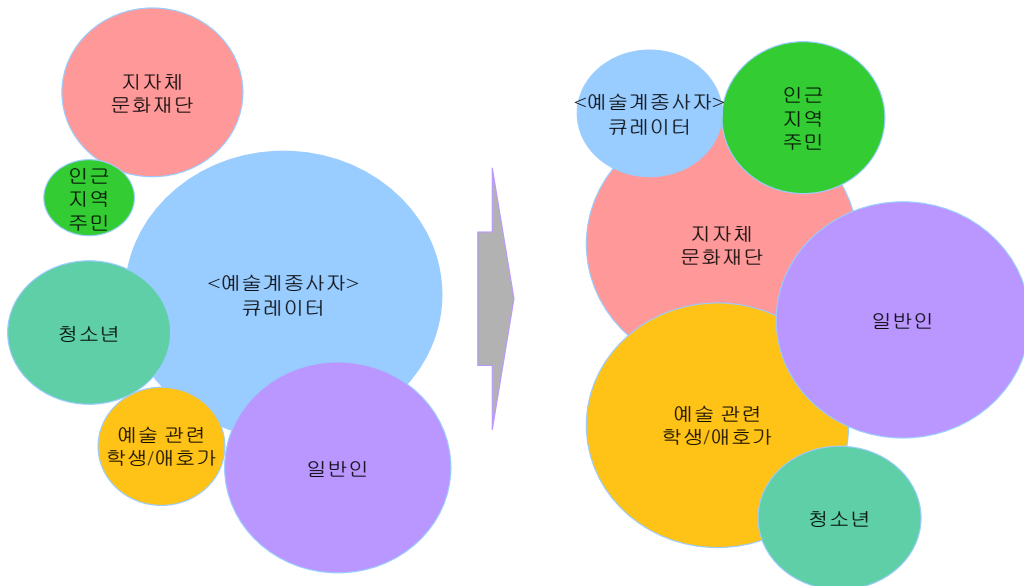


그림 13.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이미지 포지셔닝2.

대상에 대한 관심 축이 바뀌어야 한다. 예술계 종사자 중심에서 재원 마련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와 문화재단과의 협력, 이에 기반이 되는 예술관련 학생 및 문화예술 애호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ex. 오픈 스튜디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해 가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에게 예술작품을 직접 판매 하는 예술 시장 유통의 대안적 방식을 추구할 경우 <구산동 작가 마을>이 “창고형 예술가촌”으로서 자기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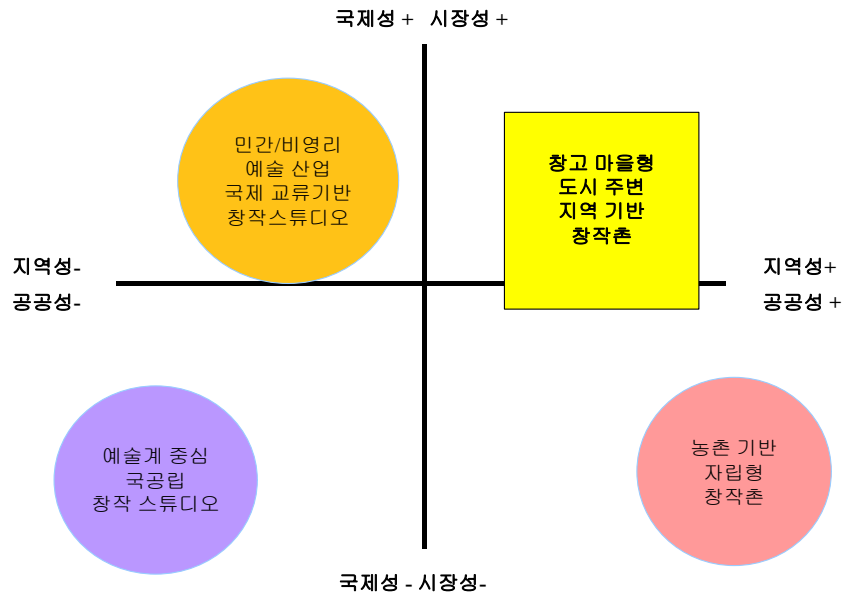


그림 14.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이미지 포지셔닝3.

지역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대안적 유통 방식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시장성을 개척하는 창작촌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는 길은 다른 여러 창작촌 유형 모델과 차별화하고 자기 발전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 기반 자립형 창작촌과 달리 예술 교육과 연관된 시장성과 공공성을 확보해갈 수 있는 현재의 잇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길이다.

## ② 재원 및 예술 제도와 연관한 따른 포지셔닝

<구산동 작가 마을>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원 형성이 중요하다. 재원 형성에 있어서 이전에는 대부분이 주변의 후원을 모아 한 것이지만 차차 공적 재원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운영 재원의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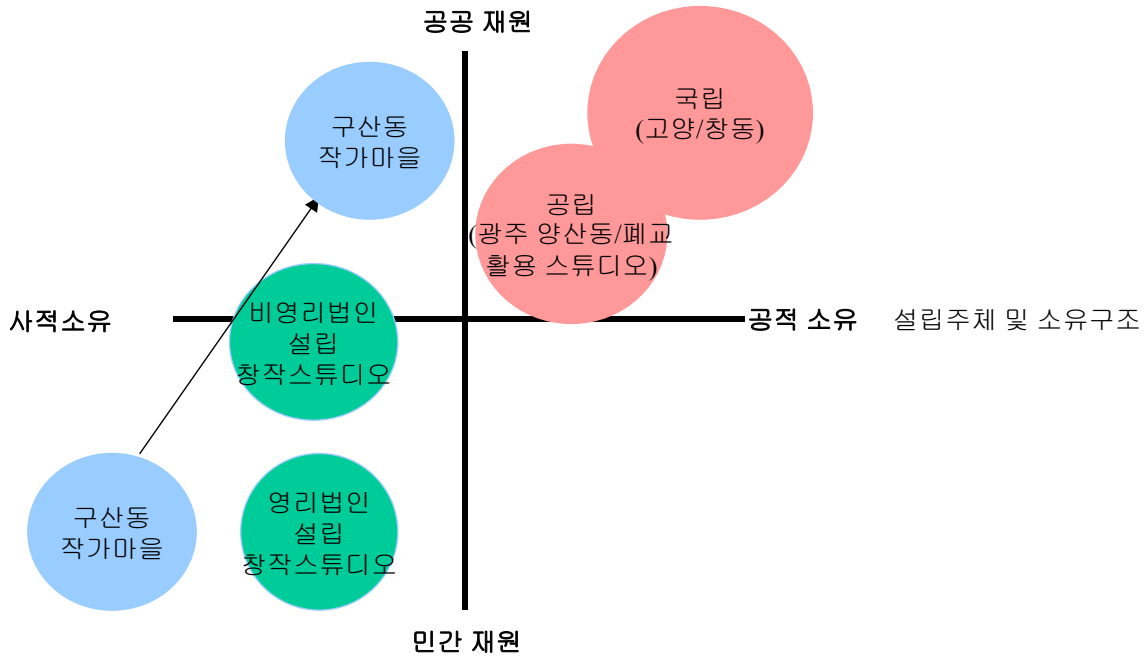


그림 15.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자원 및 예술 제도와 연관한 다른 포지셔닝

<구산동 작가 마을>은 비영리 법인 형태를 추진하여 공적 재원에 의존해서는 자립 기반을 갖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에 맞는 자원 창출이 어렵다. 향후 전문 예술 법인으로서 자기 전망을 갖고 재원을 마련해간다면 공적 자원 50%, 사적 자원(예술품 판매 수입 및 예술교육 및 지역 활동과 연관된 수입 등) 50%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는 예술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작가 상호간의 신뢰, 새로운 전망을 만들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자원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은 앞서 말한대로 유위가 무위보다 악한 경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다.

현재는 교육에 관심있는 작가, 창작에 관심있는 작가로 의견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교육, 교육예술에서 말하는 생산과 소비, 창작과 체험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에 바탕한 근대적 사고에 간혀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로는 창작촌 자체의 전망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밀집형 창작촌이 활성화되면 동물원의 동물처럼 관광에 의해 작가가 대상화되는 소외를 겪게 될 것이다.

③ 매개자 및 향유자에 다른 포지션 재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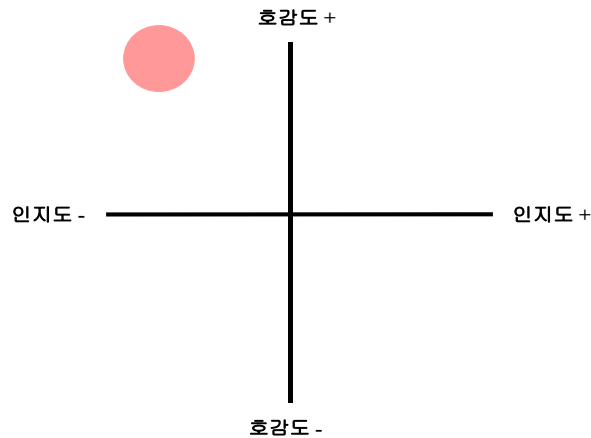


그림 16. 일산오픈스튜디오 호감도와 인지도

그림에서 보듯 일산 오픈 스튜디오에 대한 호감도는 높는데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2~3년 전과 비교하면 몇몇 작가들의 노력과 일산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비평가, 기획자 층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미술인 회의에서도 작업실 담론과 맞물려 첫 번째 ‘아뜰리에 메핑’의 대상을 일산 오픈 스튜디오로 잡았다.

밀집형 작업실의 경우, 양평의 서송마을, 가평, 마석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접근이 어렵지만, 인지도만 생기면 일반 시민의 호감도는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의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나들이의 증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구산동 작가 마을>은 서울에서 가까운(지리적 요소 강조/숙성 포지셔닝), 넓은 작업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예술교육, 문화교육 등 강조/편익 포지셔닝), 20~30만원대의 소품을 구입할 수 있고 작가의 예술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30대~40대 남성-여성 / 이용자 포지셔닝) 곳으로 포지셔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라. <구산동 작가 마을> 활성화 방안.

문화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근간해서 전략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작가 유입과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제도화를 통한 상호 신뢰의 구축이다. 세 번째로 기획자의 영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이다.

#### 가) 공진화와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방안 - 작가 커뮤니티 형성

문화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인식과 실천이 변화를 해야하고, 거기에 맞는 지적 체계, 교육 체계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인식의 확장을 위해서는 동시대의 예술과 문화에서 개개인의 위치 또한 일정한 성향의 작가들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 동시대의 예술의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의견 형성 과정 : 워크숍 및 토론회
- 지역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구산동 작가 마을 프로젝트> 개발
- 인맥, 학맥 등을 벗어난 이론적 접근을 수용 : 관련 네트워크 형성

- 예술가 사회보험등 공동의 생존조건과 관련된 대책을 사회적으로 요구
- 지자체와 조례 개정 등 다양한 폭의 제도 개선을 추진

#### 나) 재생(순환)과 협력을 통해 지원과 후원을 구축하는 방안 - 제도화 및 법인화

- 초기에는 컨설팅 기반 기획자가 필요하다. 컨설턴트의 문제 / 전문기획자의 문제는 단순히 일을 대행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작품을 통한 순환, 교육과 관계를 통한 순환, 예술 환경속에서의 자기 정립을 함께 기획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일정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면 창작촌 기반 전문 큐레이터 제도가 있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창작촌 전문예술단체로 정립을 하고 법인화를 추진한다.

#### 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 - 사람의 유입, 기획자의 발굴

- 기획자, 이론가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젊은 기획자들의 인턴십 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Season별로)
- 조각 뿐만 아니라 미디어, 설치 등의 다양한 작가의 유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1977년 설립 Mattress Factory는 예술가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바바라 루더롭 스키가 1982년 경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폐업한 매트리스 공장을 개조하여 전시장으로 사용함. 풍부한 경력의 직업 예술가들이 몇 달간 모여 작업을 함. 제작 장소와 전시 장소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sup>24)</sup> 것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 마. 구산동 작가 마을 로드맵

##### 가) 1 단계 : 2006~2007

- ① 온라인 활성화
- ② 구산동 오픈 스튜디오의 새로운 기획 - 2006년
- ③ 자기 비전을 준비하는 토론회 및 워크샵
- ④ 공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련: 작은 공간을 통해 <구산동 작가 마을> 소개 및 회의 장소이용
- ⑤ 커뮤니티 하우스에 기반한 공공 디자인 : 표지판 디자인, 주변 공간 설치

소요예산 : 3000만원

##### 나) 2단계 : 2008~2009

- ① 하드웨어 기반 접근

2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양건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84



- 공간 확보 및 전시장 마련 : 지자체와 재단등의 후원을 받아 일정한 공간을 확보
- 전문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2인 확립

② 제도 개선 및 법제화

- 창작촌 스스로가 조례 개정 추진
-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작가 참여
- 법인화 추진

③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 Art in Residence : 젊은 작가들의 인턴쉽 및 창고형 레지던시

소요예산 : 5000만원~1억

다) 3단계 : 2009~ 2010

① 유통방식의 대안 제시를 통한 활성화

- Art Fair나 오픈 스튜디오 정도가 아니라 직접 유통 방식  
ex) 봄가을 시즌 정기적인 판매 시즌을 마련한다.

② 지역 기반한 학교-예술 교육 공간으로 활성화

③ 다양한 작가 유입에 기반한 지역 예술 프로젝트 활성화

소요예산 : 1억

## 제6장. 창작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

### (1) 인식 전환

경기도 지역만 하더라도 20여개의 자생적인 창작스튜디오가 있다. 근대화가 이뤄지던 시기 도시에서 프렌치코트를 훔날리며 헌팅캡을 쓰고 파이프담배를 물고 다니던 예술가 선생들이 이제는 작은 마을 주민들의 이웃이 되어 자연 속에서 창작활동과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문화향유를 통한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잔치나 축제에 참여하여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예술성있는 특산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튜디오에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역특산물과 관광상품을 사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촌마을에 새로운 기운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관계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농촌생활이 재미있어지고 도시에 비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삶의 쾌적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농촌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란 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가 아직은 운영목적이 불분명하고 체계적 시스템이 없으며, 특성화된 정기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도 관계기관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류로 각광받으며 아시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는 우리의 대중문화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노력 위에 비로소 꽃 필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순수문화예술의 기반 없이 대중문화가 흥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오늘도 어떤 제도적 근거도 갖지 못한 폐쇄된 창작공간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도 속으로 자신의 작품을 내보내고 있다. 이들의 삶터이자 일터이며 창조의 장소인 스튜디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있다면 이들은 훨씬 다양하고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을 이 세상에 빛을 내보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하여 할 일이 널렸다는 이야기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현장을 방문해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이 있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단순히 예술인 몇 명이 더 지원받게 되었다거나 지역특산물이 몇 개 더 팔리게 되었다든지 하는 산술적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정책이 파급해낼 긴 과정을 보면서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2) 제도정비

최근 문화예술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에는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폐교 등 자생적 지역 기반 창작스튜디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일은 의미가 있겠다.

먼저 문화관광부가 1998년 수립한 「창작스튜디오 확충기본계획」 과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소개하였다. 그렇지만 창작스튜디오운영규정이 2004년5월에서야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가 없

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내에 창작스튜디오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이나 운영체계를 두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의 의의를 이야기하는데 작업실을 매개로 ‘비평’, ‘시장’, ‘사회’, ‘교육’ 그리고 ‘국제’교류가 가능하며,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진흥법 내 제1장2조, 제3장9조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내 제1장2조,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항목에 대한 검토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의 조항들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공간에 ‘창작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작시설의 경우 대형건축물일 필요가 없으므로, 소형건물의 경우에도 스튜디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양건열 박사의 지적대로 창작스튜디오들이 ‘창작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너무 많아진다. 먼저 ‘창작스튜디오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외국의 우수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해 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교사연수와 같은 학교연계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한 창작체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문화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센터나 창작공방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대부요율이나 계약기간이나 시설물 개보수의 유연함을 보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제화가 중앙정부차원에서 힘들다면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에서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지원근거와 법률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만들어 두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련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문화예술전문단체나 그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학습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등을 재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스튜디오’,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학습 공간’,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숙소와 전시관, 사무실’, ‘예술공연전시나 문화행사장소 및 시설운영을 위한 아트샵’, 그리고 ‘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설치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폐교를 활용하는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또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그리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는 대부요율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액하게 되어있는데 ‘학교연계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시설(가칭)’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영구건축 등의 증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개보수에 관한 조항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폐교활용 창작스튜디오들이 무언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도 교육청 담당자와 몇 차례 만난 후에는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 등의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우선계약’ 등의 조항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령 3조에 의해 문예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새롭게 대부분은 대부분의 폐교는 고액의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문화예술인들로서는 입찰의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가 농촌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기도에서는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보다 ‘농촌기반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농림부의 역할과 활동은 크게 주목되는 바가 있다. 농림부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과 농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 세시풍속과 연계한 지역문화관광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에도 이러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법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할 수 있다면 훨씬 농촌문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란 점을 말해두고 싶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생활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의 근거가 되는 제13조의 내용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더해 1조의 목적이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포함하거나, 아예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1조의 목적에 포함하고 관련사업에 관한 조항을 13조에 신설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입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문화예술교육시설’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법안의 내용으로는 " ‘문화예술교육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 혹은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조항과 “지방교육청은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폐교를 문화예술교육 법인·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증장기 종합발전계획, 경기도, 2004
- 고양미술스튜디오개관기념 심포지움, '현대미술가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4
- 곽수열, 문화예술분야에 마케팅기법의 도입과 적용,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996
-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현황과 과제', 광주창작스튜디오 워크샵 자료집, 2004
-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현황, 2002
- 김갑수,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새예술정책과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문화예술, 2005년 4월호
- 김선정,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제시작이다, 경기문화재단, 도서마당 5,6월호, 2004
- 김원명, 예술경제학의 이해, 음악과 민족, 12호
- 김원명,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음악과 민족 6호
- 김찬호, '일본의 도시화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학보 제13권 1호, 2000
- 김태준,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산업연구, 제4집
- 김현진, 북유럽미술의 자존심 니프카, 미술과 담론 웹진, 2004
- 김희정, 창작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1996
- 대유문화재단, 미술관과 집단 창작스튜디오 운영과 과제, 1999
- 도널드 위스터, 생태학-그 단함과 열림의 역사, 문순홍 강현 옮김, 아카넷, 2002
- 문화관광부,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안, 1998
- 미술인회의, 아뜰리에 메핑-일상 오픈스튜디오, 2005
- 박신의, 창작 스튜디오의 새로운 개념과 정책적 지향점, 사비나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토론회, 2004
- 박영지, 창작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1996
- 손원익, 문화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996
-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유현미, 비주얼 아티스트를 위한 아트맵, 청어람미디어, 2004
- 윤태건, '미술시장 작가 작업실', 일산 오픈스튜디오 워크샵 자료집, 2005
- 이홍재,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자향, 2002
- 정석,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조주현, 창동과 고양미술스튜디오의 발전방안, 미술과 담론 웹진, 2004
- 최예희, '프랑스 작업실 지원정책과 창작환경', 문화예술, 2005년 4월호
- 프리초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 김용정-김동광 옮김, 범양사, 1998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오늘의 미술, 다른 징후들, 인사미술공간 개관기념전 심포지움 자료집, 2000
-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제4집, 2003
- 한승희,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학지사, 2001

## 부 록 1. 창작촌 운영자 및 입주작가 인터뷰 항목

### 1. 창작촌 성격

- 창작촌이 추구하는 방향
  - 1) 개방형, 폐쇄형, 혼합형
  - 2) 장르 혼합에 대한 관점
  - 3) 구성원 선별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사안
  - 4) 하나의 창작촌으로서 작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가의 여부
-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외 창작촌과 그 이유
- 구성원 간의 교류 프로그램
  - 1) 의사결정이나 조율의 과정
  - 2) 공동 작업이나 기타 집단적 활동의 종류
  - 3) 창작촌에서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 구성원 개개인의 작품 성향이나 장르적 특성
  - 1) 각각의 장단점

### 2. 운영 프로그램

- 구성원 내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존재여부
- 외부작가나 기타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여부
-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성격
- 지역과의 교류차원의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여부

### 3. 창작촌 운영

- 창작촌 건물의 소유형태(임대 등)
-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의 규모와 조달형태
- 운영비 조달형태의 다양성 및 집중성
- 운영비(집행)결정의 과정 및 결산 과정
- 운영위원의 구성 및 역할
- 핵심적인 운영 규칙의 존재여부 및 적용의 엄격성
- 상벌체계의 존재여부 및 적용
- 공동 행사 등에 조직적 참여 및 개별적 참여 여부
  - 1) 개별적 참여에 맡긴다면 그 이유는
  - 2) 조직적 참여에 해당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 구성원의 변화(신규참여나 교체 등)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 창작활동에 창작촌 스스로가 지원하는가(지원한다면 구체적으로)

### 4. 외부와의 관계

- 지역민과의 교류나 기타 관계
-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
- 주로 교류하는 외부 단체가 있다면(작업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등)
- 교류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 해당 창작촌에 있어서 외부와의 관계가 가져올 장단점은

#### 5. 현안과약

- 현재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자체 문제와 외부적 문제 모두)
-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은
-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 현 구성원들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 비율은
- 창작에 전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 창작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 6. 기타

-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견해는
- 작품의 외화작업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나 선호하는 방식은
- 현재의 창작촌을 선택하고 입주하게 된 이유는
- 창작촌을 처음 형성할 시 그렸던 그림은

#### ▶ 외부초빙작가 인터뷰 항목

참가동기 및 목적

1. 창작촌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배경
2. 창작활동, 교육, 지역문화예술발전 등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개선방향
3. 현재의 창작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4. 창작촌과 관련한 발전방향(지향점)

정책관련

1. 현행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
2. 문화예술정책에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점

#### ▶ 참여자(체험자) 인터뷰 항목

1. 창작촌에 대해 알게된 계기
2. 교통편의 불편함 도는 애로사항, 개선점
3. 공간과 관련된 불편한 점과 개선점
4. 평소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여부
5. 창작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
7.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8.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창작촌이 생긴다면 찬성여부와 활동의사 여부

#### ▶ 지역주민 인터뷰 항목

1. 창작촌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2. 지역환경개선,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발전의 기여 여부
3. 창작촌 입주 이후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 4.창작촌 활동에 참여 여부
- 5.창작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전문가 자문회의 : 창작자/매개자를 포함한 2-3회의 자문회의



부 록 2. 2005'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창작촌활성화 지원대상 사업 공간 탐방기

<왕곡천 숲속 테마 예술제>

기간 : 2005. 10.15(토), 16(일) ~ 2005. 10.22(토), 23(일)

장소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왕곡천 예술인 마을

주제 : '예술혼이 살아있는 왕곡천으로'

나뭇잎이 제법 구릿빛을 뽐어내는 10월 넷째 주말, 왕곡천 숲속 테마 예술제가 열리는 의왕시 왕곡동으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난 곳이고, "숲속"이라는 어감 때문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왕곡천은 사당역에서 좌석버스로 15분 정도 달리면 닿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왕곡천 예술인 마을의 김문석 선생님의 친절환 전화 안내로 왕곡동 길목에 들어서자, 지난해 예술제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두 정승이 '왕곡천 숲속테마 예술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업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부는 일요일 낮이라, 백운산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이 가끔 눈에 띄었다. 백운산 자락과 논, 밭이 보이는 이 곳 왕곡동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그 곳 주민들 또한 이 곳 왕곡로를 산책로로 이용하는 듯 보였다.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과는 달리, 예술인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가을걷이를 하고 계시는 한 주민에게 예술인 마을의 위치를 여쭙았다.

“이 곳에서 무슨 예술 행사를 한다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거 밤에 노래하고 그러는데?”

이 작은 마을에서 그래도 예술제가 열리는 것쯤은 아시겠지 하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그 분은 그저 노래 자랑하는 지역주민 행사로 이해하셨나보다.

“아니요...여기...어디...예술인 마을이 있다던데...?”

“아...그 예술 하시는 교수님들 사시는 곳이요?”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술인 마을에서 그 날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고, 그저 예술 하시는 교수님이라는 거리감 있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던 한 주민의 안내가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 분의 안내로 왕곡천을 따라 걸어갔다. 제법 물이

많이 있는 계곡에서 이제는 손이 시릴 만도 할텐데 무엇을 잡으려는 건지, 물가에 앉은 아이들을 발견했다. 후에 김문석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이지만, 몇 해전만해도 이 지역은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기름 유출 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웠었다. 그러나 현재는 2급수의 맑은 물로 다슬기도 서식하는 깨끗한 곳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계곡물에서 열심히 물고기 놀이를 하고 있었나보다.



맑은 계곡 소리와 백운산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낙엽 타는 푸릇한 냄새도 실려 왔다.

숲속 예술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울창한 나무 숲 사이 오솔길로 들어서자, 숲속 예술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예술제 장소를 제대로 찾아왔다는 안도감(?)을 만들어줬다. 너무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숨어 있어서 단순히 산책을 즐기기 위해 나섰던 타 동네 주민들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실제 공간적인 면에서 숲속에 숨어있는 스튜디오는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환경일수 있겠으나, 스튜디오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쉽게 다다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사실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단체관람을 유치한다든지, 의왕시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기사 그리고 숲속 예술제 바로 이전에 열렸던 ‘백운산 축제’(사실 마을 어귀에서 났던 분은 아마도 이 축제를 기억하셨나보다.)를 통한 간접홍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힘들더라도, 이런 행사 때는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가장 가까운 왕곡천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잘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는 전년도 사업과 다르게 단순히 관람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공간을 오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하였다. 그에 걸맞게 작가들 개개인의 팸플릿도 자체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주었는데, 이는 지원금에 자비를 보태어 준비한 것들이라고 하였다.

작가들이 발품을 팔아서 갤러리를 찾아가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 작업공간에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오픈하고 그 작품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작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걸어보았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도 관람객들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졌는데,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찾아오는 손님들과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손님들은 마다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특히 관내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서 예술제 기간을 계획과는 다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일 특별활동을 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재량 휴교일인 점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예술제 기간을 셋째, 넷째 토요일로 조정함으로써, 특히 학생들의 단체

참여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솟대 만들기, 부채 그림, 도예체험, 벽화체험, 캐릭터 만들기 등이 있었다. 필자가 찾아 갔을 때, 몇몇의 아이들이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김문석 선생님 말씀으로는 특히 놀이를 이용한 캐릭터 만들기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프레스코 벽화는 개인별로 액자를 만들어줌으로써 성취감 또한 맛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특히 이애리 선생님은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정서상태를 부모님께 이야기 해 드림으로써 부모님의 관심도 유도했다.



이 모든 활동은 재료비를 참여자가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재료비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끔 고민하시는 걸 보니, 주로 지인들이 많이 찾아온 듯 했다. 필자가 간 날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날씨에 관객이 많이 없었지만, 그 곳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단체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디서든 아셨는지, 전화로 물어 물어 오신 타지 분들도 꽤 많으셨다고 했다.

쌀쌀한 날씨와 가을 절정의 운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 이 곳에서는 감자와 고구마를 장작불에 구워 나누워 주는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다. 감자와 고구마를 굽던 학생들이 보였는데, 마침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작가 분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그 지역 학생들로, 공간안내나 체험학습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또 다른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앉아서 보니, 김영주 선생님이 한창 제작 중이신 동네 아트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 어르신들이야, 그저 눈에 쉽게 들어오는 초록색 간판정도로 생각하셨을 테지만, 이장님과 의견을 조합해서 눈에 띄고 예쁜 이정표를 한창 제작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완성이 안 됐네요?”라는 질문에, 다음 주에 있을 마을 산신제 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김영주 선생님은 가스통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을 위한 벤치도 만드셨는데, 그것은 마을 회관 옆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쉼터로 이용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기보다는, 작가 분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함께 하려는 노력이 간간히 엿보였다. 이렇게 작은 작품들이 하나씩 모이면 마을 주민들과 작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왕곡천 예술인 마을은 축사를 개조한 스튜디오로, 이 곳에는 모두 6분의 선생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땅의 실제 주인의 아드님도 그 중 한 분으로 옆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 다른 분들도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곳을 집처럼 왔다갔다 하신단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했던 전 날 그 곳에서 주무셨다가 일어나보니,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얼음이 얼어있었던더라는 김문석 선생님의 설명을 듣자니, 작가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기엔 열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도 그럴 것이 이 곳은 정식으로 말하자면, 축사를 불법개조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공간 소유자와 입주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간 활용문제 면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셨다. 작가 분들은 행사를 위해서도 지역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이것저것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로 실천을 못하고 있음에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또한 E-mail이나 우편 홍보 등을 통해 전년도 참여관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으나, 사실 사무적인 일과 홍보 등도 도맡아서 직접 운영하시기에 는 역부족이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작가분들이 단지 ‘예술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니라, ‘예술하는 우리 주민’으로 한걸음 한걸음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예술혼이 살아있는 왕곡천”으로 왕림하길 기대해 본다.

## 2005 겨울 Workshop 재미있는 연극교실

기간 : 2005.12.26 ~ 2006. 1. 27 (월, 수, 금/ 주 3회)

장소 : 수원 팔달문 극단 '城'

1983년 창단한 극단 '城'은 수원에서 유일하게 남은 극단으로, 지난 세월동안 많은 실험극과 창작극으로 수원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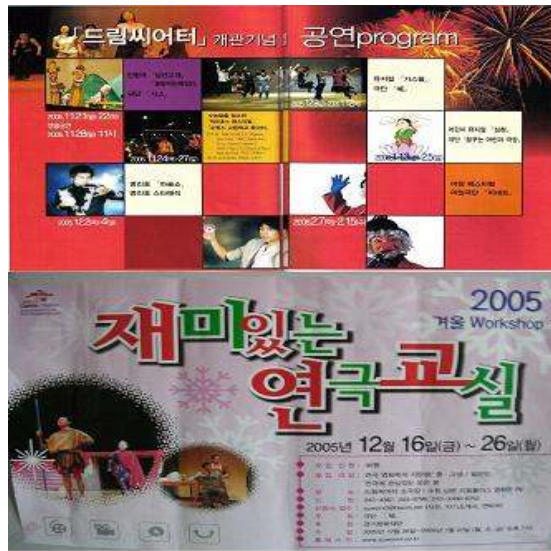
비단 수원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소극장 중심의 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상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대중화라는 이름에 떠밀려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이미 1970년대부터 10여개의 소극장이 개관되고 폐관되기를 반복했던 수원의 소극장 문화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형극장들의 잇따른 건립과 대형공연의 흥행에 따른 여파로 점차 설 곳을 잃게 되었다. 기존에 8개 극단이 있었으나, 지금은 극단 '城'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벤트성에 그치는 공연보다는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다는 극단 '城'은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끝에, '드림 씨어터'의 개관으로 다시 소극장 문화를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원래 남문 소극장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북문에 약 80여평 되는 극단 '城'의 연습실이 따로 있다. 많은 소극장의 폐관으로 힘들어하던 중 운 좋게도 드림 씨네마 사장님이 이 극단에 관심을 보이시고, 극장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지하 6층에 연극을 위한 소극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장님의 배려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이라는 적은 임대료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지난 11월에 소극장을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장을 대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사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극장 같은 경우 너무 비싼 대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연 입장료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던 터에, 드림 씨어터의 개관은 단원들에게 그나마 작은 격려가 되었다.

200석 규모의 이 공연장은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수원 팔달문(남문) 로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는 점과, 한 건물

에 영화관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림 씨어터'의 개관과 동시에 개관 기념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들은 눈에 띄기에 충분했다. 특히 드림 씨어터는 단순히 연극 공연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종합 공연장으로, 청소년들과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수원 내 고등학교 Rock & Dance 동아리들의 공연의 장을 만들고, 마술쇼, 마임 등의 개관기념 공연이 기획되었다.



처음 극단 '城'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전화했을 때, 극단 대표님이신 김성열 선생님은 너무나도 투박한 말투로 전화를 하셔서 솔직히 겁을 잔뜩 먹었다. 나중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이지만, 한참 소극장 개관으로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뮤지컬 '가스펠' 공연 준비로 하필 정신 없으실 때에 맞춰서 전화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중순 처음 극단 성을 찾아갔을 때, 극단 사무실은 시린 바깥 날씨만큼이나 어수선하고 쌀쌀한 분위기였다. 수원 남문, 상가들 사이에 높이 올라간 드림 씨네마 건물 1층 한 귀퉁이를 극단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라 그런지,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이였다.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여기저기서 가져온듯한 의자들이 제각기 흩어져 있었고, 그저 지난 포스터들과 빼박한 책꽂이에 삐죽삐죽 꽂혀 있는 극본들만이 그 곳이 연극하는 사람들의 모임 터임을 알 수 있게 해 줬다.

“미쳐야 해요. 미쳐야 하지, 제 정신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선생님은 미쳐야 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워크샵 첫날은 극단 '城'의 대표님이신 김성열 선생님의 강의로 시작됐다. 소극장에 모여 앉은 10여명의 학생들 중, 몇몇의 학생은 이미 지난 여름 연극 교실에도 참여한 바가 있어 극단 단원들과도 서먹서먹하지 않은 듯 보였다. 연극 교실에 참여 신청은 본래 연극 영화과를 지망하는 중고생들, 또는 연극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했다. 사실 지난 여름 연극교실 때는 제법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는데, 소극장 개관으로 바뀐 일정에 홍보가 잘 안된 탓인지, 추운 날씨 탓인지 겨울 연극교실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참여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극단 '城'에 두 번째 방문한 날은 마침 판소리 강의 첫날이었다. 그러나 총 13여명의 수강생들 중에 연극교실 신청 수강자는 5명 정도의 학생이 고작이었다. 그 학생들은 매년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는 고2학생들이었는데, 판토마임, 무대조명, 재즈댄스, 노래, 판소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흥미롭고 자신들의 끼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평가를 했다. 다섯 명의 강사 선생님들은 서울에서 오시는데,

매주 다른 프로그램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는 단원과 학생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았다. 선생님들의 강의료는 재단 지원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에게 강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사실 서울에서도 무료의 훌륭한 강의를 찾아보기 힘든데, 수원에서의 이런 기회는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연극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단원들에게도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자칫 지역 내 일반인들에게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라는 지원금이 극단 자체 재교육비로 충당될 소지가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다.

총 12번의 연극교실이 끝나면 그동안 받은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 중심의 공연도 직접 기획 계획이라고 했다. 그 날 만큼이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친구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입소문이 빨리 퍼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사실 극단 자체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수원 시내 사람들이 소극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학교나 교회 등 단체 관람객들을 유치해서 입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관공서나 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느 소극장 단원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일인 다역을 해내야 하는 소극장 구조가 여전히 아쉬움을 자아낼 뿐이다. 홍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공연장을 대관함으로써, 그 공연장 자체 홍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기문화의 전당 대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람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극을 직접하는 대표 자신도 그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연극을 봐야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한다. 특정 계층을 위한 연극이 아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사실 여름 연극교실보다 적인 인원이 참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연극교실을 무료로 하는 이유는 연극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요즘은 뮤지컬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연극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서울에만 공연문화가 치중되어있고, 지방에서 하는 공연도 대부분 대형공연의 인기가 많다. 작은 날개 짓이지만, “우리 지역에 작지만 이렇게 좋은 공연 장소가 있다”라는 입소문이라도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학생들 상대로 무료 워크샵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 대표님은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워크샵도 많이 할 계획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행사를 치를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자족하고 마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수원, 화성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전통 역사극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수원의 팔달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소극장의 특성을 살려서 주로 고전작품을 많이 공연할 계획이시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지역문화제와 연계해서, 연극제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시길 희망하셨으며, 특히 상권이 형성된 남문을 중심으로 고객, 관객 유치하기 위해서, 남문 상가 주민들과 함께 연계한 워크샵을 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히셨다.

사실 이러한 계획들은 극단이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홍보를 하더라도, 개인 극단이기 때문에 관공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외면당하기 일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극단 측에서 수원시내 여러 학교를 직접 발로 뛰며 공고문을 보내도, 개인 극단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소홀하게 보는 경우도 많았다. 공고문을 보낼 때 경기문화재단이 일일이 다 둘러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원하는 단체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공고문을 직접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재단 측에서는 단순히 지원금만 보내고 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이트 방문자가 많은 재단 측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단체의 행사에 대한 광고도 정기적으로 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있길 바란다.

극단 ‘성’의 대표님이신 김성열 선생님께서 직접 극본과 연출을 맡으셨던 뮤지컬 ‘정조대왕’ 홈페이지에 소개된바와 같이, “城이 수원의 상징인 것처럼, 극단 ‘城’ 또한 수원 연극의 상징”이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창문 자연 예술제 - 자연·예술·그리고...삶>

기간 : 2005.10.15 ~ 11.6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 창문아트센터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에 위치한 창문아트센터는 2000년에 폐교한 창문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운영되는 문화공간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면서 상호교류를 통해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가 들어선 화성시 수화동은 79가구의 150여명의 주민이 아늑하게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창문아트 센터 대표이신 박석운 선생님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예술행사 프로그램이 있어 지역을 찾는 이들과 자매 결연을 맺는 등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듦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꾀하고 도시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도농교류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아름다운 예술과 신선한 유기농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작가와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아트센터로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처음 창문아트센터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주로 인근 협성대학교 미술과 교수들로, 창문아트센터의 지역적 조건과 사업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모이신 실력파들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2년단위 임대계약과 연간 약 4천만원이라는 높은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작가들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안겨줬고, 화성교육청과의 협상문제 때문에 학교를 활용하는데 안정을 찾지 못했다. 불안감을 느낀 작가들은 결국 하나 둘씩 창문아트 센터를 떠났고, 십여년 전 벌어진 화성 사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 새로 입주하려는 작가들도 많이 꺼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임대료문제 때문에, 새로운 작가들을 다시 모집해야 했다. 그러나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던 초기 멤버들과는 달리, 각각의 활동영역이 다른 작가들끼리의 낯설음과 또 다시 서로 창문아트센터 나름의 규율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큰 제재 없이 “자연예술제”에 의무적으로 참가한다는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현재는 작가들이 다시 형성된 상태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박석운 선생님은 마을주민과 함께 서로 도움이 될만한 끼리를 찾게 되었고, 결국 생각 해 내신 것이 바로 “자연예술제”이다. 창문아트센터가 자리한 공간은 이미 그 지역주민들이 거쳐 갔고, 또 언제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임으로, 함부로 그 공간을 작업공간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지역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단순히 “창문아트센터”라는 명목의 장소뿐만 아니라, “창문 문화농촌 체험마을”이라는 타이틀로 마을과 창문아트센터가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오히려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창문아트센터를 지켜나가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일례로 지난 해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교육청의 통보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미 창문아트 센터는 자생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생적 공간이 되었다.

사실 창문아트센터를 혼자 찾아가기에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수원역에서 제부도행 버스를 타고 남양성지를 가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남양성지에서 창문아트센터가 있는 수화리까지는 버스가 하루에 여섯 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택시로는 6000원 정도면 가는 거리로, 택시 기사 아저씨는 “수화리 가자”는 말에, 먼저 “학교 가세요?”라고 물으셨다. 그만큼 택시를 타고 수화리를 들어가는 사람은 지역주민들보다는 창문아트센터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겨울인데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씨 탓에 학교 운동장은 더욱 쓸렁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없어서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건물 2층에서 박석운 선생님이 손짓을 하신다.

벌써 5년째 수화리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박석운 선생님을 처음 비었을 때, 너무 털털하신 모습에 조금 놀랐다. 마침 마을 이장을 선출하는 날이라, 마을회관에도 가봐야한다는 선생님은 상당히 분주해보이셨다. 그 날은 또 창문아트 센터 입주 작가 한분이 서울에서 개인전시를 하신 날이고, 화성시 미술가 협회 회의도 있다고 하셨다.

분주해 하시는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 혼자 행정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기에 정말 힘드시겠다는 질문을 하자, 선생님은 안 그래도 너무 바쁘다고 하신다.

사실 11분의 다른 작가 분들도 계시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은 서로 낯설어 하는 부분이 많으시란다. 특히 선생님은 관공서와 관련된 업무도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인 다역은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 행정적 업무를 따로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외부인이 그런 일을 할 경우엔 업무지원부담금 등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든 문제다. 그나마 지역 청년회의 도움으로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들은 서로 많이 협력하고 있으며, 화성시 미술가 협회와 협력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현재 창문아트센터가 문화공간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현실적 노력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36여 곳과 맺은 자매결연에서부터 볼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문아트센터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기관은 수화리에서 나는 농작물들을 직접 살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한 수화리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지에 있는 생태마을을 견학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교육이 세 차례 정도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한 부녀회가 직접 학교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순두부 체험은, 체험자들에게도 그 호응도가 매우 높아, 이를 계기로 근래에 파주 장단콩 마을도 견학할 계획이라고 한다.

처음엔 예술인 거주공간으로 시작되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목적아래 마을 전체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자연스럽게 관공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자연 예술제 등의 사업 진행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나오는 1200만원의 지원금은 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의 진행금으로는 마을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 진행비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시에서의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공간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꽃길 만들기 등의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생태마을은 주민들에게 체험공간 뿐만 아니라, 또다른 감상공간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문화공간에 대한 새로운 눈트임을 보여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기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농가 소득의 부수입을 높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농촌 체험마을은 평일에는 주로 원 중심의 단체가 많이 오고,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한다. 창문아트센터를 중심으로 5개 마을로 조성된 창문 문화 농촌 체험마을은 4계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 제공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도농간 교류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는 자칫 창문아트센터가 작가들의 작업공간이라는 인상만 주기 보다는 지역의 일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 작인과 함께하는 공간 희망의 창작미술공간...

#### 창문아트센터

창문아트센터는 아름답고 행복한 미술공간 확보하기 위하여 수려함에 위치한 청문초등학교(폐교)를 개조하였으며 국내 우수작품의 수집, 보존, 전시와 더불어 미술자료의 조사연구, 미술정보 교류와 미술의 상호연결로 향상된 공화미술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자연미술 학교**는 9명의 대학교수와 전문작가들이 모여 국내외 상급 스텝으로 전시실, 자료실 등 시설을 갖춘 창작공간과 환경 친화적 조경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술장을 갖추고 전반기에 의해 환경조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린공간입니다.

**시민참여점관**은 예술품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매주개 합니다.  
\* 예술품에 대하여 \* 시민 참여 \* 시민예술품(다매)

**허수아비축제**는 허수아비가 참새를 놓는 모습이 한연한 가을에 매년 열리는 예술제, 잠시 일상의 고요에서 벗어나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제1회 농촌 예술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환경조형 연구소**는 문화예술에 관계하는 학생이나 실내 외 벽화등 건축물과 관계되는 문물회화, 조형물이나 각 공예품 등과 같이 순수예술적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체 조형예술 사업에 참여하여 현대산업 사회에서 순수 예술미술이 갖는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하며 문화인재를 통해 지역 내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경비행정 견학

오른경리라는 창문아트센터 내에 상설 전시관으로 여러 작가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여름,겨울미술학교를 통한 아이들의 작품도 감상 할수있어 아이들연인 더 없이 좋은 미술관입니다.

### 행사내용

일	행사내용	비고
1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2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3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4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5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6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7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8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9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10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11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12일	문화체험 (창문아트센터)	전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angwoonart.co.kr>

### 작인의 여류다움과 동성애 수확의 기쁨을...

####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농작물을 가꾸면서 자녀들의 자연학습 체험은 물론 정서함양과 소중한 아련 시절의 추억이 되고 알찬 수확은 노력에 의해 따라서 출현 담만큼 결실이 맺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것입니다.

**이용방법**

- \* 기간 : 매년4월~11월말까지
- \* 금액 : 평당 20,000원
- \* 가격 : 30가씩 (가격당 3~5명기준)
- \* 단채 : 20팀 (1팀당 30명기준)

**신청**  
전화 연락후 계좌에 해당금액 입금  
문의처 : 021-259-2550 017-259-2590  
입금계좌 : 농협 207076-52-018804  
예금주 : 박주석

**수확가** : 포장 단지 적인, 홍지, 밀가루, 소농기구,  
\*의류 종류: 배추, 애호박, 늬운소박, 오이, 상추, 고추(고양이, 피라고추), 깻잎,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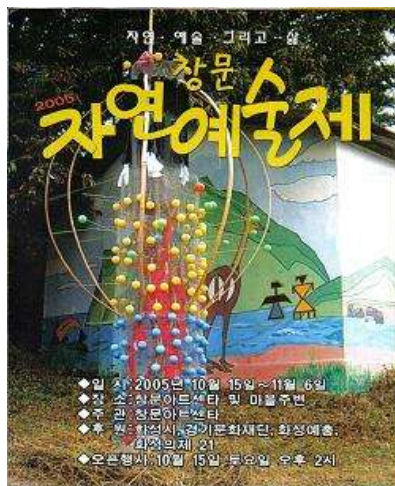
**수확가** : 씨뿌리기, 흙어주기, 김매기, 수확하기  
마감가능/ 마지막 수확후 비리규 피터



\* 주말농장 신청서 등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열거지 모음물 예쁘게 화면에 실어 드립니다.

또한 창작공간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과 마을 주변을 중심으로 센터 상주 작가들의 정기전을 열고, 연간 두 번 스튜디오를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추수가 끝난 시기를 의도적으로 택하여 마을 주변에 여러 가지 설치 미술을 전시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새로운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벽화그리기, 장승 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의 미술체험과 농사체험과 먹거리, 농산물 직거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하나가 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서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도 한 몫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탓에, 홈페이지 관리 등



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는 그나마 자매결연 제도를 통해 정보알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와 화성시 의제와의 연계 그리고 인근 지역 단체들간의 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이 요구된다. 그나마 지난 해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참여와 경기도와 화성시 홍보 책자에 창문아트센터와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서 홍보가 많이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박선생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홍보한 덕으로 역시 홍보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센터 자체적으로는 자연예술제 등이 열리기 전 초대 작가섭외를 통해 거주 작가와의 교류와 워크숍을 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우고, 앞으로 폐교 활용자들끼리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진행이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청과의 단기 계약과, 용도 변경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등은 창문아트 센터 자체가 장기 계획을 기획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선생님은 이에 대해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재단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화성시와 화성 교육청 그리고 재단 등의 공공행정 기관끼리의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들끼리의 연계 지원이 안되다 보니, 운영자로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많은 행정적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네트워크가 하루 빨리 형성되길 바란다.

2002년 정식 오픈 이후, 창문아트센터가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농촌프로그램들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지역주민들도 서서히 창문아트센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한때 지역교육청에서 창문 아트센터의 운동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창문아트센터를 보호한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창문아트 센터는 이미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문아트센터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연계하는 지역개발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것은, 지역이 살아야 창문아트센터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창문아트센터의 문화 공간 활성화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창문아트센터의 문화 예술 활동 영역과 지역의 자연 등 여러 문화·관광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발된다면, 지역의 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악산 도자기 축제

기간 : 2005.11. 5(토) ~ 11.7(월)

장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현대도예문화원( 구 화악초등학교)

비가 오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쌀쌀한 바람 사이로 따뜻한 햇살을 토해내는 11월 첫째 토요일의 이른 아침. 특히 MT철이라 가평으로 가는 길목이 많이 혼잡할거라는 생각에 서둘러 나섰다. 게다가 전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대도예문화원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 전화했을 때, 박근수 이사장님은 가평터미널에서 현대도예문화원이 있는 마을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하루에 네 번밖에 없으니, 시간조절을 잘 해야 할 거라는 겁(?)을 한참 주셨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차를 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가평터미널에서 근 두 시간을 기다려서야 화악리행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출발을 기다리는 버스 문 바로 앞에 노부부가 지팡이를 기대어놓고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셨다. 새벽부터 첫차를 타고 장에 다녀오시는 길이신지, 검은 봉지를 하나씩 손에 쥐시고 한참을 앉아계셨다. 기사 아저씨가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로 한손에는 지팡이를 짚으시고 다리를 끌면서, 할머니가 앉아계시는 커다란 포대를 끌려고 애를 쓰셨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겨우 할머니를 들어서 버스에 태우실 수 있었다. 화악산 주변 주민들이 대부분 화전민이었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터라, 그 노부부를 보는 순간 그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사셨을까가 궁금해졌다. 그 노부부에게서 짙은 화전민의 냄새가 풍겼다. 토요일 화악리로 향하는 버스는 긴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같았다. 타는 사람들마다 가족이고, 이웃이었다. 동남아 어디선가에서 시집 온 한 아주머니는 아이를 옆고, 장에 다녀오는 길에 시누이를 우연히 만나 서툰 한국말로 이런저런 인사를 한다. 토요일이라 일찍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잣을 사러 서울에서부터 오셨다는 몇몇 외지인들로 버스가 시끌시끌하다. 세대와 세계가 뒤섞인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는 굽이굽이 한참을 화악산을 향했다.

30여분을 지났을까? 여기도 산이고, 저기도 산이고 온통 산밖에 안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려, 겨우 버스안내방송이 들릴 무렵 옆에 앉은 한 승객에게 화악리는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물었다. 마침 그 젊은 여자 분도 화악리를 가신다기에 안심을 하고 내려서 가다보니, 다행히 현대도예문화원 행사를 도와주러 대전에서부터 오신분이란다. 어떻게 대전에서부터 오셨냐니까, 원래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결혼 이후 대전에 내려가 있다가 이런 행사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신단다. 학교 앞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도 그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보니, 이미 화악리의 한 주민이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여름엔 시원하게 물이 넘쳐났을 화악천을 옆으로 '현대도예문화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인다. 트로트가 계속 들려, 주변을 자꾸만 돌아봤다. 혹시 지역행사라는 이유로 장사꾼들이라도 온 건 아닐까하는 생각과는 달리, 마을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했다. 둘러보니 마을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였던 것이다. 전방에 가까운 곳이라 군용트럭이 간혹 다니는 게 전부였다.

경기 제일의 고봉인 화악산(1,468m) 자락에 있는 목동초등학교 화악분교는 대부분의 이곳 주민들은 화악분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1994년 폐교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의 상심이 매우 컸단다. 이후 주민들에 의해 공부방으로 사용되거나, 교육청에 의해 청소년 수련의 집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 바 있으나, 이용부진과 관리상의 이유로 비워둔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2년 정식으로 박근수-정충미 부부에게 임대되어 도

예와 다도, 전통생활예절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박근수 이사장과 정충미 원장은 직접 사비를 들여, 시설을 개조하여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자 노력하셨다. “가평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는 박근수 이사장은 사실 처음 가평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속상하셨다고 한다. 특히 그네들이 다니던 학교를 외지인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처음엔 주민들이 낯설어 했지만, 가평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학교를 자신들의 집처럼 가꾸고 또 가꾸셨다. 그러한 노력 끝에 박 선생님과 정 선생님은 마을 주민들과 한 가족처럼 가까워 질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도예강의를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관사와 박 선생님 부부의 관사가 학교 건물 바로 뒤에 소담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으리라.

평소 이곳은 주5일 수업에 따른 실기 프로그램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초·중교 교사들과 목동초등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민들도 즐겨 찾는 문화예술공간이 되었다. 또한 주말에는 주로 대학생들의 MT나, 회사 수련회 등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단지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 배워가는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다보니, 정작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주인이 된 프로그램을 하나쯤은 갖고 싶었을테다. 그래서 박 선생님과 정 선생님은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보고 싶으셨다.



화악산 도자기 축제라는 현수막과 운동장에 펼쳐진 만국기 아래로 벌써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 점심식사를 마친 주민들은 다음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주민들 틈에서 박근수 이사장님과 정충미 원장님이 먼저 알아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점심식사를 아직 안했을테니 식사 먼저하라는 선생님들 재촉에 마을 주민들이 준비하신 음식꺼리들로 배를 채우고 나니, 벌써 다음 민속놀이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미 마을 주민들은 오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에 한껏 상기된 느낌이었다. 박 선생님은 계속 11시 개회식을 놓친 것에 아쉬워하셨다. 개회식 때 인근 목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물놀이를 한껏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곧 이 곳 주민들의 손자 손녀들이고 아들, 딸들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더욱 컸다고 사랑을 늘어놓으셨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현대도예문화원에 방문하기 전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 행사에 대한 홍보를 크게 볼 수 없었다. 여느 지역행사와는 다르게 홍보를 한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살짝 속속을 밝히지 않고 전화문의를 드렸을 때도, 박 선생님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다. 어떻게 행사에 대한 홍보도 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다. 그러나 그 역시 개인적인 걱정으로만 끝내야했다. 대외적 홍보에 노력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박 이사장님과 정 원장님의 뜻은 이러했다. 이 행사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여느 행사처럼 자칫 지역 주민들을 들러리로 내세워서 대외적으

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도자기 축제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 화악초교에 발을 내딛었을 때처럼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양이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폐교가 된 마을 학교를 가꾸은 것처럼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신 후에야 마을 사람들의 동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개회식 사물놀이도 인근에 있는 국악 한수에 부탁을 드릴까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서툴지만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을 초대함으로써 호응이 더욱 컸다고 한다.

게다가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표지와 내지에 마을 주민들이 그 동안 체험한 사진들을 실음으로써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 의도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프로그램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주민이 빛은 도자기 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화악산 도자기 축제는 단순히 도자체험과 전시를 벗어나, 주민들의 축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민들은 제기차기, 투구 등의 민속놀이로 한참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 응원하며 웃음 꽃을 피우셨다. 농사짓느라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빨강고 노랑게 그려진 페이스페인팅은 이 곳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으리라.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끝나고, 마을 주민들은 황토물 들이기와 물레체험, 도자 그림 그리기 등에 열중하셨다. 특히 황토물이 아토피 피부에도 좋다는 김충미 선생님 말씀에 손자 손녀들 코 닦는 데라도 쓰시겠다고 손수건을 황토물에 적시느라 할머니들께서는 아우성이셨다. 또한 팜플렛에 실린 이장님 부부의 영화“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처럼 물레를 뒤늦게나마 돌려보시겠다고, 서로들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하고 남편 아내를 찾으셔서 보는 이들이 한껏 웃게 하셨다.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흙은 정성스럽게 돌려, 모양을 만들어가는 재미에 한껏 빠지신 분들 옆으로는 이미 초벌 구이된 도자에 정성스럽게 그림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귀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었다.

처음엔 서로들 부끄러워서 참여를 안 하시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던 분들도, 모두들 참여자가 되어서 모두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였다.

본래 가평군 북면 화악 1리, 화악 2리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주 1회 총 6회 도자기 교육실시 예정이었으나, 바쁜 농경기로, 행사 전주 이틀간만 할애해서 만들어진 도자 전시는

특히 주민들에게 큰 인기였다. 황토빛으로만 봤던 자신의 작품이 유약이 발라지고 구이를 끝내고 오묘한 빛으로 재탄생한 것을 보시자, 직접 작품 만들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는 자부심을,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다음 해엔 모두들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놀이와 체험이 끝나고 난 뒤, 팜플렛에 미리 쓰여진 행운의 번호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식과 전통놀이 투호놀이 제기 차기 등의 최다 득점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선물을 받아두고 좋아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한 마지막 프로그램은 소망날리기였다. 아침 일찍 미리 각자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벚짚에 모아두었다가 크게 둘러 모여 함께 태우는 행사였다.

가을 들녘, 하루 종일 웃고 떠들던 주민들과 그네들의 소원을 담은 종이와 벚짚이 어울어져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코끝으로 찌릿 타고 올라오는 벚짚냄새가 어느새 화악리를 훈훈하게 감싸 안았다. 지역축제라는 명목으로 떠들썩 한바탕 손님을 치루는 느낌의 행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참여한 행사들로서 그 의의가 있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화악리 도자기 축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주민들의 화합과 주체의 장으로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해나가길 비는 소원을 타고르는 연기에 함께 실려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 주민들은 모두들 박근수 선생님과 정춘미 선생님께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으셨다. 오래간만에 주민들과 재미있게 놀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서 너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되길 바라셨다.

특히 다음 행사 때는 꼭 타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말씀들도 빼놓지 않으셨다. 처음엔 쭈뼛쭈뼛 뒷짐만 지고 구경하시던 분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네들 스스로 어릴 적 모교에 대한 추억에 빠지셨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빼앗겼다고만 생각했던 그네들 모교가 또 다시 충분히 그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박 선생님은 이러한 행사가 단지 주민들이 하루 노는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평 내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문화예술 축제로 넓혀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생산물들, 즉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수확하고 판매하는 데에도 서로 도움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구조 개선에도 일조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단지 하루만을 위한 마을주민의 잔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틈틈이 쉬어갈 수 있는 더욱 가까운 공간이 되며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러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